

FY2018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2019. 9.

FY2018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2019. 9.

CONTENTS



1. 지방재정분석의 개요

1. 지방재정분석의 의의	003
가. 지방재정분석의 목적	003
나. 지방재정분석의 추진절차	004
2. 지방재정분석 방법론	005
가. 2019년 지방재정분석 지표	005
나. 분석 및 평가방법	008

II. 2019년 지방재정분석 결과

1. 총평	017
가. 분야별 결과	017
나. 2019년(FY2018) 지방재정분석 결과	020
2. 분야별 분석 결과	021
가. 재정건전성	021
나. 재정효율성	026
다. 재정책임성	032
3. 지표별 분석 결과	033
가. 재정건전성	033
나. 재정효율성	057
4. 자치단체 유형별 분석 결과	107
가. 접근 방향	107
나. 자치단체 유형구분	107
다. 기초자치단체 유형별 지표분석 결과	116

III. 지방재정분석 결과의 활용

1. 지방재정분석 주요결과와 개선방안	153
가. 재정분석의 성과	153
나. 재정분석결과 부진지표에 대한 개선방안	154
2. 지방재정분석제도의 향후 발전방향	156
가. 재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분석방법의 발굴	156
나. 활용도 높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체계 구축	157

부 록

지표별 산식	161
지표개선 및 경과	165

1 . 지방재정분석의 개요

1. 지방재정분석의 의의	003
가. 지방재정분석의 목적	003
나. 지방재정분석의 추진절차	004
2. 지방재정분석 방법론	005
가. 2019년 지방재정분석 지표	005
나. 분석 및 평가방법	008

1. 지방재정분석의 의의

가. 지방재정분석의 목적

- 정부개혁, 지방분권의 시대적 패러다임(paradigm) 변화에 부응하여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균형 있게 조화시켜 주는 제도적 장치의 보강이 요구됨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에 따른 재정책임성 제고 장치
 - 재정운영의 책임성 제고를 통한 재정위기 사전예방
- 국가와 지방이 협력적 동반자로서 공생·발전할 수 있도록 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투명성 등을 주기적으로 종합 점검하는 시스템이 필요함
 - 재정의 현재 상태 및 위상(position), 운영 실태 및 개선노력 파악
 - 재정운영의 불건전성, 비효율성 등을 사전에 파악하는 조기경보시스템 역할
 - 재정분석결과의 환류·반영 및 차등적 재정지원 기준 활용
 - ※ 2009년도부터 재정분석결과(재정효율성 분야지표)와 보통교부세 배분을 직접 연계
 - 자치단체 내부의 재정지출 흐름과 지역발전 성과를 파악

1) 제도의 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 및 성과를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
 - 지방재정법에 근거 1998년부터 매년 지방자치단체별 분석·평가

지방재정분석제도의 목적

- 지방재정분석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운영실태 및 성과를 객관적인 재정·통계자료를 토대로 종합 점검·분석·평가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 및 예산절감의 노력을 진작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2) 개념과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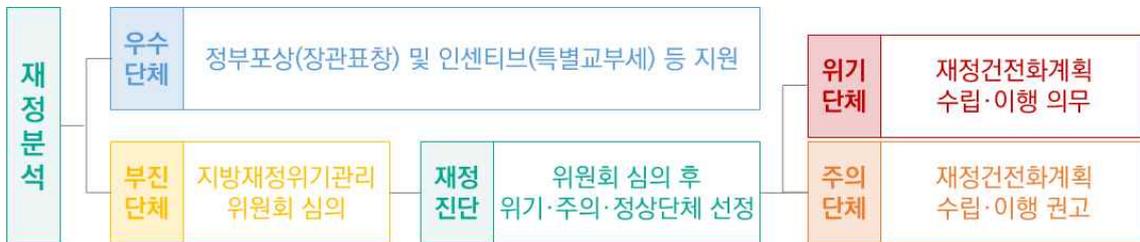
- 지방재정분석제도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회계와 관련된 핵심 측정수단을 활용하여 재정분석을 실시한 다음, 분야별·지표별 분석결과 및 유사단체별로 재정비교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는 실질적 재정관리 수단임

나. 지방재정분석의 추진절차

1) 개요

-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55조 및 제57조 / 동법 시행령 제65조~제65조의 4
-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 및 성과를 전년도 결산자료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대표적인 지방재정 모니터링 제도
- 재정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수단체에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 제공, 부진단체 대상 재정컨설팅 실시를 통해 재정건전성·효율성 제고

| 재정분석·진단제도 절차 |



2) 2019년(FY2018) 재정분석 주요 내용

- (분석대상) 2018회계연도 결산에 근거한 243개 쉰 지방자치단체
- (분석지표) 3개 분야 14개 지표(건전성분야 6, 효율성분야 7, 책임성분야 1)
- (분석방법) 지표별 가중치 반영 후 1,000점 만점으로 분석·평가
- (결과활용) 우수단체에 인센티브 지급, 부진단체 대상 재정진단 실시
- (분석절차) 지표개선(3월) → 합동작업(6월) → 자치단체 현장점검(7월) → 결과발표(9월) → 부진단체 재정진단(11월) → 국무회의·국회 보고(12월)



2. 지방재정분석 방법론

가. 2019년 지방재정분석 지표

1) 분석지표 분류기준

- (지표구성) 지표는 분석 목적과 정보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재정건전성·재정효율성·재정책임성의 3개 분야로 구성하여 분석 및 평가
 - 각 분야별로 분석내용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석요인을 체계화
 - 재정구조 및 운영 관련 통계 관리를 위한 참고지표 구성
- (재정건전성) 현재 및 중장기적 관점에서 건전재정 원칙에 입각한 재정상태의 건전성 여부를 재정수지, 채무(부채)관리, 공기업 관점에서 지표 구성
 - 재정수지 관점 : 통합재정수지, 경상수지
 - 채무(부채)관리 관점 : 관리채무규모, 채무상환능력
 - 공기업 관점 : 공기업부채, 공기업경영실적
- (재정효율성) 자원조달 및 재정지출 효과 관점에서 세입관리 효율, 세출관리 효율을 측정하는 지표로 구성
 - 세입관리: 세입조달능력, 체납액관리
 - 세출관리: 외부지원관리, 내부경비관리
- (재정책임성) 자치단체 재정의 준법운영 등을 위한 것으로 페널티 지표로 구성
 - 재정법령준수

2) 재정분석 지표체계

- 재정분석 지표 개선 TF 및 지표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치단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본 지표를 선정
 - 지표의 중요도와 변별력, 정보 특성 등 고려
 - 재정건전성 지표 6개, 재정효율성 지표 7개, 재정책임성 지표 1개
 - ※ 이와 별도로 재정통계 관리 목적의 참고지표 18개 선정

분 야	세부지표(22개)	배점 (1,000점)
재정건전성 (6개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재정수지비율 등 수지관리 2개 지표 ◆ 관리채무비율, 통합유동부채비율 등 채무(부채)관리 2개 지표 ◆ 공기업부채비율 등 공기업관리 2개 지표 	500점
재정효율성 (7개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수입비율(증감률) 등 수입관리 1개 지표 ◆ 지방세징수율(제고율) 등 징수관리 2개 지표 ◆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등 외부지원관리 2개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지원관리 분야 2개 지표에 대해 정성평가 지표 운영(FY2019) ◆ 지방의회경비절감률 등 내부경비관리 2개 지표 	500점 ※보통교부세 공유
재정책임성 (1개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법령준수 1개 지표 	감점 지표

※ (재정책임성분야 지표) 총점에서 감점

[표] 2019년 지방재정분석 지표 체계

분야	분석지표	분석기간	대상회계	지표성격
I.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단년도	통합회계	상향지표
	2. 경상수지비율	단년도	통합회계	하향지표
	3. 관리채무비율	단년도	통합회계	하향지표
	4. 통합유동부채비율	단년도	통합/공사공단/출자출연	하향지표
	5. 공기업부채비율	단년도	직영,공사,공단	하향지표
	6.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단년도	직영,공사,공단	상향지표
II. 재정효율성	7. 자체수입비율(증감률)	2년	일반회계	상향지표
	8. 지방세징수율(제고율)	2년	일반회계	상향지표
	9.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2년	일반회계	하향지표
	10.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2년	일반/기타특별회계	하향지표
	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2년	통합회계	하향지표
	12. 지방의회경비 절감률	단년도	일반회계	상향지표
	13. 업무추진비 절감률	단년도	일반회계	상향지표
III. 재정책임성	14. 재정법령준수	단년도	일반회계	페널티
※ 참고지표	참고 1. 관리채무부담비율	단년도	통합회계	하향지표
	참고 2. 관리채무상환비율	미래 4년	통합회계	하향지표
	참고 3. 장래세대부담비율	단년도	통합회계	하향지표
	참고 4. 의무지출비율(증감률)	2년	일반/기타특별회계	하향지표
	참고 5. 정책사업투자비비율	단년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상향지표
	참고 6. 행정운영경비비율(증감률)	2년	일반/기타특별회계	하향지표
	참고 7. 자본시설지출비율(증감률)	2년	일반/기타특별회계	상향지표
	참고 8.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증감률)	2년	통합회계	하향지표
	참고 9. 인건비집행률	단년도	일반/기타특별회계	하향지표
	참고 10. 실질수지비율	단년도	일반/기타특별회계	상향지표
	참고 11. 주민참여예산지출비율	단년도	일반/기타특별회계	상향지표
	참고 12. 탄력세율	단년도	일반회계	상향지표
	참고 13. 행사축제경비비율(비율증감률)	2년	일반/기타특별회계	하향지표
	참고 14.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단년도	통합회계	하향지표
	참고 15.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2년	일반/기타특별회계	하향지표
	참고 16. 예산집행률	단년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100%달성
	참고 17. 예산이월비율	단년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하향지표
	참고 18. 일자리사업지출비율	단년도	일반/기타특별회계	상향지표

주: 통합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

나. 분석 및 평가방법

1) 분석방법

- 계량·통계전문가, 지방재정학자, 연구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객관적이면서도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방법론 활용
-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표준점수(Z-score) 방식의 상대적 점수부여 방법 활용
- 예외적으로 분석대상이 소수인 경우(특별·광역시, 도)나 특정한 성격의 지표에 대해서는 상대적 등급제 활용

□ 표준점수(Z-Score) 산정방식

- 각 분석기관의 실적치 평균(X)과 표준편차(S)를 이용하여 지표별 실적에 대한 상대적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
- 이를 위해 지표별 표준점수(Z-score)를 산정하고, 점수에 해당하는 표준 정규분포의 확률변수 값을 지표별 득점으로 부여

표준점수의 산정

$$Z = \frac{X - \bar{X}}{S}$$

- Z : 표준점수
- \bar{X} : 평균

- X : 실적치
- S : 표준편차

-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인 표준점수(Z)를 도출한 다음, 그에 따른 득점은 목표 평균점수를 고려하여 표준점수에 비례하여 부여

□ 등급제 점수산정방식

- 상대적 5등급제 : 분석대상이 소수인 특별·광역시 및 도는 최대값~최소값의 범위를 5등급 구간으로 구분하여 점수 부여

□ 지표값 상하한 설정

- 표준점수(Z-score) 계산 시 특이값(outlier)의 과도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상·하한 값을 설정한 후 재계산
 - 상한 : 평균 + 3σ
 - 하한 : 평균 - 3σ
 - σ :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각 지표의 표준편차

2) 평가 방법

□ 종합점수 산출

- 각 지표별로 100점 만점의 점수 부여
- 종합점수는 각 분석지표 점수에 지표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정
 - 지표별 가중치는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결정

□ 개선도 반영

- 현재 상태와 개선도를 동시에 반영하는 경우, 주지표 대 부지표의 비율은 50% 대 50%로 함
- 자체수입비율(증감률 조합)
 - 자체수입비율 : 50%, 자체수입증감률 : 50%
- 그 외 개선도 반영지표
 - 지방세징수율(제고율)
 -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 종합점수 산출 방법

표준점수 산정방식 (기초자치단체)

(예) 해당 자치단체 통합재정수지비율 지표=9.78%, 유형평균=7.24%, 표준편차=7.17%

- (1) 지표값과 평균,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인 표준점수(z-score)를 도출한 다음, 그에 따른 득점을 목표 평균점수를 고려하여 표준점수에 비례하여 부여
 - 표준점수 = (지표값-평균) / 표준편차; $Z = (7.24-9.78) / 7.17=0.56$
 - 목표 평균점수가 75점이고 목표 최대점수는 95점으로 함
 - Z값이 가장 작을 경우 0, 가장 클 경우가 40이므로 점수 산정방식은 75점 + (5 X Z-score) 가 됨
- (2)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해당단체의 통합재정수지비율 상대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총계 점수의 경우 재정분석이 정량지표 15개 세부지표로 구성되므로 총점은 1500점이 됨)을 기준으로 77.82점 = (75 + (5X0.56)) 이 됨
- (3) 이를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통합재정수지비율은 12%의 가중치를 갖고 있으므로 통합재정수지비율의 변환점수 만점은 120점이 됨
 - 해당 단체 종합점수 만점 기준과 통합재정수지비율 변환점수 120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해당단체의 통합재정수지비율 변환점수는 93.38점이 됨
 - $100 : 77.82 = 120 : 93.38$
- (4) 위와 같은 방식으로 각 지표별 점수를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Z-score를 활용하여 산출한 후, 지표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점수를 산출한 후, 점수를 더하여 종합점수를 산정함

등급제 산정방식 (광역자치단체)

- 등급제 점수 방식은 분석대상이 소수인 특별·광역시, 도에 적용하는 것으로 최대값~최소값의 범위를 5등급으로 구분하여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

(예) 해당 자치단체 통합재정수지비율 지표=2.74%, 최대값=6.28%, 최소값= -2.64%

- (1) 최대값과 최소값의 범위를 5등급으로 구분할 경우 해당단체의 통합재정수지비율 2.47%는 3등급(75점)이 부여
 - 1등급(95점), 2등급(85점), 3등급(75점), 4등급(65점), 5등급(55점)
- (2)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해당단체의 통합재정수지비율 상대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총계 점수의 경우 재정분석이 정량지표 15개 세부지표로 구성되므로 총점은 1500점이 됨)을 기준으로 75점이 됨
- (3) 이를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통합재정수지비율은 12%의 가중치를 갖고 있으므로 통합재정수지비율의 변환점수 만점은 120점이 됨
 - 해당 단체 종합점수 만점 기준과 통합재정수지비율 변환점수 120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해당단체의 통합재정수지비율 변환점수는 90점이 됨
 - $100 : 75 = 120 : 90$
- (4) 위와 같은 방식으로 각 지표별 점수를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등급제 점수를 활용 산출한 후, 지표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점수를 산출한 후, 점수를 더하여 종합점수를 산정함

□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지표별 가중치

1차 분류	2차 분류	재정분석지표	'19년	평가 분야	비고	
재정 건전성 (500점)	수지 관리 (20%)	통합재정수지비율	12%			
		경상수지비율	8%			
	채무 관리 (20%)	관리채무비율	15%			
		통합유동부채비율	5%			
	공기업 관리 (10%)	공기업부채비율	5%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5%			
재정 효율성 (500점)	세입 관리 (30%)	자체수입비율(증감률)	8%	비율:증감률 5:5	지표통합	
		(지방세수입)	(5%)			
		(세외수입)	(3%)			
	징수 관리	지방세징수율(제고율)	6%	비율:제고율 5:5	지표통합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16%	비율:증감률 5:5		
		(지방세체납) (세외수입체납)	(9%) (7%)			
	세출 효율 (20%)	외부 지원 관리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8%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사회단체보조 제외 비율:증감률 5:5	FY2019 일자리창출관련 보조금 평가 제외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4%	비율:증감률 5:5	FY2019 일자리창출 정성지표 추가
		내부 경비 관리	지방의회경비절감률	4%		기준액 산식 변경
			업무추진비절감률	4%		기준액 산식 변경
재정 책임성	재정법령 준수	재정법령위반 (6개)		총점	총점에서 감점 (FY2018부터 감사주기, 법령 위반 특성 등 검토를 통해 결정)	
		재난관리기금전출금 확보	-5점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보	-5점			
		지방재정법 위반	-2점*건수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2점*건수			
		지방계약법 위반	-2점*건수			
		지방회계법 위반	-2점*건수			
15개	1,000점	※ 재정책임성 분야는 총점에서 감점				

□ 재정분석 등급 산정 방식

광역자치단체 (특별·광역시, 도)

- 위에서 설명한 산출방식에 따라 점수를 산출한 후, 점수를 더하여 종합점수를 산정함
-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가 등급, 나 등급, 다 등급을 부여

구분	계	가 등급	나 등급	다 등급
특별·광역시	8	2	4	2
도	9	2	5	2

기초자치단체(시, 군, 자치구) 유형별

- 위에서 설명한 산출방식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유형별로 점수를 산출한 후, 점수를 더하여 종합점수를 산정함
-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가 등급, 나 등급, 다 등급, 라 등급, 마 등급을 부여

구분	계	가 등급	나 등급	다 등급	라 등급	마 등급	
시	시-Ⅰ	15	2	3	5	3	2
	시-Ⅱ	21	2	4	9	4	2
	시-Ⅲ	19	2	4	7	4	2
	시-Ⅳ	20	2	4	8	4	2
군	군-Ⅰ	21	2	4	9	4	2
	군-Ⅱ	20	2	4	8	4	2
	군-Ⅲ	20	2	4	8	4	2
	군-Ⅳ	21	2	4	9	4	2
자치구	서울-Ⅰ	13	2	2	5	2	2
	서울-Ⅱ	12	2	2	4	2	2
	광역시-Ⅰ	22	2	5	8	5	2
	광역시-Ⅱ	22	2	5	8	5	2

1) 제1단계 : 서면분석

- 지방재정분석지표 14개(재정건전성 : 6개, 재정효율성 : 7개, 재정책임성 : 1개) 및 참고지표 18개에 대한 재정통계데이터를 수집하여 1차 서면분석 실시
 - 1단계 서면분석에서는 건전성·효율성·책임성 분야 지표에 대해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지표값을 확정하고 지표별로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평균(전국평균, 유형별 평균), 사분위수, 최소값, 최대값 등 기초통계량을 분석

2) 제2단계 : 현지점검

- 1차 서면분석 결과자료와 현지점검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별 사전조사보고서를 분석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현지점검 실시
 - 현지점검에서는 지표데이터의 오류 검증과 확인, 재정운영 실적 확인, 지표·분야별 문제요인과 우수사례 등을 조사하는데 중점 부여

3) 제3단계 : 재정분석 결과보고서 작성

- 현지점검에서 나타난 지표데이터의 미작성 및 오류를 수정한 데이터 분석 결과와 현지점검 결과를 토대로 재정분석 결과보고서를 작성 (재정분석결과보고서는 종합보고서, 단체별보고서, 재정분석 통계자료로 구분)
 - 종합보고서: 지표별 경향분석과 분석총괄, 발전방향 등을 포괄적으로 기술
 - 단체별보고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분석 분야별 실적, 우수 및 부진 재정지표, 개선방안 제시
 - 재정분석 통계자료: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분석지표,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지표, 재정분석 지표별 기초자료 등을 제시

4) 제4단계 : 재정분석 결과 활용

- 재정분석 결과에 대한 정보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하여 합리적 재정운영을 유인하는 것으로서 재정분석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
 -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관련 국가정책과 지방재정정책의 판단지원 및 전반적인 제도개선에 활용
 - 지방자치단체는 분야별 실적과 우수·부진지표 등을 통해 재정진단과 향후 재정운용 방향 수립에 활용

II. 2019년 지방재정분석 결과

1. 총평	017
가. 분야별 결과	017
나. 2019년(FY2018) 지방재정분석 결과	020
2. 분야별 분석 결과	021
가. 재정건전성	021
나. 재정효율성	026
다. 재정책임성	032
3. 지표별 분석 결과	033
가. 재정건전성	033
나. 재정효율성	057
4. 자치단체 유형별 분석 결과	107
가. 접근 방향	107
나. 자치단체 유형구분	107
다. 기초자치단체 유형별 지표분석 결과	116

1. 총평

“ ‘18회계연도에 대한 2019년 재정분석 결과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채무관리와 지출개선 노력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

- 재정수지의 경우 전년대비 다소 부진한 실적을 보였으나, 지난 5년 간 추세를 볼 때 건전재정을 유지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기반인 자체수입(지방세, 세외수입) 관련 지표가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대응이 필요
 - 재정건전성과 재정효율성을 측정하는 정량지표 22개 지표(재정건전성 6개 지표 + 재정효율성 세부 지표 및 증감률 지표 16개 지표) 중에서 전년 대비 추이 분석결과 13개는 개선, 8개가 부진, 신규지표 1개임 (‘17회계연도 개선 20개, 부진 7개)
 - 재정효율성 16개 지표에는 세부지표와 전년대비 증감을 측정하는 증감률 지표(각 50% 반영)가 포함
 - 2019년 재정분석은 2018회계연도 결산자료를 활용하며, 이하 연도는 모두 회계연도를 의미

가. 분야별 결과

■ 재정건전성

- 최근 3년(‘16년~‘18년) 연속으로 채무 및 부채 측면에서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통합재정수지비율이 다소 부진한 실적을 보임

재정수지

- 자치단체 수입액 증가대비 상대적으로 큰 지출액의 증가로 인한 통합재정수지 규모의 감소
 - 통합재정수지비율: ‘16년 5.52% → ‘17년 5.03% → ‘18년 3.55%
 - 통합재정수지규모가 감소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수입(순세계잉여금 제외)이 ‘16년 249.0조(6.6% ↑)→‘17년 266.2조(6.4% ↑)→‘18년 280.7조(5.4% ↑)로 증가한 반면, 지출의 경우 ‘16년 236.0조(6.8% ↑)→‘17년 253.4조(6.4% ↑)→‘18년 271.1조(6.9% ↑)로 증가하여, 수입 증가 대비 지출의 증가가 컸기 때문
- 경상수지의 경우 인건비 증가로 인한 경상비용의 증가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지난 5년 간 추이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양호
 - 경상수지비율 : ‘16년 68.14% → ‘17년 67.09% → ‘18년 67.58%

채무 및 부채관리

- 자치단체의 꾸준한 채무 감축 노력의 결과로 관리채무비율이 꾸준히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건전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 관리채무비율 : '16년 9.33% → '17년 8.04% → '18년 7.35%
- 통합유동부채의 경우 전년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치단체와 지방공사·공단의 부채규모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인 반면 출자·출연기관의 부채가 전년대비 다소 증가하였기 때문임

- ❶ 통합재정수지의 지속적 흑자 유지를 위해 세입확충과 비용절감 노력을 지속하고, 통합재정수지가 감소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적극집행 및 정확한 세입추계 등을 통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운영의 효율화 필요
- ❷ 건전한 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꾸준한 채무 및 부채관리가 필요할 것이며, 통합부채 중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의 부채 관리를 위해 면밀한 계획적 관리가 필요

재정효율성

- 지방보조금 등 외부지원 및 업무추진비 등 내부경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세출분야 효율성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적극적인 징수관리에도 불구하고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실적이 전년대비 부진하여 지방재정의 수입기반이 전반적으로 악화된 실적을 보임

세입관리

- 세입관리 지표 중 체납액관리비율을 포함한 징수관리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어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자체수입비율 및 증감률(지방세, 세외수입) 지표가 다소 부진함. 특히, 세외수입증감률의 경우 -1.20%로 세외수입 규모가 감소하여 개선이 필요함
 - 체납액증감률_지방세: '16년 2.45% → '17년 -2.41% → '18년 -5.44%
 - 자체수입증감률_지방세: '16년 5.59% → '17년 7.16% → '18년 5.43%

세출관리

- 출자출연전출금 증감률이 다소 완화되고 지방의회경비절감률과 업무추진비절감률이 개선되어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지방보조금이 전년대비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16년 10.10% → '17년 6.31% → '18년 4.28%
 - 업무추진비절감률: '16년 20.28% → '17년 19.65% → '18년 22.61%
 - 지방보조금증감률: '16년 3.71% → '17년 -10.62% → '18년 3.07%

- ① 세입실적의 개선을 통한 효율적 세입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징수하는 등의 징수관리 노력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
- ② 신규 지출(출자출연전출금, 지방보조금) 결정 시 향후 재정부담 등을 면밀히 검토 한 후 집행하는 등 효율적 외부경비지원에 대한 관리가 필요

나. 2019년(FY2018) 지방재정분석 결과

△(상향지표), ▼(하향지표)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년대비	지표2) 성격	
재정건전성	- 통합재정수지비율	2.19%	3.88%	5.73%	5.52%	5.03%	3.55%	부진	△	
	- 경상수지비율	71.51%	69.76%	68.34%	68.14%	67.09%	67.58%	부진	▼	
	- 관리채무비율	13.32%	12.59%	10.98%	9.33%	8.06%	7.35%	개선	▼	
	- 통합유동부채비율			27.97%	26.10%	23.01%	23.26%	부진	▼	
	- 공기업무채비율	74.09%	70.93%	65.07%	57.93%	41.58%	37.26%	개선	▼	
	-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0.60%	-0.82%	1.85%	-0.59%	-0.68%	-0.92%	부진	△	
재정 효율성	세입 관리	- 자체수입비율(지방세)			28.65%	26.32%	26.23%	25.90%	부진	△
		- 자체수입증감률(지방세)				5.59%	7.16%	5.43%	부진	△
		- 자체수입비율(세외수입)					4.62%	4.28%	부진	△
		- 자체수입증감률(세외수입)						-1.20%	-	△
	징수 관리	- 지방세징수율	96.80%	97.16%	97.22%	97.30%	97.69%	97.80%	개선	△
		- 지방세징수율제고율	1.0049	1.0037	0.9992	0.9997	1.0027	1.0007	개선3)	△
		- 체납액관리비율(지방세)		2.11%	1.99%	1.87%	1.70%	1.51%	개선	▽
		- 체납액증감률(지방세)		2.94%	4.61%	2.45%	-2.41%	-5.44%	개선	▼
		- 체납액관리비율(세외수입)		1.54%	1.40%	1.23%	1.11%	0.99%	개선	▼
		- 체납액증감률(세외수입)		-1.06%	0.98%	-4.34%	-2.76%	-5.41%	개선	▼
	외부 지원 관리	- 지방보조금비율			7.86%	7.55%	6.31%	6.14%	개선	▼
		- 지방보조금증감률			0.29%	3.71%	-10.62%	3.07%	부진	▼
		- 출자출연전출금비율	2.66%	2.41%	2.65%	2.48%	2.52%	2.48%	개선	▼
		-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8.94%	-7.46%	19.34%	0.64%	10.10%	4.28%	개선	▼
내부 경비 관리	- 지방의회경비 절감률	11.74%	12.38%	8.27%	8.24%	8.67%	19.10%	개선	△	
	- 업무추진비 절감률	20.74%	21.05%	19.00%	20.28%	19.65%	22.61%	개선	△	

- 주 1. 지표별 추이는 최근 5년을 기본으로 하되, 결과값 유무에 따라 2년,3년,4년 추이를 사용
 2. 상향지표 △는 지표의 값이 높을수록 양호하며, 하향지표 ▼는 지표의 값이 낮을수록 양호함
 3. 지방세징수율제고율은 1 이상일 경우 개선
 4. 2013,2014,2015,2016,2017,2018은 회계연도를 의미
 5. 세입관리, 징수관리 지표 중 자체수입비율(증감률),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산정방식 변경

2. 분야별 분석 결과

가. 재정건전성

□ (재정건전성) 6개 지표(재정수지 2, 채무 및 부채 2, 공기업 2)

재정건전성 주요 결과

- 최근 3년(2016년~2018년) 채무 및 부채지표의 효율적 관리로 재정건전성이 개선되었으나 통합재정수지비율 지표에서 다소 부진
 - (통합재정수지비율) 자체단체 수입액 증가대비 상대적으로 큰 지출액의 증가로 인하여 통합재정수지규모가 감소하여 하락
 - (경상수지비율) 인건비 등 경상비용의 증가로 인하여 경상수지비율이 전년대비 상승

△(상향지표), ▼(하향지표)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년대비	지표 성격	
재정건전성	- 통합재정수지비율	2.19%	3.88%	5.73%	5.52%	5.03%	3.55%	부진	△
	- 경상수지비율	71.51%	69.76%	68.34%	68.14%	67.09%	67.58%	부진	▼
	- 관리채무비율	13.32%	12.59%	10.98%	9.33%	8.06%	7.35%	개선	▼
	- 통합유동부채비율			27.97%	26.10%	23.01%	23.26%	부진	▼
	- 공기업부채비율	74.09%	70.93%	65.07%	57.93%	41.58%	37.26%	개선	▼
	-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0.60%	-0.82%	1.85%	-0.59%	-0.68%	-0.92%	부진	△

| 통합재정수지비율 |

□ 통합재정수지비율의 경우 최근 3년('16년~'18년) 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구 분	2016	2017	2018
통합재정수지비율	5.52%	5.03%	3.55%



통합재정수지비율 하락 사유

-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수입(통합재정수입)의 경우 `16년 249.0조(6.6% ↑) → `17년 266.2조(6.4% ↑) → `18년 280.7조(5.4% ↑)로 증가한 반면, 지출의 경우 `16년 236.0조(6.8% ↑) → `17년 253.4조(6.4% ↑) → `18년 271.1조(6.9% ↑)로 증가하여, 수입 증가 대비 지출의 증가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수입의 경우 지방세수입 `17년 82조 → `18년 86조 (4.67% ↑), 경상세외수입 `17년 15조 → `18년 16조(6.2% ↑), 지방교부세수입 `17년 44조 → `18년 49조(10.5% ↑)의 증가를 보임
 - 지출의 경우 전년대비 경상비용의 증가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인건비 `17년 29조 → `18년 32조(7.2% ↑), 운영비 `17년 50조 → `18년 55조(8.14% ↑)의 증가를 보임
 - 인건비 증가의 주된 요인은 사회복지직 공무원 증원에 따른 공무원 수 증가와 계약직의 정규직화에 따른 공무직 증가인 것으로 파악
 - 운영비의 경우 주민편의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위탁대행사업비와 수선유지관리비의 증가가 주요 요인인 것으로 파악
 - 이외 생활SOC 관련 시설 건립과정에서의 설계, 부지매입 비용 등의 자본지출 증가 역시 지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
- 총수입(순세계잉여금 포함)의 경우 `16년 275조(8.4% ↑) → `17년 298조(6.4% ↑) → `18년 313조(4.8% ↑)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통합재정수지(수입-지출)의 경우 `16년 12.6조(2.9% ↑) → `17년 13조(6.4% ↑) → `18년 9.6조(24.5% ↓)로 나타나, 지출 증가로 인한 통합재정수지 규모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음
 - 총수입에는 포함되나 통합재정수지비율 산정 시 통합재정수입에 포함되지 않는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17년 32.5조에서 `18년 32.4조(↓0.18%)로 나타남

통합재정수지 전년대비 최대 감소 단체

- (광역) 충남 `17년 6,925억→`18년 -303억(7,228억↓), 인천 `17년 1조8억→`18년 4,096억(5,987억↓)
- (시) 안산시 `17년 2,628억→`18년 -83억(2,711억↓), 수원시 `17년 2,442억→`18년 -130억(2,572억↓)
- (군) 군위군 `17년 616억→`18년 -66억(683억↓), 영월군 `17년 857억→`18년 182억(674억↓)
- (자치구) 서울강서구 `17년 700억→`18년 -58억(758억↓), 인천중구 `17년 172억→`18년 -108억(280억↓)

통합재정수지 현황

구분	통합재정수입	통합재정지출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비율
2017	266.2조	253.5조	12.7조	253.5조	5.03%
2018	280.7조	271.1조	9.6조	271.1조	3.55%

구분		2017 통합재정수지	2018 통합재정수지	감소액
광역시	인천분청	1조 8억	4,096억	5,987억 ↓
	충남분청	6,925억	-303억	7,228억 ↓
시	경기 안산시	2,628억	-83억	2,711억 ↓
	경기 수원시	2,442억	-130억	2,572억 ↓
군	경북 군위군	616억	-66억	683억 ↓
	강원 영월군	857억	182억	674억 ↓
자치구	서울 강서구	700억	-58억	758억 ↓
	인천 중구	172억	-108억	280억 ↓

- 2018회계연도 통합재정수지비율 적자단체는 특별·광역시 2개, 도 5개, 시 5개, 군 11개, 자치구 4개임

통합재정수지 적자 단체	
· (광역시)	세종-4.55%, 울산-6.84%, 전남-0.14%, 충남-0.53%, 경북-2.73%, 경남-4.81%, 제주-3.69%
· (시)	시흥-10.97%, 김천-3.25%, 군포-2.42%, 안산-0.56%, 수원-0.55%
· (군)	하동-8.97%, 울진 -6.29%, 영광-3.59%, 가평-3.25%, 평창-3.11%, 군위-2.17%, 고령-2.12%, 달성-1.44%, 철원-0.81%, 예천-0.56%, 장성-0.14%
· (자치구)	울산북구-4.36%, 인천중구-3.33%, 인천미추홀구-2.14%, 서울강서구-0.72%

개선방안

- 통합재정수지의 흑자기조 유지를 위해 지방세수입확충을 비롯한 세입확충 노력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할 것임
 - 특히, 수입 증가 대비 상대적으로 큰 지출 증가로 인하여 통합재정수지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효율적 재정운영을 통한 비용절감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임
- 이와 더불어, 총수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통합재정수지가 감소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어 적극집행 및 정확한 세수추계 등을 통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효율적 예산운영 역시 필요할 것임

| 경상수지비율 |

- '13년에서 '17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 추이를 보이던 경상수지비율이 '18년에 전년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치단체의 경상수익의 증가 대비 상대적으로 큰 경상비용의 증가가 원인인 것으로 파악됨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경상수지비율	71.51%	69.76%	68.34%	68.14%	67.09%	67.58%



경상수지비율 상승 사유

- 경상수익의 경우 '17년 156.4조 규모에서 '18년 165.8조 규모로 6.02% 증가한 반면, 경상비용의 경우 '17년 104.9조 규모에서 '18년 112.1조 규모로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경상수지비율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는 경상수익 중 지방세수익이 4.67%, 경상세외수익이 6.26% 증가한 반면, 경상비용에서는 인건비가 7.29%, 운영비가 8.14% 증가하여 경상비용에서 인건비와 운영비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이 전체적으로 경상수지비율이 소폭 증가한 원인으로 파악됨

구 분		2017	2018	증감률
경상수익	합계	156.4조	165.8조	6.02%
	지방세수익	82.2조	86.0조	4.67%
	경상세외수익	15.7조	16.7조	6.26%
	지방교부세수익	44.3조	49.0조	10.57%
경상비용	합계	104.9조	112.1조	6.80%
	인건비	29.6조	31.7조	7.29%
	운영비	50.8조	55.0조	8.14%

경상수지 현황

- '18년 경상수지비율이 100%가 넘어 경상수익으로 경상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는 22개임(군 2개: 옹진군, 하동군; 자치구 20개)

경상수지비율 100% 초과단체	
▪ (군) 옹진군	107.24%, 하동군 113.12%
▪ (자치구)	부산 사하구 155.01%, 울산 동구 134.38%, 부산 남구 132.68%, 부산 사상구 131.16%
	울산 북구 129.07%, 부산 영도구 118.95%, 울산 중구 117.93%, 광주 서구 116.16%
	광주 북구 115.04%, 부산 중구 112.83%, 광주 남구 111.91%, 부산 부산진구 111.07%
	대구 북구 110.93%, 부산 강서구 109.81%, 부산 연제구 108.51%, 부산 서구 108.21%
	부산 동구 104.60%, 대전 대덕구 104.30%, 부산 북구 102.41%, 대구 동구 100.59%

개선방안

-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총원, 무기계약직 전환 증가로 인한 인건비 증가 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인건비 측면에서의 지출 증가가 수반되고 있어, 인건비 이외 자치단체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 자치단체 운영비 감축, 불필요한 경상사업 축소 등 노력이 필요할 것임
- 동시에 경상수익 확대를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노력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임

나. 재정효율성

□ (재정효율성) 7개 지표(세입 3, 세출 4)

재정효율성 주요 결과

- 세입효율성 및 세출효율성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세입효율성 중 세입관리와 세출효율성 중 외부지원관리(지방보조금증감률)가 다소 부진
 - (세입) 징수관리 관련 체납액관리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어 전년대비 양호한 실적을 보이는 가운데, 세입관리 관련 자체수입증감률_지방세(7.16% → 5.43%)가 전년대비 다소 부진
 - (세출) 불필요한 지출의 억제 및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절감된 경비지출 계획을 수립하는 등 내부경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의 지속적 추진과 지출 절감 노력으로 지방의회경비, 업무추진비 등에서 기준액 대비 절감하여 집행함으로써 양호한 실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지방보조금이 전년대비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외부지원관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임(지방보조금증감률: -10.62% → 3.07%)

△(상향지표), ▼(하향지표)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년대비	지표 성격	
재정 효율성	세입 관리	- 자체수입비율(지방세)		28.65%	26.32%	26.23%	25.90%	부진	△	
		- 자체수입증감률(지방세)				5.59%	7.16%	5.43%	부진	△
		- 자체수입비율(세외수입)					4.62%	4.28%	부진	△
		- 자체수입증감률(세외수입)						-1.20%	-	△
	징수 관리	- 지방세징수율	96.80%	97.16%	97.22%	97.30%	97.69%	97.80%	개선	△
		- 지방세징수율제고율	1.0049	1.0037	0.9992	0.9997	1.0027	1.0007	개선	△
		- 체납액관리비율(지방세)		2.11%	1.99%	1.87%	1.70%	1.51%	개선	▼
		- 체납액증감률(지방세)		2.94%	4.61%	2.45%	-2.41%	-5.44%	개선	▼
		- 체납액관리비율(세외수입)		1.54%	1.40%	1.23%	1.11%	0.99%	개선	▼
		- 체납액증감률(세외수입)		-1.06%	0.98%	-4.34%	-2.76%	-5.41%	개선	▼
	외부 지원 관리	- 지방보조금비율			7.86%	7.55%	6.31%	6.14%	개선	▼
		- 지방보조금증감률			0.29%	3.71%	-10.62%	3.07%	부진	▼
		- 출자출연전출금비율	2.66%	2.41%	2.65%	2.48%	2.52%	2.48%	개선	▼
		-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8.94%	-7.46%	19.34%	0.64%	10.10%	4.28%	개선	▼
	내부 경비 관리	- 지방의회경비 절감률	11.74%	12.38%	8.27%	8.24%	8.67%	19.10%	개선	△
		- 업무추진비 절감률	20.74%	21.05%	19.00%	20.28%	19.65%	22.61%	개선	△

세입효율성

| 자체수입비율_지방세 |

- '15년 이후 지속되었던 꾸준한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국세 실적 개선의 영향으로 지방세 규모는 '15년 71.0조→'16년 75.5조→'17년 80.4조→'18년 84.3조(지방세연감 기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년대비 증감을 의미하는 자체수입증감률_지방세가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구 분	2015	2016	2017	2018
자체수입 지방세※	65.7조	69.3조	74.3조	78.3조
자체수입증감률_지방세	-	5.59%	7.16%	5.43%
지방세규모(조원)_지방세연감	71.0조	75.5조	80.4조	84.3조

※재정분석 자체수입_지방세는 지방교육세, 과년도수입을 제외하여 산정하므로 지방세연감자료와 수치가 다름



지방세수입증감 둔화 세목

- 지방세수입의 경우 '15년 71.0조→'16년 75.5조→'17년 80.4조→'18년 84.3조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년대비 증감률이 다소 부진한 이유는 지방세수 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취득세(↓6.84%p), 지방소비세(↓11.04%p) 등 세목에서 전년대비 증감률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담배소비세 감소) '16년 담배소비세 인상의 영향으로 담배소비세 감소('15년 3.0조 → '16년 3.7조 → '17년 3.6조 → '18년 3.4조)
- (주민세 인상폭 둔화) '15년 종업원분 주민세에 대한 면세 정비, 균등할 주민세 일제인상으로 '16년에 최대치 인상이후 인상폭 둔화('15년 1.5조 → '16년 1.8조 → '17년 1.9조 → '18년 1.99조)

개선방안

- 꾸준한 지방세수입 증가 추이의 지속을 위해 신 세원 발굴과 면세 및 감면에 대한 정비와 함께 체납관리 강화를 위해 우수단체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노력이 필요할 것임

지방세징수노력 우수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납부 안내와 홍보 강화 및 납세편의 제고 등을 통한 지방세징수실적 개선 ▪ 징수목표 사전 수립 및 납부홍보 등 체납액 일제정리의 적극적 추진과 체납액의 실질적 징수를 위한 압류 및 영치 등의 강행규정을 적극 활용 ▪ 지방세징수 특별대책반 운영, 정기보고회 등을 통하여 지방세수입 목표 달성을 체계적으로 관리

| 체납액관리 |

- 체납액관리비율_지방세의 경우 전국평균 1.51%로 전년 1.70% 대비 하락하여 양호한 실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납액관리비율_세외수입도 전국평균 0.99%로 전년 1.11% 대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체납액 추이

- 지방세체납액: '15년 4.2조 → '16년 4.1조 → '17년 4.0조 → '18년 3.6조(불납결손 제외)
 - 불납결손액을 포함할 경우 지방세체납액 '17년 4.8조 → '18년 4.5조
- 세외수입체납액(일반회계): '15년 3.09조 → '16년 2.94조 → '17년 2.87조 → '18년 2.7조(불납결손 제외)
 - 불납결손액을 포함할 경우 세외수입체납액 '17년 3.1조 → '18년 2.9조



개선방안

- 양호한 체납액관리실적의 유지를 위해 체납관리 강화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등 체납관리를 위한 체계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

체납액 관리 우수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독려를 위한 안내문 및 고시서 발송, 체납 일제정리기간 운영, 현장방문 납부 독려 ▪ 체납정리단 구성 및 운영, 성과별, 읍면동 책임분담제 추진 ▪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부동산 압류 및 공매 등의 조치와 함께 적극적인 결손처분 시행

■ 세출효율성

|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

- 지방보조금의 경우 전국평균은 6.14%로 전년 6.31%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년 -10.62%로 감소추이를 보였던 지방보조금증감률은 3.07%로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지방보조금비율	8.54%	7.86%	7.55%	6.31%	6.14%
지방보조금증감률	6.09%	0.29%	3.71%	-10.62%	3.07%

- 지방보조금비율



- 지방보조금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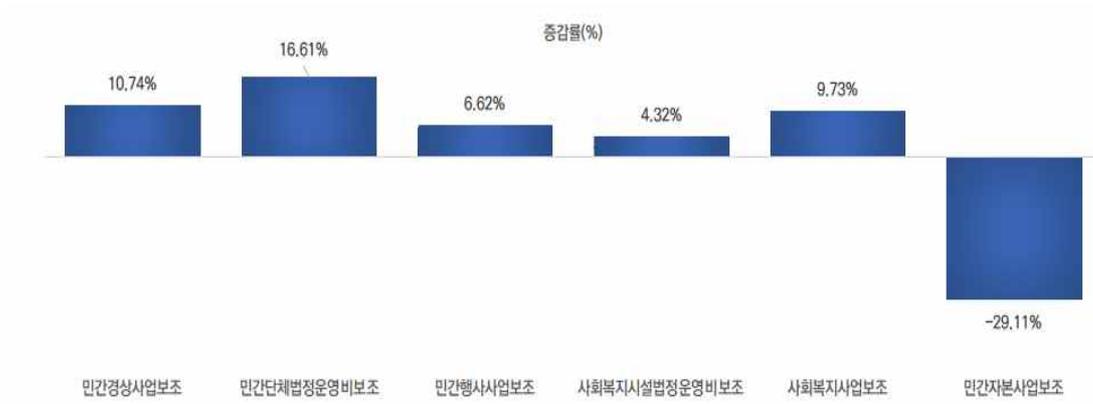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 2018년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컸던 것이 지방보조금이 증가한 주된 사유인 것으로 파악됨

(백만원, %)

구 분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2017	3,361,495	363,151	627,004	5,297,572	4,829,412	2,226,311
2018	3,722,498	423,455	668,537	5,526,293	5,299,322	1,578,304
증감률(%)	10.74%	16.61%	6.62%	4.32%	9.73%	-29.11%



지방보조금 증가사유

- 아동지원, 육아지원 등 저출산 대책을 위한 보조금과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환경 관련 보조금 증가로 인한 보조금 지출 증가가 주요 원인
- (저출산 시책) 아이행복도우미지원, 야간 소아응급환자 진료 지원 등 저출산 대책
- (환경보호) 노후운행 경유차 폐차지원

개선방안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운영을 통해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중복 또는 성과가 불확실한 보조사업을 축소 또는 정리하는 등 지방보조금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
- (방안)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토와 사후성과평가의 강화, 예산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지방보조금을 통제하고 일괄삭감하거나 보조사업을 직접수행하게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보조금 편성을 억제

| 지방의회경비절감률 |

- 지방의회경비절감률의 경우 '17년 8.67% 대비 '18년 19.10% 수준으로 대폭 상승한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지방의회경비절감률	12.38%	8.27%	8.24%	8.67%	19.10%

- 지방의회경비절감률이 전년대비 상승한 것은 지출액의 증가폭이 기준액 대비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 특히, 지방의회경비기준액의 경우 산정방식이 지난 3년간 지방의회경비 예산액 평균 기준으로 변경되어 기준액의 상승폭이 전년에 비해 높게 나타남

(백만원)

구 분	지방의회경비기준액	지방의회경비지출액		
		의원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원운영업무추진비
2017	50,070	8,806 (7,684)	19,873	18,170
2018	62,925	9,294	22,457	19,155

※'17년 지방의회경비지출액 산정 시 “예외대상으로 편성되어 집행된 국외여비”를 제외하여 지표값을 산정하였으나, '18년부터는 예외대상 국외여비를 제외하지 아니하고 지방의회경비지출액을 산정함

※'17년 의원국외여비 지출액의 경우 예외대상으로 편성되어 집행된 국외여비(1,121백만원)를 제외하면 7,684백만원 규모임

지방의회경비 절감 사유

- 지방의회경비 절감을 위해 예산편성 시 유보액을 설정하여 절감하여 편성함은 물론,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경비 절감을 위해 국외연수를 지양하는 등 의회경비절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 (의회경비동결) 의회차원에서 의회경비 동결방침을 정하는 등 적극적인 절감노력을 경주
- (유보액 설정) 기준액 대비 10% 유보액을 설정하여 예산을 편성
- (의원연수자제) 경비절감 차원에서 국외연수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기 편성된 예산도 추경과정에서 전액 삭감

다. 재정책임성

개념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관련 법령 준수를 유도하며, 법령 의무사항 및 미이행 시 감점

산정

- 재난관리기금전출금비율 (법정기준 1%) = $(2018년도\ 적립\ 재난관리기금전출금 / \text{보통세 수입 결산액 } 3\text{년 평균 금액}) \times 100$
- 지역상생발전기금전출금비율 (법정기준 35%) = $(2018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출금 / 2018년도\ 지방소비세\ 실제수납액) \times 100$

| 재난관리기금전출금 확보 |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보통세 수입 결산액 3년 평균 금액의 1%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해야 함
- 재난관리기금전출금 비율이 1%가 되지 않는 경우 감점

재난관리기금전출금 비율 1% 미만 단체 (17개 단체)

- (광역 2개) 서울본청, 세종특별자치시
- (시 8개) 부천, 이천, 의왕, 원주, 충주, 서산, 남원, 김해
- (군 5개) 가평, 인제, 청도, 예천, 경남고성
- (자치구 2개) 서울 노원구, 부산 북구

| 지역상생발전기금전출금 확보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7조의 2에 따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입된 지방소비세액의 100분의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적립해야 함
- 지역상생발전기금전출금 비율이 35%가 되지 않는 경우 감점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모두 지역상생발전기금 비율이 35%를 초과하여 감점 단체 없음

3. 지표별 분석 결과

가. 재정건전성

■ 통합재정수지비율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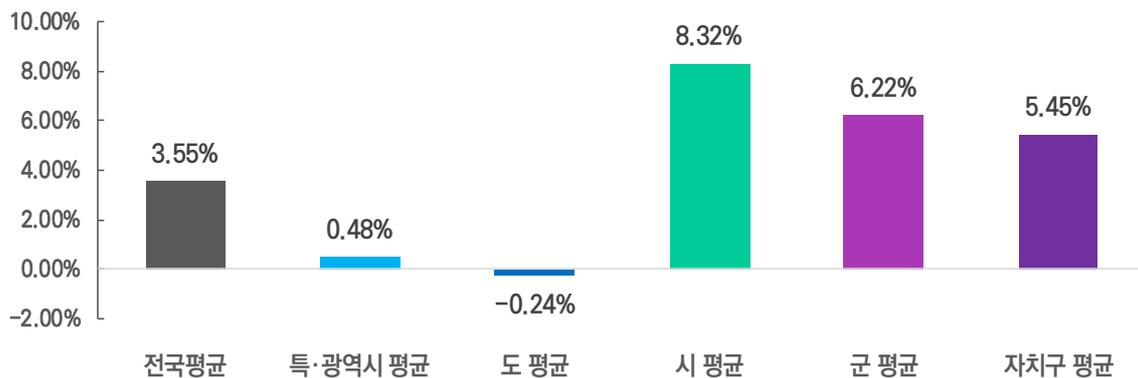
- 통합재정수지비율은 당해 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비교하여 재정활동의 적자 또는 흑자 등 재정운영 수지를 측정하는 지표로 통합재정수지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하다고 판단

산정

- $\text{통합재정수지비율}(\%) = \frac{\{\text{수입} - (\text{지출} + \text{순융자})\}}{(\text{지출} + \text{순융자})} \times 100$
 - 순융자 = (융자지출 - 융자회수)
 - 기초자치단체의 지역개발기금 융자관련 수입 및 상환액은 재무활동(보전수입 및 보전지출)에 해당하므로 통합재정수지 산정에서 제외

| 현황분석 |

전국평균	특·광역시 평균	도 평균
3.55%	0.48%	-0.24%
시 평균	군 평균	자치구 평균
8.32%	6.22%	5.45%



통합재정수지비율 현황

- 통합재정수지비율은 전국최대(39.74%; 경기 과천시), 전국최소(-10.97%; 경기 시흥시)로 나타남
- 통합재정수지비율을 단체유형별로 살펴보면, 시가 8.3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 6.22%, 자치구 5.45%, 특별·광역시 0.48% 순을 보임. 도의 경우 -0.24%로 나타나 통합재정수지에서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광역자치단체인 특별·광역시와 도의 통합재정수지비율이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기초단체 및 지방교육청에 대한 조정교부금 및 교육재정교부금 지출이 상대적으로 컸던 것이 낮은 통합재정수지비율을 기록한 주된 사유인 것으로 파악되며, 공무원 증원 및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증가 역시 지출증가의 원인인 것으로 분석됨

통합재정수지비율 주요 사례

지방세수입의 감소와 인건비 등 지출의 증가

- **(세종특별자치시)** 개발수요 감소, 투기과역지구 지정으로 인한 경기위축 등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여 취득세 수입이 감소한 사례
- **(경기 시흥시)** 사회복지직 충원 및 조직개편에 따른 정규직 공무원의 증가와 계약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공무원의 증가로 인한 인건비 등 지출 증가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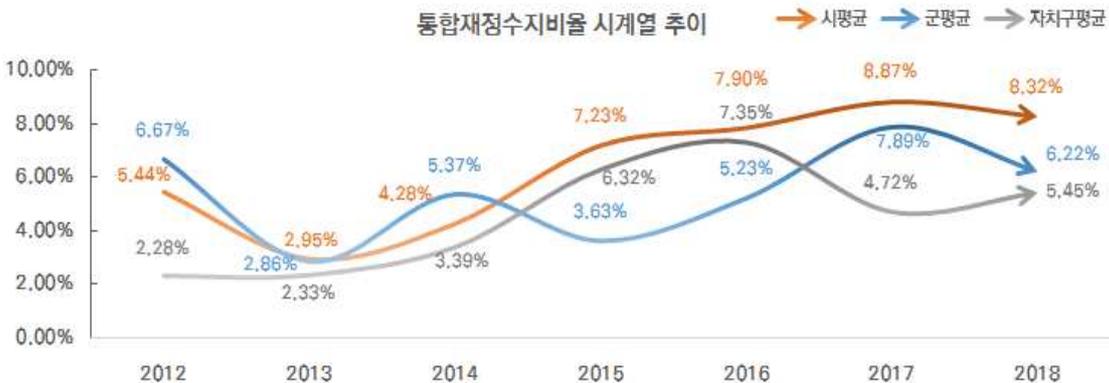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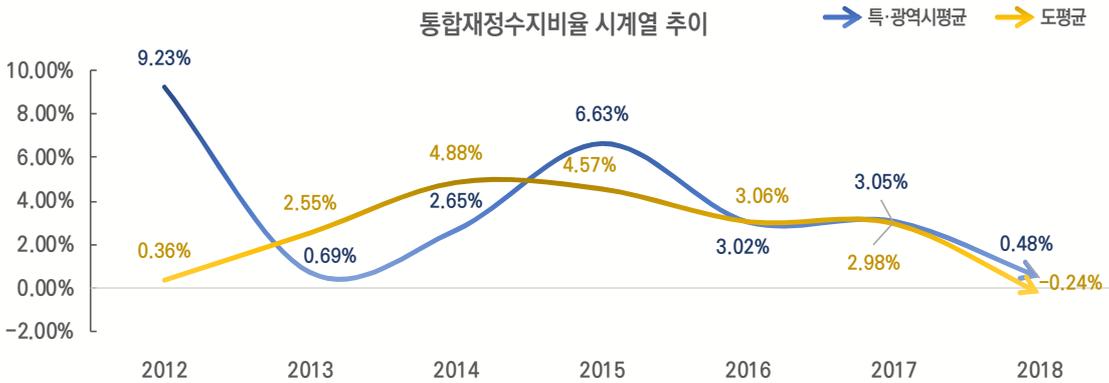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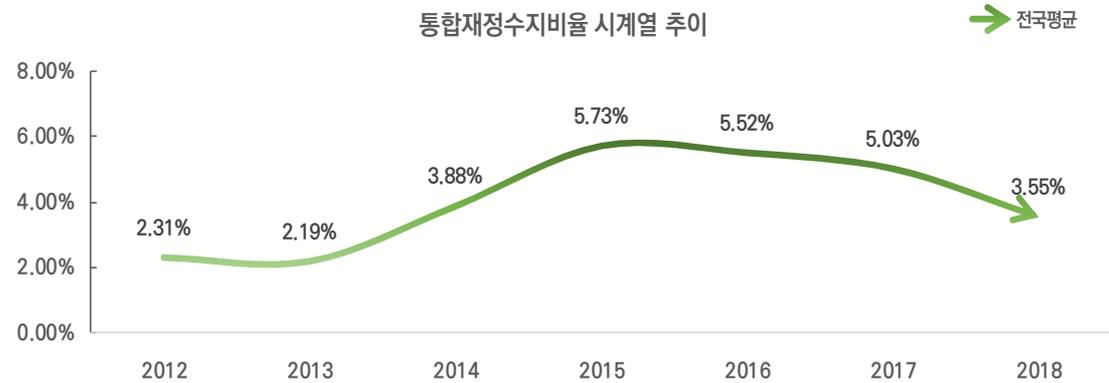
지방교부세수입 감소와 인건비 및 운영비의 증가

- **(경기 안산시)** 보통교부세의 감소로 인한 수입규모의 감소와 일반회계 인건비 및 운영비의 증가로 인한 통합재정수지의 적자 사례
- **(경남 창원시)** 신규직원 채용과 함께 정부시책에 따라 계약직 직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정규직화에 따른 퇴직급여, 맞춤형복지포인트 등의 비용 증가로 인한 지출 증가 사례

| 시계열 추이 분석 |

| 표 | 통합재정수지비율 시계열 추이

재정분석지표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통합재정 수지비율	전국평균	2.31%	2.19%	3.88%	5.73%	5.52%	5.03%	3.55%
	특·광역시평균	9.23%	0.69%	2.65%	6.63%	3.02%	3.05%	0.48%
	도평균	0.36%	2.55%	4.88%	4.57%	3.06%	2.98%	-0.24%
	시평균	5.44%	2.95%	4.28%	7.23%	7.90%	8.87%	8.32%
	군평균	6.67%	2.86%	5.37%	3.63%	5.23%	7.89%	6.22%
	자치구평균	2.28%	2.33%	3.39%	6.32%	7.35%	4.72%	5.45%



통합재정수지비율 시계열 추이

- 통합재정수지비율의 시계열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통합재정수지비율	2.31%	2.19%	3.88%	5.73%	5.52%	5.03%	3.55%
통합재정수지	0.01조	0.01조	23.7조	12.6조	13.0조	12.7조	9.6조

- 2015년 이후 통합재정수지비율이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지방자치단체 수입(순세계잉여금 포함)의 경우 `16년 275조(8.4% ↑)→`17년 298조(6.4% ↑)→`18년 313조(4.8% ↑)로 증가한 반면, 지출은 `16년 236조(6.8% ↑)→`17년 253조(6.4% ↑)→`18년 271조(6.9% ↑)로 증가하여, 수입 증가 대비 지출의 증가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입의 경우 `16년 249조(6.6% ↑)→`17년 266조(6.4% ↑)→`18년 280조(5.4% ↑)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통합재정수지(수입-지출)의 경우 `16년 12.6조(2.9% ↑)→`17년 13조(6.4% ↑)→`18년 9.6조(24.5% ↓)로 나타나, 지출 증가로 인한 통합재정수지 규모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음
- 수입에는 포함되나 통합재정수지비율 산정 시 통합재정수입에 포함되지 않는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17년 32.5조에서 `18년 32.4조로 0.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구분	수입	증감률	통합재정수입	증감률	통합재정지출	증감률
2014	228조	6.05%	212조	5.47%	205조	4.06%
2015	254조	11.40%	234조	10.38%	220조	7.32%
2016	275조	8.43%	249조	6.63%	236조	6.84%
2017	298조	6.45%	266조	6.45%	253조	6.45%
2018	313조	4.86%	280조	5.47%	271조	6.98%

개선방안

- 통합재정수지의 흑자기조 유지를 위해 지방세수입확충을 비롯한 세입확충 노력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할 것임
- 특히, 수입 증가 대비 상대적으로 큰 지출 증가로 인하여 통합재정수지구모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효율적 재정운동을 통한 비용절감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임
- 이와 더불어 수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통합재정수지가 감소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적극집행 및 정확한 세수추계 등을 통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효율적 재정운영 역시 필요할 것임

경상수지비율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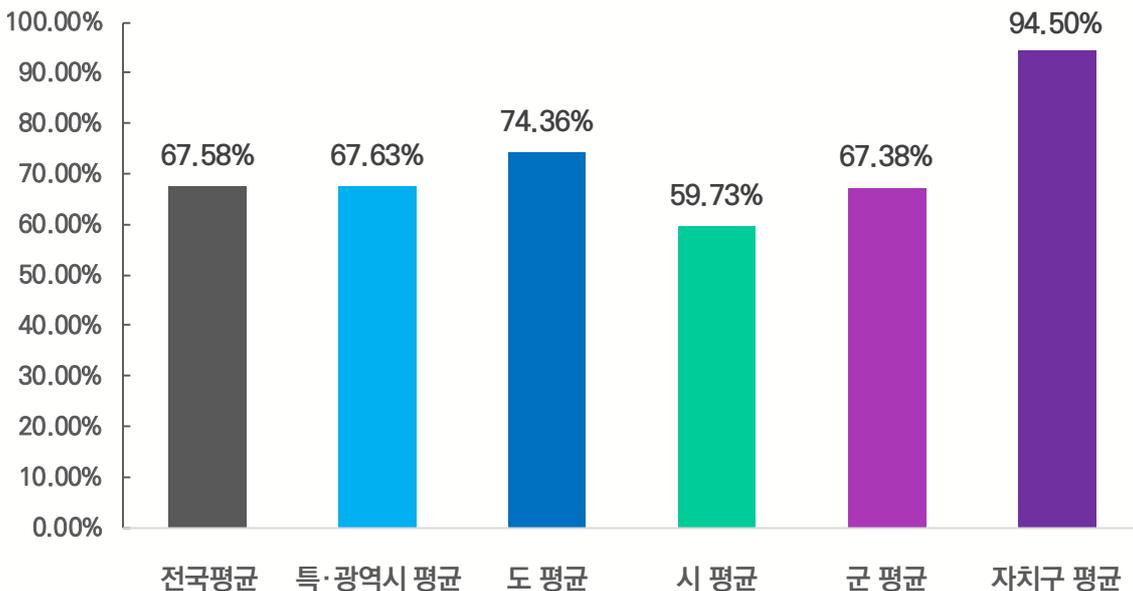
- 경상수지비율은 복식부기 재정운영표의 경상수익 대비 경상비용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경상수익으로 경상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워 건전성이 낮다고 판단

산정

- 경상수지비율(%) = (경상비용 / 경상수익) × 100
 - 경상비용 : 인건비+운영비+자치구조정교부금+시군조정교부금+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 경상수익 : 지방세수익+경상세외수익+지방교부세+자치구조정교부금수익+시군조정교부금수익

| 현황분석 |

전국평균	특·광역시 평균	도 평균
67.58%	67.63%	74.36%
시 평균	군 평균	자치구 평균
59.73%	67.38%	94.50%



경상수지비율 분석

- 2018회계연도 경상수지비율은 67.58%로 경상수익의 67% 정도를 경상비용에 충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경상비용(112.1조)				
인건비	운영비	자치구조정교부금	시군조정교부금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31.7조	55.0조	7.2조	6.8조	11.1조
경상수익(165.8조)				
지방세수익	경상세외수익	지방교부세수익	자치구조정교부금수익	시군조정교부금수익
86.0조	16.7조	49.0조	6.1조	6.5조

경상수지비율 현황

- 경상수지비율은 전국최대(155.01%; 부산 사하구), 전국최소(43.12%; 경기 여주시)로 나타남
- 경상수지비율을 단체유형별로 살펴보면, 자치구가 94.50%로 가장 높고, 도 74.36%, 특별·광역시 67.03%, 군 67.38%, 시 59.73% 순인 것으로 나타남
 - 자치구의 경상수지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은 자치구의 경우 타 단체에 비해 지방세수입과 이전수입(조정교부금)이 빈약한 반면, 사회복지관련 인건비 및 운영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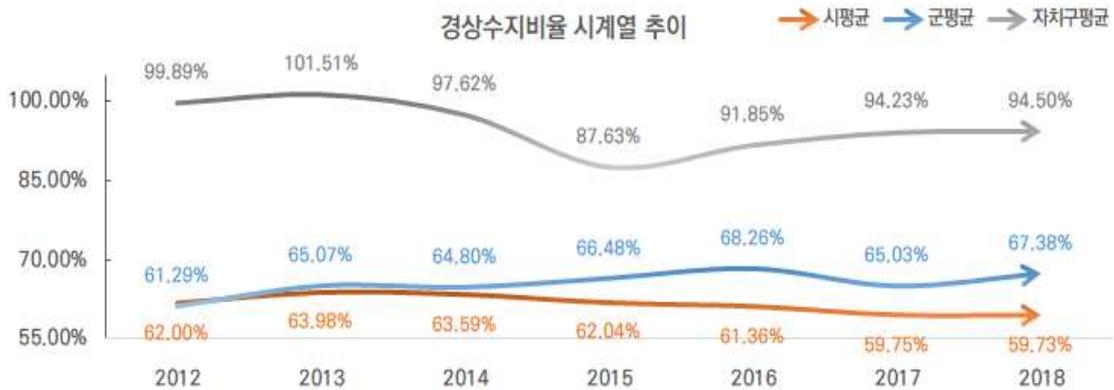
경상수지비율 주요 사례

<p>지방세 등 자체수입의 증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수지비율 지표의 우수사례는 자체수입(지방세, 경상세외수입)의 꾸준한 증가와 세출측면에서의 비용 절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경기 여주시) 지속적인 인구의 유입과 이로 인한 개발호재 효과로 지방세수입과 경상세외수입이 증가하여 경상비용 대비 경상수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경남 양산시) 인건비와 운영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의 적극적 지출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p>인건비 지출의 증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 사하구) 사회복지직 총원 및 조직개편에 따른 정규직 공무원의 증가와 계약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공무원의 증가로 인한 인건비 증가 사례가 있음
<p>사회복지 관련 위탁사업비의 증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 동구) 영유아보육료, 장애인 지원, 복지관 건립 등 사회복지 관련 위탁사업비의 증가로 인한 경상지출의 증가 사례가 있음 ▪ (부산 남구) 영유아보육료 사업의 경우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민간위탁대행사업비로 변경되면서 위탁사업비의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시계열 추이 분석 |

| 표 | 경상수지비율 시계열 추이

재정분석지표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경상수지비율	전국평균	70.11%	71.51%	69.76%	68.34%	68.14%	67.09%	67.58%
	특·광역시평균	67.58%	69.45%	67.86%	65.30%	68.45%	67.64%	67.63%
	도평균	73.74%	77.33%	72.83%	73.96%	73.97%	75.57%	74.36%
	시평균	62.00%	63.98%	63.59%	62.04%	61.36%	59.75%	59.73%
	군평균	61.29%	65.07%	64.80%	66.48%	68.26%	65.03%	67.38%
	자치구평균	99.89%	101.51%	97.62%	87.63%	91.85%	94.23%	94.50%



경상수지비율 시계열 추이

- 경상수지비율의 시계열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4년 이후 꾸준히 하락하던 경상수지비율이 '18년에는 전년대비 다소 상승한 수치를 보이고 있는바, 이는 아래와 같이 경상비용의 증가율이 경상수익의 증가율보다 높았기 때문임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경상수지비율(%)	69.75%	68.34%	68.14%	67.09%	67.58%
경상수익	120.6조	134.0조	143.2조	156.4조	165.8조
증감률(%)	6.91%	11.08%	6.84%	9.26%	6.02%
경상비용	84.1조	91.5조	97.5조	104.9조	112.1조
증감률(%)	4.30%	8.81%	6.54%	7.58%	6.80%

- '17년의 상대적으로 높았던 지방교부세 수익의 증가율이 '18년에 낮아졌으며, 지방세 수익 증가율 역시 전년대비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경상수익 증가율이 전년대비 다소 둔화된 것으로 파악됨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지방세수익	63.5조	73.0조	77.3조	82.2조	86.0조
증감률(%)	14.30%	14.80%	5.80%	6.30%	4.67%
경상세외수입	13.6조	147.7조	15.5조	15.7조	16.7조
증감률(%)	-4.10%	8.01%	5.39%	1.41%	6.26%
지방교부세수익	35.7조	34.9조	37.9조	44.3조	49.0조
증감률(%)	0.79%	-2.27%	8.75%	16.7%	10.57%

개선방안

-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총원, 무기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증가로 인한 인건비 증가 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인건비 측면에서의 지출 증가가 수반되고 있어, 인건비 이외 자치단체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 자치단체 운영비 감축, 불필요한 경상사업 축소 등 노력이 필요할 것임
- 동시에 경상수익 증대를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노력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관리채무비율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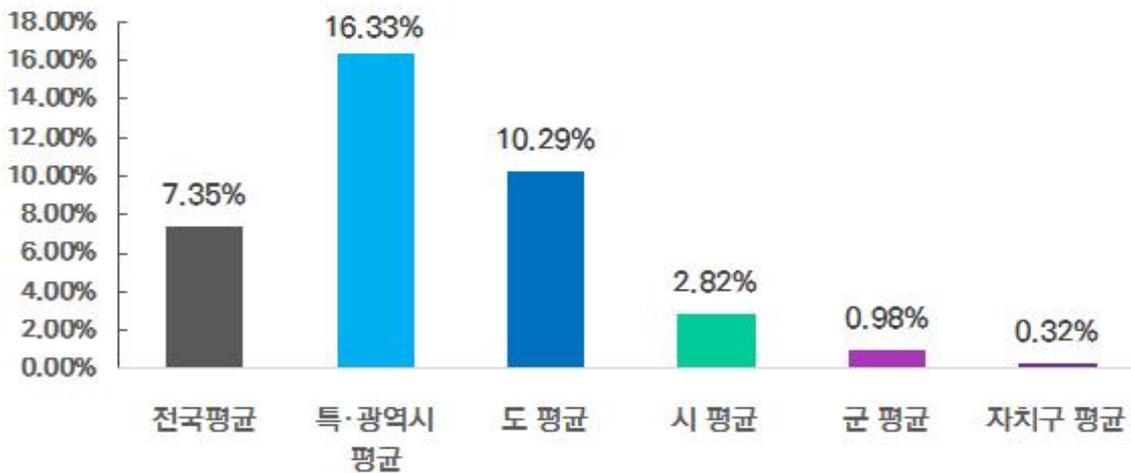
- 관리채무비율은 세입결산 대비 지방채무 현재액의 상대적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그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판단

산정

- 관리채무비율(%) = (지방채무잔액(BTL지급잔액포함) / 세입결산액) × 100
 - 지방채무잔액
 - 지방채증권+차입금+채무부담행위+보증채무이행책임액+BTL지급잔액
 - 자치단체의 일반·특별회계·기금이 그 자치단체의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상환하는 금액은 제외
 - 지방채무잔액은 원금기준으로 작성
 - BTL지급잔액
 - 준공 후 자치단체로 소유권이 이전된 시설물에 대해 결산일 기준으로 향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의무가 생긴 총액 중 순지방비로 지급할 금액

| 현황분석 |

전국평균	특·광역시 평균	도 평균
7.35%	16.33%	10.29%
시 평균	군 평균	자치구 평균
2.82%	0.98%	0.32%



관리채무 분석

- 관리채무비율은 채무상환의무가 수반되는 채무현재액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지표비율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채무과다로 인해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
- 관리채무비율은 전국최대(20.92%: 부산본청), 전국최소(0% 아래표 참조)로 나타남
- 관리채무비율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꾸준한 채무 감축 노력의 결과로 특히, 시군 유형에서 채무가 없는 “채무 zero” 단체가 나타나고 있음

유형	관리채무비율 “0%” 단체
시(17개 단체)	과천시, 공주시, 남양주시, 남원시, 삼척시, 군포시, 양주시, 광명시 시흥시, 동두천시, 오산시, 광주시, 영주시, 화성시, 영천시, 여주시, 고양시
군(35개 단체)	합천군, 영월군, 장수군, 강원 고성군, 청양군, 단양군, 신안군 강화군, 영광군, 함안군, 남해군, 산청군, 횡성군, 곡성군 무주군, 태안군, 창녕군, 부안군, 양평군, 양양군, 화천군 울주군, 양구군, 인제군, 보성군, 철원군, 순창군, 청도군 군위군, 무안군, 고흥군, 영동군, 달성군, 봉화군, 해남군

유형	2018년 BTL 지급액 발생 단체
광역자치단체	경기본청
기초자치단체	순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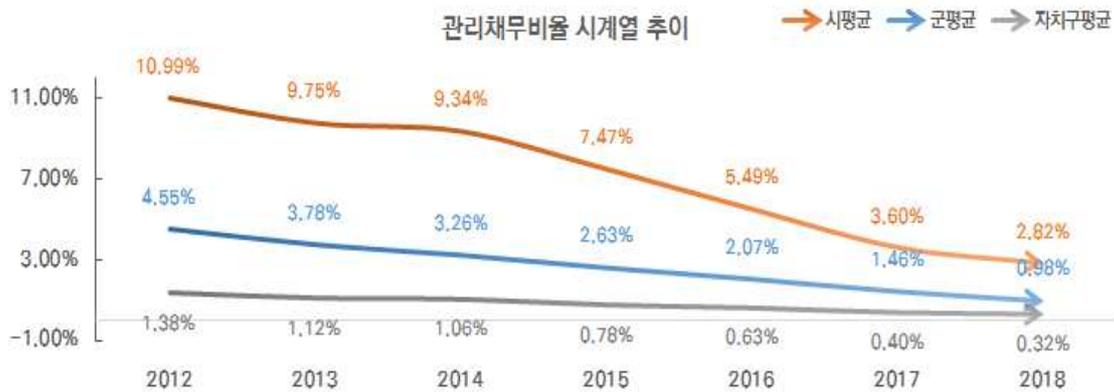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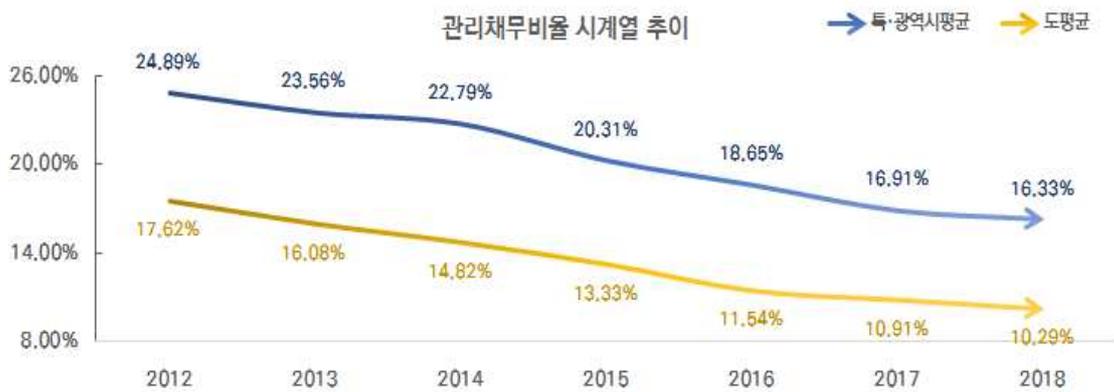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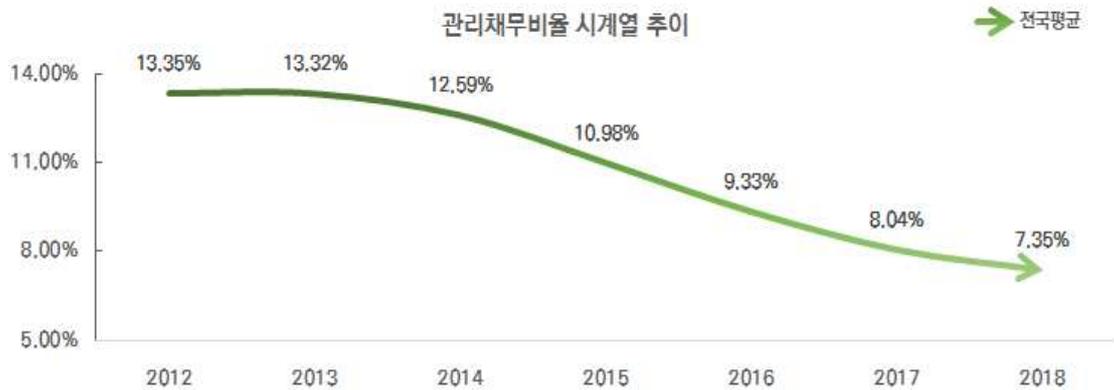
관리채무비율 주요 사례

<p>지방채상환기금을 통한 융자금 조기상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채상환기금을 통해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을 조기상환하는 단체의 사례가 있으며, 신규 채무 발생을 억제하고 추가적인 BTL 사업을 자제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단체의 사례가 다수 있음
<p>지방채 상환 계획에 따른 상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채 상환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함으로써 지방 채무를 감축하고 있는 사례와 함께, 상환계획을 앞당겨 조기상환하여 차입금 부담을 해소하는 사례도 있음

| 시계열 추이 분석 |

| 표 | 관리채무비율 시계열 추이

재정분석지표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관리채무비율	전국평균	13.35%	13.32%	12.59%	10.98%	9.33%	8.04%	7.35%
	특·광역시평균	24.89%	23.56%	22.79%	20.31%	18.65%	16.91%	16.33%
	도평균	17.62%	16.08%	14.82%	13.33%	11.54%	10.91%	10.29%
	시평균	10.99%	9.75%	9.34%	7.47%	5.49%	3.60%	2.82%
	군평균	4.55%	3.78%	3.26%	2.63%	2.07%	1.46%	0.98%
	자치구평균	1.38%	1.12%	1.06%	0.78%	0.63%	0.40%	0.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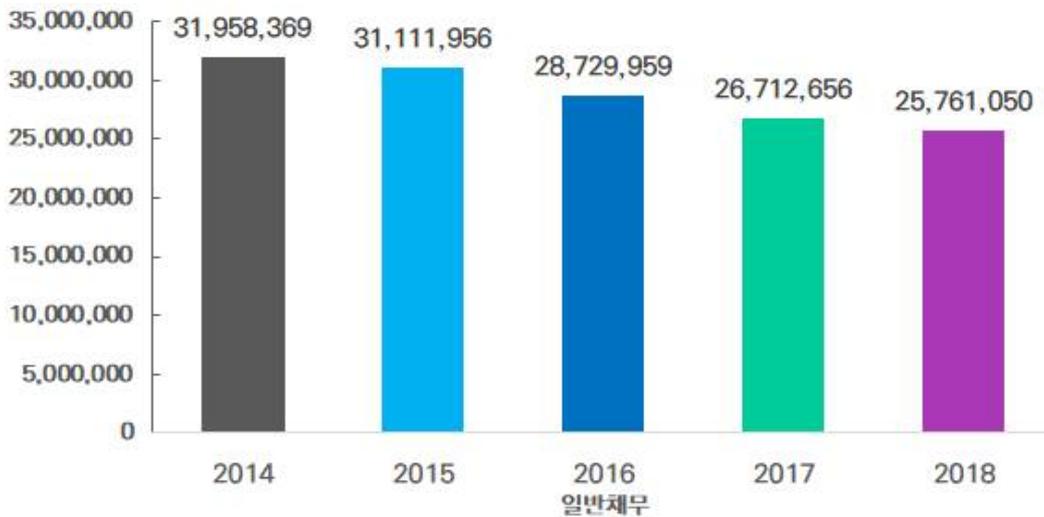
관리채무 시계열 추이

-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채무는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BTL 지급잔액의 경우 전년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산본청과 전남 순천시의 신규 BTL사업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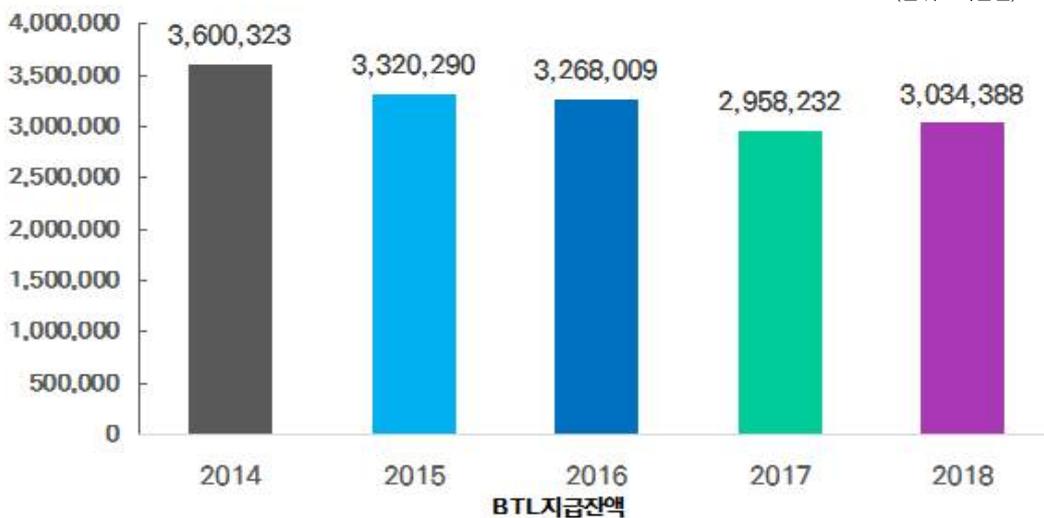
(단위: 백만원)

구분	일반채무(총채무)	BTL 지급잔액
2014	31,958,369	3,600,323
2015	31,111,956	3,320,290
2016	28,729,959	3,268,009
2017	26,712,656	2,958,232
2018	25,761,050	3,034,388

(단위: 백만원)



(단위: 백만원)



통합유동부채비율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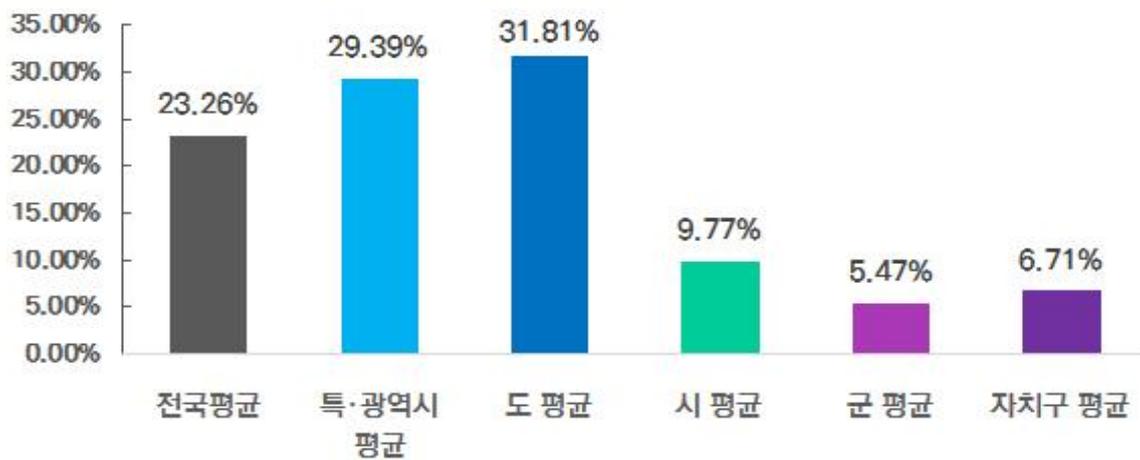
- 통합유동부채비율이란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하는 통합부채 작성에 따른 유동자산 대비 유동부채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로, 통합유동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자치단체의 유동성이 위험하다고 판단

산정

- 통합유동부채비율(%) =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유동부채 및 유동자산 = 통합유동부채현황보고서 상의 유동부채와 유동자산

| 현황분석 |

전국평균	특·광역시 평균	도 평균
23.26%	29.39%	31.81%
시 평균	군 평균	자치구 평균
9.77%	5.47%	6.71%



통합유동부채비율 분석

- 통합유동부채비율은 통합부채관리의 필요에 의해 '16년 재정분석에서 신규로 도입된 지표임
- '18년 통합유동부채비율의 분석결과 전국평균은 23.26%로 전년 23.01% 대비 소폭 상승한 수치를 기록
 - 이는 자치단체와 지방공사·공단 부채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인 반면,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는 전년대비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단위: 백만원)

구분	통합유동부채비율(%)	자치단체부채 (직영기업포함)	지방공사·공단부채	출자·출연기관부채
2017	23.01%	12,866,151	16,591,107	2,769,394
2018	23.26%	13,541,220	16,985,549	3,551,831

통합유동부채비율 현황

- 통합유동부채비율은 전국최대(51.97%: 전남 영광군), 전국최소(1.39%: 강원 양구군)로 나타남
 - 통합유동부채비율의 경우 특·광역시와 도의 지표값이 29.39%와 31.81%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 기초자치단체인 시는 9.77%, 군 5.47%, 자치구 6.71%로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이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지방공사 및 공단, 출자출연기관의 부채규모가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크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이 없는 단체도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단위: 백만원)

구분	통합유동부채총액			
	소계	자치단체(직영기업포함)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특·광역시	15,134,212	4,709,859	9,885,972	538,380
도	10,734,609	3,300,551	6,434,635	999,423
시	6,487,947	4,151,575	616,709	1,719,662
군	926,528	632,609	25,345	268,573
자치구	795,302	746,624	22,886	25,7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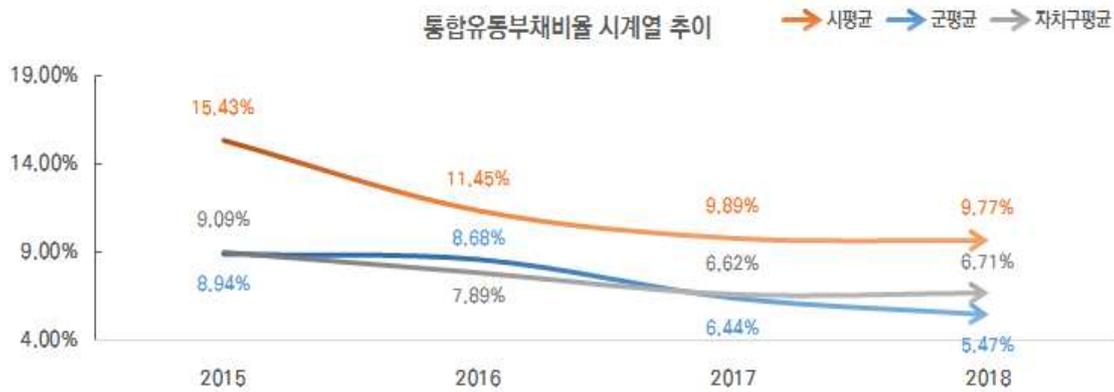
통합유동부채비율 주요 사례

지방공사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자산성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 본청) 지방공사의 매각대금 관련 선수금 발생과 사업 준공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발생하였던 자산성 부채로 인한 일시적 지방공사의 부채 발생 사례임

| 시계열 추이 분석 |

| 표 | 통합유동부채비율 시계열 추이

재정분석지표		2015	2016	2017	2018
통합유동부채비율	전국평균	27.97%	26.10%	23.01%	23.26%
	특·광역시평균	28.94%	30.09%	28.74%	29.39%
	도평균	31.91%	29.55%	29.59%	31.81%
	시평균	15.43%	11.45%	9.89%	9.77%
	군평균	8.94%	8.68%	6.44%	5.47%
	자치구평균	9.09%	7.89%	6.62%	6.71%



통합유동부채비율 시계열 추이

○ 통합유동부채비율의 시계열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단위: 백만원)

구분	2016	2017	2018
통합유동부채비율(%)	26.10%	23.01%	23.26%
자치단체 유동부채	14,998,299	12,866,151	13,541,220
지방공사·공단 유동부채	18,337,057	16,591,107	16,985,549
출자·출연기관 유동부채	2,409,940	2,769,394	3,551,831
자치단체 유동자산	87,180,020	94,894,969	102,030,278
지방공사·공단 유동자산	38,758,215	35,118,119	34,395,037
출자·출연기관 유동자산	9,115,063	9,278,707	10,107,394

- 통합유동부채비율은 '16년 26.10%에서 '17년 23.01%로 감소하였으며, '18년에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인 23.26%인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지방자치단체('17년 12.8조 → '18년 13.5조; 5.25% ↑)와 지방공사·공단('17년 16.5조 → '18년 16.9조; 2.38% ↑)의 부채규모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출자출연기관 유동부채('17년 2.7조 → '18년 3.5조; 28.25% ↑)가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출자출연기관 유동부채의 증가현황

- **(광역)** 경기(2,190억→2,910억), 충남(0원→540억), 강원 (1,925→2,412억)
 - * 증가사유: 경기신용보증재단, 충남신용보증재단, 강원 엘엘개발주식회사 등
- **(기초)** 경남 김해시(446억→5,765억) 전남 목포시(219억→1,960억), 경남 양산시(507억→2,109억)
 - * 증가사유: 김해테크노밸리, (주)양산석계산업단지, (주)목포대양산단 등

개선방안

- 출자출연기관의 유동부채의 증가는 '18년 발생 부채가 아닌 부채 중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여 상환해야 하는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유동성 부채에 대한 보다 면밀한 계획적 관리가 필요

■ 공기업부채비율

개념

- 공기업부채비율은 지방공기업의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액의 비율을 나타내며 공기업의 부채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그 비율이 낮을수록 지방공기업의 재무구조가 건전한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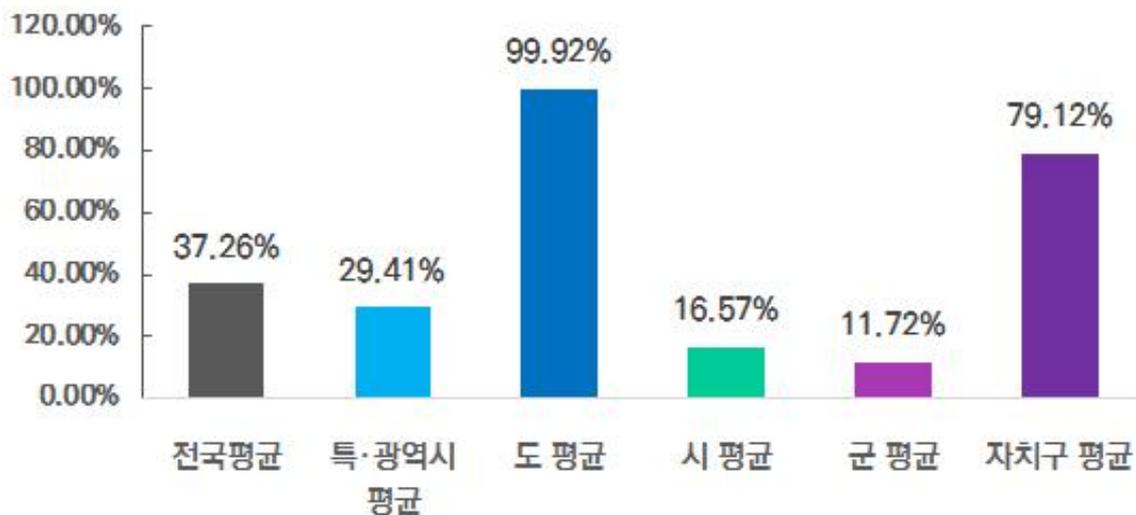
산정

- 공기업부채비율(%) = (부채총액 / 자기자본) × 100

※ 지방공기업 재정상태표 상의 자본과 부채(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을 포함)

| 현황분석 |

전국평균	특·광역시 평균	도 평균
37.26%	29.41%	99.92%
시 평균	군 평균	자치구 평균
16.57%	11.72%	79.12%



공기업부채비율 분석

- '18년 공기업부채비율의 분석결과 전국평균은 37.26%로 전년 41.58% 대비 하락한 수치를 기록(지방공기업 부채총액 '17년 약52.3조 → '18년 약52.5조)
- 지방공기업 자산은 193조 규모로 전년에 비해 15.5조 증가하였고, 부채는 52.5조로 0.2조 증가하였지만 자본이 15.2조 증가하여 부채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직영기업의 부채규모가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공사의 경우 부채규모는 전년과 유사하지만 자기자본의 증가로 인하여 부채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단위: 백만원)

구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부채합계
2017	9,831,512	22,479,629	19,970,978	52,282,120
2018	9,674,678	42,554,525	316,793	52,545,967
구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자본합계
2017	77,292,295	30,330,276	18,113,918	125,736,490
2018	91,705,156	48,649,408	687,888	141,042,453
구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부채비율(%)
2017	12.72%	74.12%	110.25%	41.58%
2018	10.55%	87.47%	46.05%	37.26%

공기업부채비율 현황

- 공기업부채비율은 전국최대(243.25%: 울산 울주군), 전국최소(0.01%: 충남 예산군)로 나타남
 - 공기업부채비율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인 특·광역시, 도에서 주로 개발공사, 도시철도공사 등의 부채로 인해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공기업부채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자치구의 경우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로 부채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타 유형 대비 높은 공기업 부채비율을 보이고 있음(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산반환금, 미지급금, 선수금 등이 회계처리 과정에서 부채로 계상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음)

(단위: 백만원)

구분	부채	자기자본	부채비율(%)
특·광역시	34,670,601	77,409,609	44.79%
도	9,704,442	10,919,780	88.87%
시	7,761,536	46,182,520	16.81%
군	380,291	6,508,735	5.84%
자치구	29,185	21,807	133.83%

공기업 부채비율 100% 초과 단체

- 광역(4개 단체), 기초(24개 단체)
- (도) 경기본청(106.40%), 강원본청(211.57%), 충남본청(148.45%), 전북본청(111.52%)
- (시) 경기 시흥(215.84%)
- (군) 대구 달성(112.62%), 울산 울주(243.25%), 경북 청송(161.02%)
- (자치구) 서울 중구(143.82%), 서울 용산구(152.66%), 서울 성동구(265.10%), 서울 광진구(110.78%), 서울 동대문구(236.20%), 서울 중랑구(277.84%), 서울 성북구(268.86%), 서울 강북구(200.55%), 서울 도봉구(269.14%), 서울 노원구(183.65%), 서울 마포구(262.23%), 서울 양천구(179.03%), 서울 강동구(257.65%), 인천 연수구(170.50%), 인천 남동구(154.92%), 인천 부평구(609.76%), 인천 서구(105.81%), 광주 광산구(109.64%), 울산 중구(284.80%), 울산 남구(231.01%)

공기업부채비율 주요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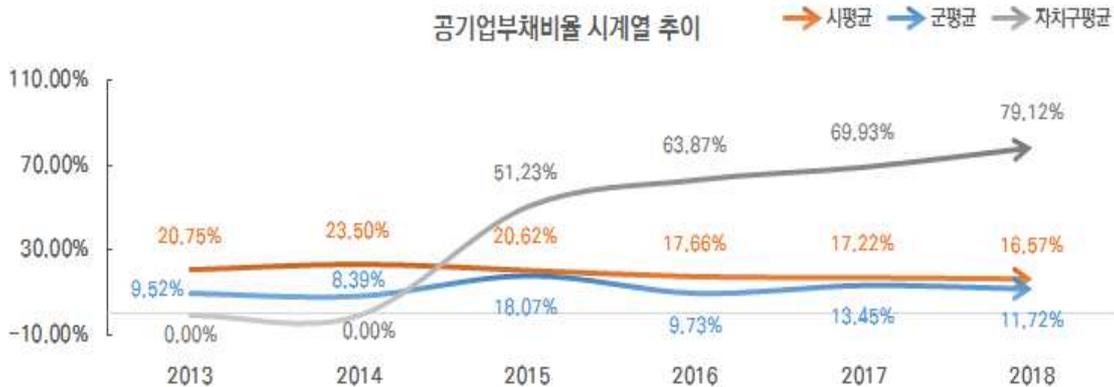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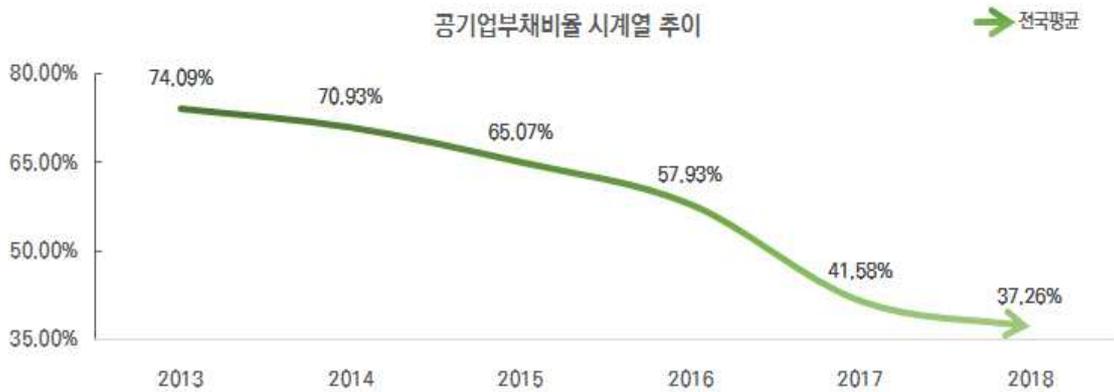
시설관리공단 부채

- 지방공단인 시설관리공단의 부채는 주로 연차유급휴가비, 위탁사업 수입금액 예수금 등에서 발생
- 지방공단인 도시관리공단의 경우 당해연도 사업 집행 잔액이 유동부채(예수금)으로 산정되어 부채가 발생
- 지방공사인 관광공사의 경우 리조트 조성을 위한 공사채 발행으로 인한 부채가 발생
- 지방공사인 농산물유통공사의 경우 과수 구매 시기에 자금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단기차입을 하는 등의 부채가 발생

| 시계열 추이 분석 |

| 표 | 공기업부채비율 시계열 추이

재정분석지표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공기업부채비율	전국평균	74.09%	70.93%	65.07%	57.93%	41.58%	37.26%
	특·광역시평균	81.86%	77.04%	56.84%	48.43%	31.88%	29.41%
	도평균	264.34%	239.07%	263.12%	272.40%	107.29%	99.92%
	시평균	20.75%	23.50%	20.62%	17.66%	17.22%	16.57%
	군평균	9.52%	8.39%	18.07%	9.73%	13.45%	11.72%
	자치구평균	0.00%	0.00%	51.23%	63.87%	69.93%	79.12%



공기업부채비율 시계열 추이

○ 공기업부채비율의 시계열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단위: 백만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직영 기업	부채	20,806,225	22,831,814	23,218,833	23,263,291	9,831,512	9,674,678
	자기자본	62,787,998	64,175,276	70,100,399	73,403,254	77,292,295	91,705,156
	부채비율(%)	33.14%	35.58%	33.12%	31.69%	12.72%	10.55%
지방 공사	부채	44,649,107	50,596,941	48,796,482	44,570,681	42,165,581	42,554,525
	자기자본	34,344,027	39,465,588	40,116,140	43,405,683	47,642,276	48,649,408
	부채비율(%)	116.44%	128.59%	124.64%	102.68%	88.50%	87.47%
지방 공단	부채	-	-	204,996	233,195	285,026	316,793
	자기자본	-	-	775,828	690,409	801,918	687,888
	부채비율(%)	-	-	26.42%	33.78%	42.0%	46.05%

- 공기업부채비율의 경우 '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지방직영기업의 부채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며, 지방공사의 경우 부채규모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자기자본의 규모가 증가하여 부채비율은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지방공단의 부채 규모 및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신설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이 원인인 것으로 보임

개선방안

- 하수도 요금에 대한 현실화를 적극 실천하여 지방직영기업의 적자폭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부채비율 역시 개선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지방공단의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 이는 기초자치단체 특히, 자치구 유형에서의 지속적인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원인으로 설립 초기 투자로 인한 지방공단의 부채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임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개념

-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은 지방공기업의 총자본에 대한 영업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며 공기업의 영업실적을 측정하는 지표로 그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하고 재정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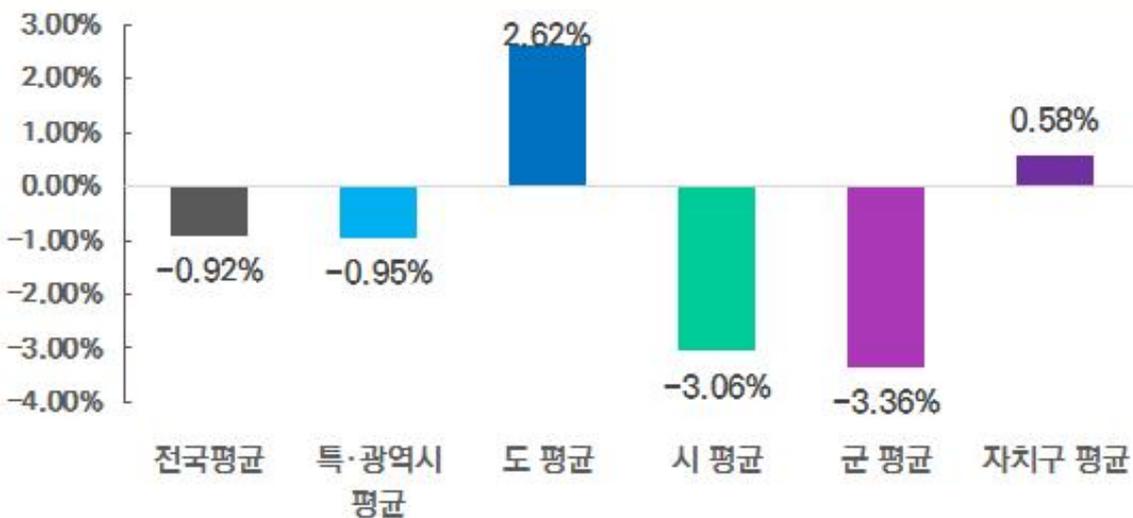
-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 (영업이익 / 총자본) × 100

※ 영업이익: 지방공기업 손익계산서 상의 영업이익

총자본: 지방공기업 재정상태표 상의 총자본(부채+자본); 지방직영기업, 공사, 공단 포함

| 현황분석 |

전국평균	특·광역시 평균	도 평균
-0.92%	-0.95%	2.62%
시 평균	군 평균	자치구 평균
-3.06%	-3.36%	0.58%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분석

- '18년 지방공기업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전국평균은 -0.92%로 전년 -0.68% 대비 하락하였으며, '16년 음의 값으로 전환된 이후 '18년 결산에서도 음의 값을 보여 공기업 경영실적이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지방직영기업)** 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통해(전년대비 5.7% ↑) 적자폭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하수도사업은 여전히 낮은 요금 현실화율로 인해 당기순손실이 크고(9,994억 적자) 이는 지방직영기업 당기순손실(5,827억 적자)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요금현실화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수도 : '14)80.6% → '15)80.6% → '16)82.1% → '17)81.4% → '18)81.54% 하수도 : '14)35.2% → '15)37.3% → '16)41.9% → '17)44.2% → '18)49.9% 	
당기순손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수도 : '17)△879억 → '18)△871억(증8억), 하수도 : '17)△12,014억 → '18)△9,994억(감2,020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영개발 : '17)4,251억 → '18)5,008억(증 757억) 운송 : '18)30억

- **(도시철도공사)** 도시철도 요금현실화가 전년에 비해 다소 개선되었으나(전년대비 3.6% ↑),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등 취약계층 무임승차 인원 증가 및 낮은 요금이 지속적 경영적자의 원인이 되고 있음

요금현실화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4)58.4% → '15)59.2% → '16)56.5% → '17)49.5% → '18)53.1% 	
무임승차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4)4,052억 → '15)4,479억 → '16)4,760억 → '17)5,753억 → '18)5,965억 * 무임승차인원(백만명) : '14)388 → '15)407 → '16)415 → '17)429 → '18)438 	
당기순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4)△9,018억 → '15)△7,949억 → '16)△8,420억 → '17)△9,060억 → '18)△10,549억 	

- **(기타공사)** 기타공사의 경우 지속적인 부채비율 감소 및 당기순이익 증가로 경영여건이 개선되고 있음

부채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4)2.9조 → '15)2.7조 → '16)2.0조 → '17)1.8조 → '18)1.9조 	
부채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4)90.4% → '15)86.5% → '16)50.3% → '17)43.7% → '18)42.8% 	
당기순손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14)△1,391억 → '15)704억 → '16)403억 → '17)1,480억 → '18)1,789억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주요 사례

원가상승, 무임승차손실 증가로 인한 도시철도공사 경영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수송원가) '14)1,420(원/명) → '15)1,465(원/명) → '16)1,513(원/명) → '17)1,787(원/명) → '18)1,711(원/명) ② (요금현실화율) '14)58.4% → '15)59.2% → '16)56.5% → '17)49.5% → '18)53.1% ③ (무임승차손실) '14)4,565억 → '15)4,938억 → '16)5,382억 → '17)5,753억 → '18)5,965억 ④ (경영손실규모) '14)△9,018억 → '15)△7,949억 → '16)△8,420억 → '17)△9,060억 → '18)△10,549억 	

지방공사의 배당금 수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성남의 톨 주식회사 배당금 수익 증가 등으로 경영손익 개선 ('17)1,480억 → '18)1,789억, 20.9% ↑), 자본잠식 기관의 수는 3년 연속 Zero 유지 	

| 시계열 추이 분석 |

| 표 |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시계열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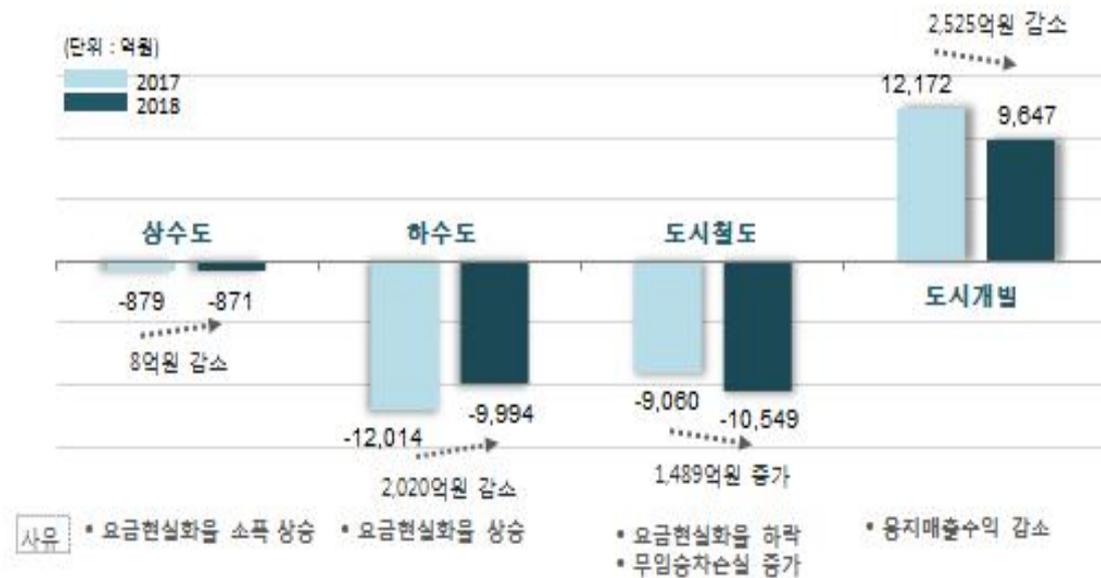
재정분석지표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자본대비영업 이익률	전국평균	-0.60%	-0.82%	1.85%	-0.59%	-0.68%	-0.92%
	특·광역시평균	0.14%	-1.06%	0.70%	-0.20%	-1.28%	-0.95%
	도평균	0.87%	1.65%	1.61%	2.70%	3.67%	2.62%
	시평균	-2.96%	-3.60%	-3.55%	-3.24%	-3.16%	-3.06%
	군평균	-5.09%	-2.54%	-2.14%	-3.01%	-3.01%	-3.36%
	자치구평균	0.00%	0.00%	-8.50%	0.40%	-11.01%	0.58%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시계열 추이

- 지방공기업의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을 유형별·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방직영기업의 경우 최근 3년 간 영업적자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지방직영기업의 경우 하수도 요금현실화율의 개선으로 적자폭이 개선되어 영업이익률이 전년대비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낮은 요금현실화율이 영업이익 적자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음
- 지방공사의 경우 도시철도사업에서 고령화에 따른 노령인구 등 취약계층 무임승차 인원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영업이익 적자가 나타나고 있음
- 지방공사 중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택지 및 아파트 분양 호조로 영업이익의 흑자가 나타남

구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2016	-1.46%	0.36%	0.32%
2017	-1.81%	1.11%	-0.56%
2018	-1.48%	-0.30%	-0.24%



개선방안

- 지방공기업의 경우 요금현실화율이 낮은 상·하수도, 도시철도를 제외하면 도시개발공사 등에서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있음
- 직영기업 및 도시철도에 대한 요금인상을 포함한 요금현실화 시책의 꾸준한 추진과 함께 경영실적 개선을 위한 부채규모 축소 등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

나. 재정효율성

■ 자체수입비율(증감률)_지방세

개념

- 자체수입비율(증감률)_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수입 증대노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세입결산액 대비 지방세수입의 비율 및 증감률을 측정하는 지표로 지표값이 높을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수준이 높다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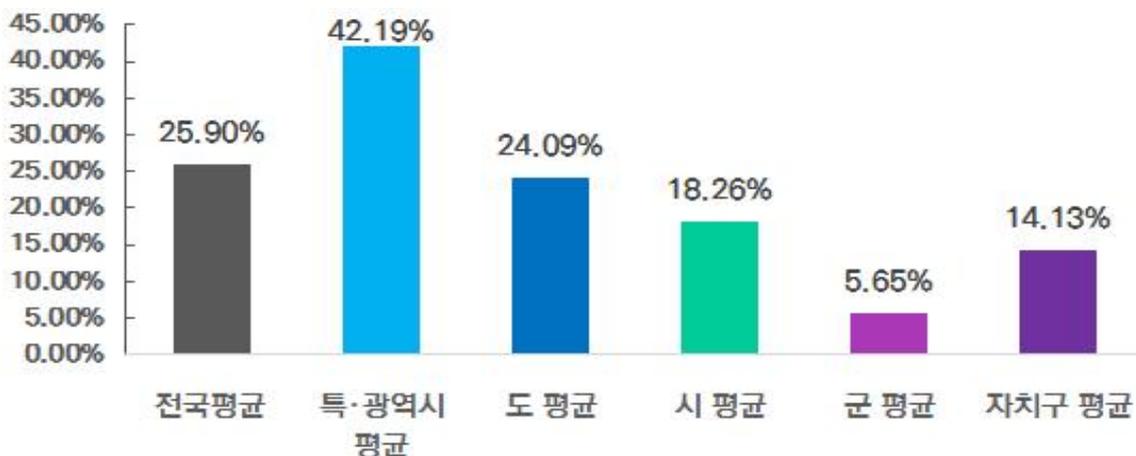
산정

- 자체수입비율_지방세(%) = (2018년도 지방세실제수납액 / 2018년도 세입결산액) × 100
- 자체수입증감률_지방세(%) = $\{(2018\text{년도 지방세실제수납액} - 2017\text{년도 지방세실제수납액}) / 2017\text{년도 지방세실제수납액}\} \times 100$
- ※ 지방세실제수납액: 보통세(111)+목적세(112); 지방교육세(112-02) 및 과년도수입(113) 제외

| 현황분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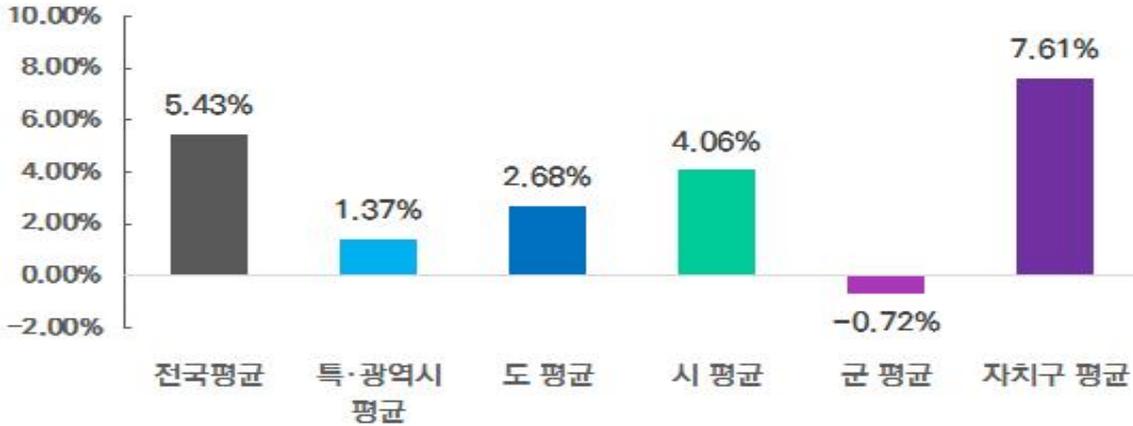
자체수입비율_지방세

전국평균	특·광역시 평균	도 평균
25.90%	42.19%	24.09%
시 평균	군 평균	자치구 평균
18.26%	5.65%	14.13%



자체수입증감률_지방세

전국평균	특·광역시 평균	도 평균
5.43%	1.37%	2.68%
시 평균	군 평균	자치구 평균
4.06%	-0.72%	7.61%



자체수입비율_지방세 분석

- 자체수입비율_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결산에서 지방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측정하는 지표임(2019년 재정분석에서는 3년 평균액이 아닌 '18년말 기준 지방세수입액을 사용)
※재정분석 자체수입비율_지방세는 지방교육세, 과년도수입을 제외하여 산정
- '18년에 대한 자체수입비율_지방세 분석결과 전국평균은 25.90%로 전년 26.23% 대비 하락한 수치를 기록함
- '15년 이후 지속되었던 꾸준한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국세 실적 개선의 영향으로 지방세 규모는 '15년 71.0조→'16년 75.5조→'17년 80.4조→'18년 84.3조(지방세연감 기준; 지방교육세 포함)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년대비 증감률의 둔화로 인하여 세입결산 대비 지방세수입비율이 다소 하락함
- 이는 '16년 대비 '17년 지방세수입증감이 취득세(↑ 8.23%), 지방소비세(↑ 13.63%), 지방소득세(↑ 10.25%)를 보였던 반면에, '17년 대비 '18년 지방세수입증감이 취득세(↑ 1.39%), 지방소비세(↑ 2.59%), 지방소득세(↑ 15.71%)로 나타나 취득세와 지방소비세의 증가폭이 전년대비 둔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단위: 백만원)

구분	취득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2016	21,701,647	6,401,148	13,094,604
2017	23,486,684	7,273,752	14,437,411
2018	23,813,500	7,462,376	16,705,656
2016-2017 증감률(%)	8.23%	13.63%	10.25%
2017-2018 증감률(%)	1.39%	2.59%	15.71%

자체수입비율_지방세 현황

- 자체수입비율_지방세는 전국최대(64.33%: 서울분청), 전국최소(1.44%: 경북 영양군)로 나타남
- 자체수입비율_지방세의 경우 단체·유형별로 크게 차이가 나고 있으며, 특·광역시가 42.1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도 24.09%, 시 18.26%, 자치구 14.13%이고, 군은 5.65%로 낮은 지방세수입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이는 지역 내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소비활동이 높은 경우와 지역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자치단체의 경우 소비지수의 상승, 지역 내 기업 입주 증가와 기업 활동의 증진 및 부동산 거래 활성화의 영향으로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등이 증가하여 높은 지방세수입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 반면에 군의 경우 타 유형 자치단체에 비해 빈약한 지방세원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징을 갖고 있어 지방세수입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자체수입비율_지방세 주요 사례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화성시) 양도세 강화,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부동산 규제정책의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여 취득세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대규모 택지 개발, 반도체 경기 호조로 인한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로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수입이 증가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용인시) 관내 기업들의 영업실적 개선에 따른 지방소득세(법인분)의 증가와 주택거래활성화 및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주택물량공급 등의 증가로 재산세와 취득세가 증가
고령화 지속에 따른 인구감소와 부족한 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 진안군) 지역경제력이 낮고 인구분포에 있어 고령화가 지속되어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방세원 증대 요소가 빈약 ▪ (전남 신안군) 농어업 중심의 산업기반으로 인한 열악한 지방세수가 낮은 지방세수입의 주요 원인 ▪ (전남 진도군)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농촌 노령인구가 많고 매년 인구감소가 큰 폭으로 일어나고 있어 이로 인한 주요 지방세원인 주민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등이 감소

자체수입증감률_지방세 분석

- 자체수입증감률_지방세는 '18년을 기준으로 '17년 대비 지방세수입의 증감을 측정하는 지표임
- '17년 대비 '18년 자체수입비율_증감률은 5.43%를 기록함
- 2018년 재정분석까지는 자체수입증감률_지방세 분석에 3년 평균액 대비 증감률을 사용하였으나, 2019년 재정분석에서는 전년대비 증감률을 사용

(단위: 백만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자체수입_지방세※	65,703,580	69,379,678	74,345,649	78,382,118
증감률	-	5.59%	7.16%	5.43%

※재정분석 자체수입_지방세는 지방교육세, 과년도수입을 제외하여 산정하므로 지방세연감자료와 수치가 다름

자체수입증감률_지방세 현황

- 자체수입증감률_지방세는 전국최대(76.72%: 경기 이천시), 전국최소(-26.88%: 인천 옹진군)로 나타남
- 자체수입증감률_지방세를 단체·유형별로 살펴보면 자치구가 7.6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 4.06%, 도 2.68%, 특별·광역시 1.37%의 순을 보임. 반면에 군의 경우 자체수입증감률_지방세가 -0.72%로 나타나 자체수입_지방세가 전년대비 감소하였음
 - 군의 경우 타 단체에 비해 인구감소, 노령인구비율 증가, 지역경제침체 등으로 지방세수입원의 감소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며 이에 전년대비 지방세수입 감소 단체도 타 단체에 비해 많음

전년대비 지방세수입 감소 단체

- (특별·광역시: 3개 단체) 부산본청, 인천본청, 울산본청
- (도: 2개 단체) 경북본청, 경남본청
- (시: 28개 단체) 광주,포천,여주,동두천,과천,강릉,동해,태백,삼척,제천,보령,군산,익산,정읍,김제,목포,나주,광양,경주,김천,영천,문경,경산,통영,사천,김해,밀양,거제
- (군: 42개 단체) 기장,옹진,가평,홍천,횡성,평창,정선,인제,양양,영동,단양,금산,부여,태안,진안,무주,임실,순창,담양,곡성,고흥,화순,무안,영광,장성,진도,신안,군위,청송,영덕,고령,성주,봉화,울진,의령,함안,창녕,경남고성,하동,산청,함양,합천
- (자치구: 1개 단체) 서울 강동

자체수입증감률_지방세 주요 사례

지방산단 기업유치 및 기업실적 호조로 인한 지방세입 증가

- (경기 수원시) 삼성전자 영업이익 증가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증가하였으며 주민세 개인균등분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으로 주민세가 증가
- (경기 이천시)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로 인하여 지방소득세가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
- (경기 평택시) 반도체 공장 가동과 신도시 및 택지지구 조성으로 인하여 지방소득세와 취득세가 증가
- (전남 강진군) 강진산단 내 기업유치로 인하여 지방소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수입 증가를 가져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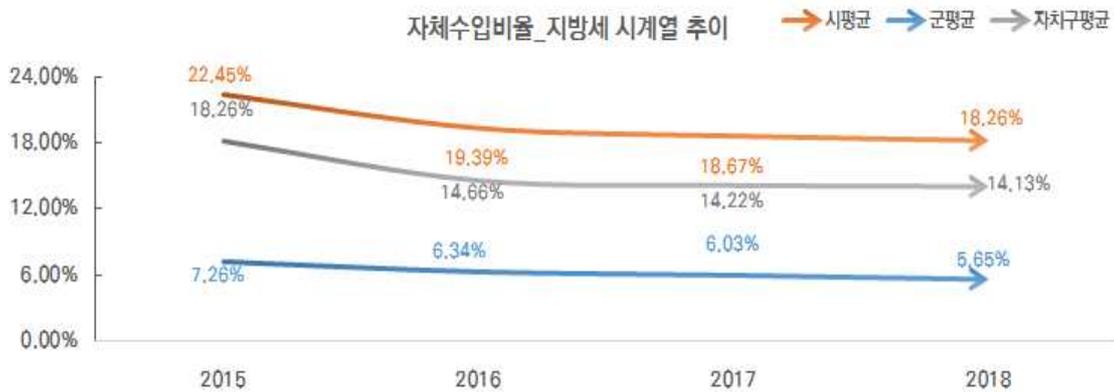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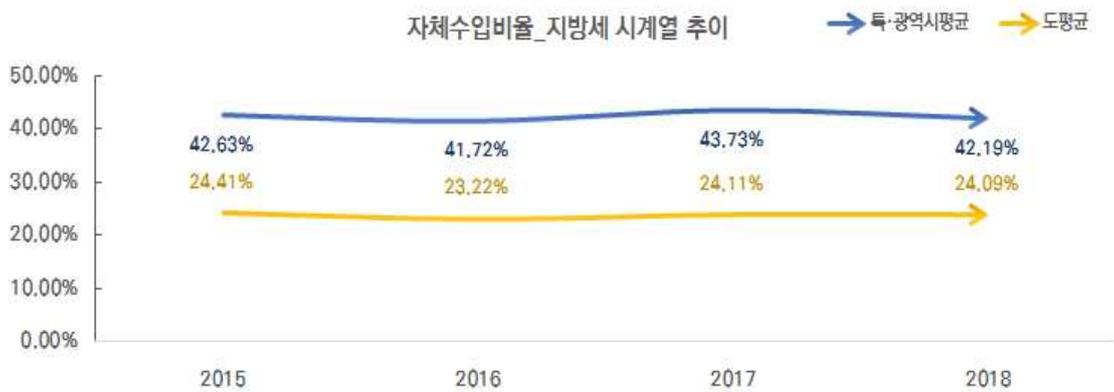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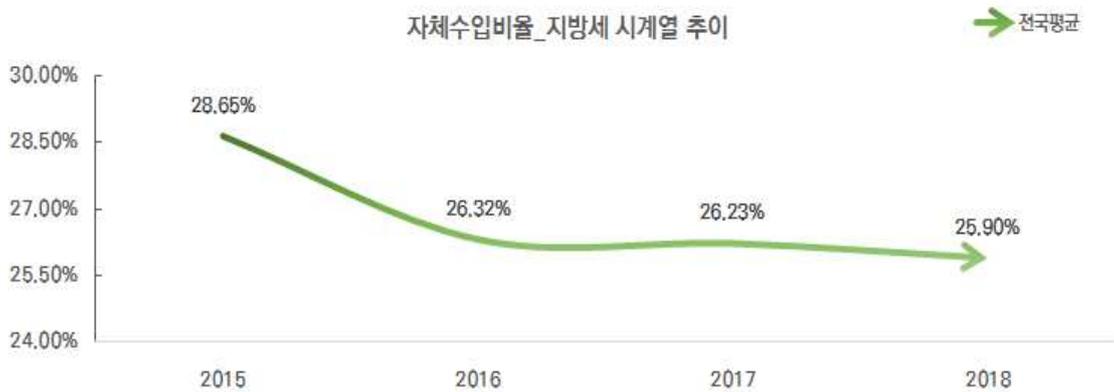
토지 및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지방세입 증가

- (충북 청주시)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신축건물의 가격이 상승하고, 공동주택 신축으로 인하여 재산세가 증가하였으며, 재산세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 성실납세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추첨을 통해 공용주차장 무료 이용, 제증명 수수료 면제, 상품권 지급 등의 다양한 시책을 운영

| 시계열 추이 분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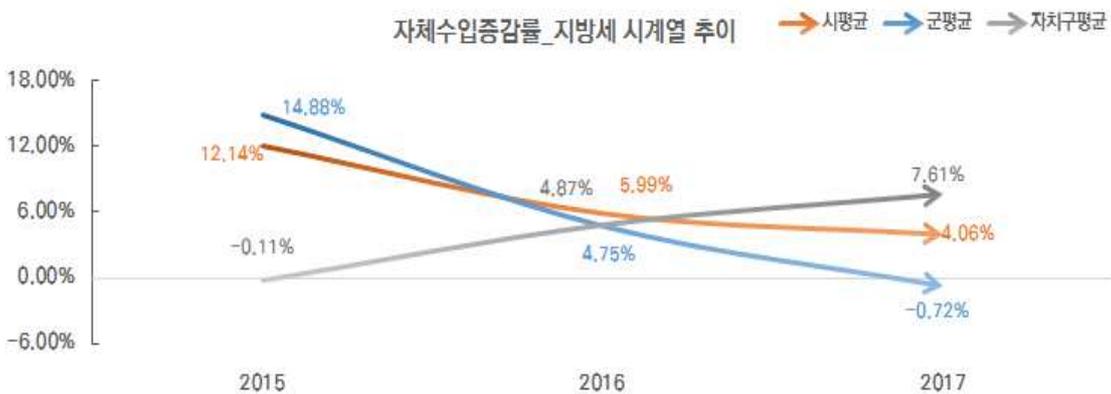
[표] 자체수입비율_지방세 시계열 추이

재정분석지표		2015	2016	2017	2018
자체수입비율 지방세	전국평균	28.65%	26.32%	26.23%	25.90%
	특·광역시평균	42.63%	41.72%	43.73%	42.19%
	도평균	24.41%	23.22%	24.11%	24.09%
	시평균	22.45%	19.39%	18.67%	18.26%
	군평균	7.26%	6.34%	6.03%	5.65%
	자치구평균	18.26%	14.66%	14.22%	14.13%



|표| 자체수입증감률_지방세 시계열 추이

재정분석지표		2016	2017	2018
자체수입증감률 지방세	전국평균	5.59%	7.16%	5.43%
	특·광역시평균	2.11%	9.29%	1.37%
	도평균	5.78%	6.40%	2.68%
	시평균	12.14%	5.99%	4.06%
	군평균	14.88%	4.75%	-0.72%
	자치구평균	-0.11%	4.87%	7.61%



자체수입비율(증감률)_지방세 시계열 추이 분석

- '15년 이후 지속되었던 꾸준한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국세실적 개선의 영향으로 지방세 규모 역시 '15년 71.0조→'16년 75.5조→'17년 80.4조→'18년 84.3조(지방세연감기준; 지방교육세포함)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년대비 증감률이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전년대비 증감률이 다소 부진한 이유는 지방세수 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취득세(↓6.84%p), 지방소비세(↓11.04%p) 등 세목에서 전년대비 증감률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지방세수입증감률(전년대비 기준)은 '16년 5.59%→'17년 7.16%→'18년 5.43%로 전년대비 증감률이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남
 - (담배소비세 감소) '16년 담배소비세 인상의 영향으로 인한 담배소비세 감소('15년 3.0조→'16년 3.7조→'17년 3.6조→'18년 3.4조)
 - (주민세 인상폭 둔화) '15년 종업원분 주민세에 대한 면세 정비, 균등할 주민세 일제인상으로 '16년에 최대치 인상 이후 인상폭 둔화('15년 1.5조→'16년 1.8조→'17년 1.9조→'18년 1.99조)

(단위: 백만원)

구분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2015	20,810,277	26.96%	1,831,317	23.31%	6,002,721	2.86%	12,759,718	29.90%
2016	21,701,647	4.28%	1,708,312	-6.72%	6,401,148	6.64%	13,094,604	2.62%
2017	23,486,684	8.23%	1,607,730	-5.89%	7,273,752	13.63%	14,437,411	10.25%
2018	23,813,500	1.39%	1,718,217	6.87%	7,462,376	2.59%	16,705,656	15.71%

개선방안

- 부동산경기 활성화, 국세실적 개선, 지방세제도 개편 등과 같은 지방세수입 증가의 외부효과가 줄어들고 있어, 지방세수입 증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신세원발굴 노력과 면세 및 감면 정책 정비에 대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징수관리를 통한 지방세수입 증대 노력이 필요함

■ 자체수입비율(증감률)_세외수입

개념

- 자체수입비율(증감률)_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증대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세입결산액 대비 세외수입의 비율 및 증감률을 측정하는 지표로, 지표값이 높을수록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구노력 수준이 높다고 판단

산정

○ 자체수입비율_세외수입(%) = (2018년도 세외수입실제수납액 / 2018년도 세입결산액) × 100

○ 자체수입증감률_세외수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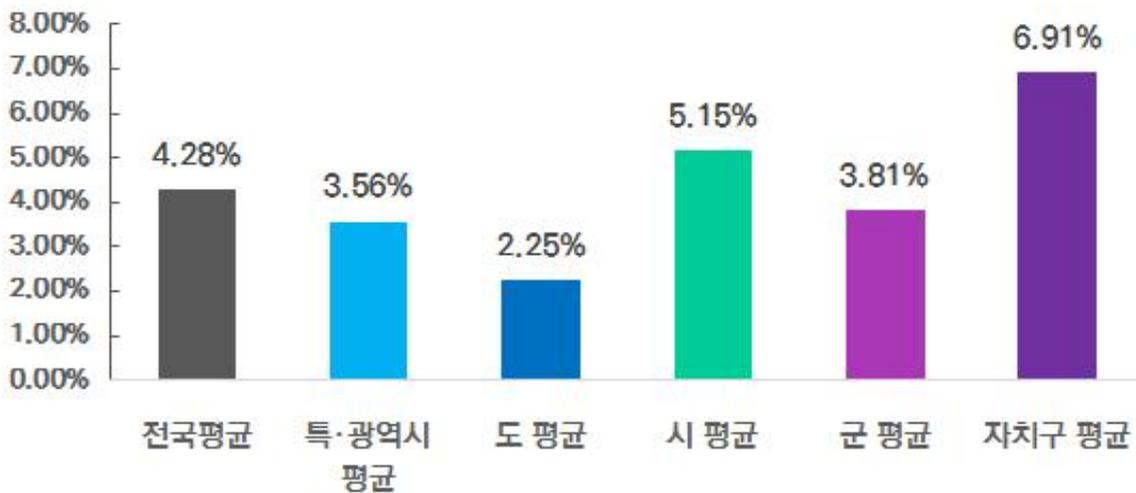
$$\{(2018년도 세외수입실제수납액 - 2017년도 세외수입실제수납액) / 2017년도 세외수입실제수납액\} \times 100$$

※ 세외수입 = 경상세외수입 + 임시세외수입

| 현황분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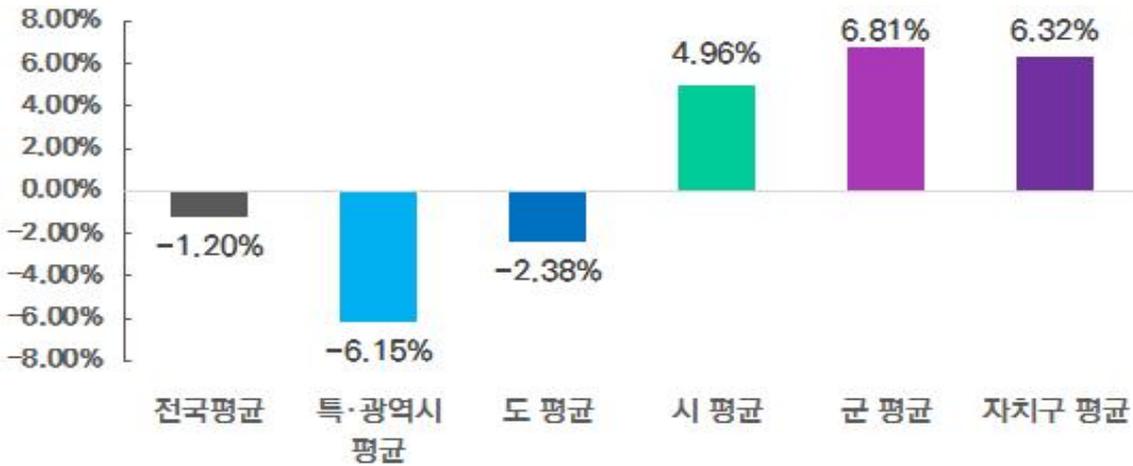
자체수입비율_세외수입

전국평균	특·광역시 평균	도 평균
4.28%	3.56%	2.25%
시 평균	군 평균	자치구 평균
5.15%	3.81%	6.91%



자체수입증감률_세외수입

전국평균	특·광역시 평균	도 평균
-1.20%	-6.15%	-2.38%
시 평균	군 평균	자치구 평균
4.96%	6.81%	6.32%



자체수입비율_세외수입 분석

- 자체수입비율_세외수입은 2019년(FY2018) 지방재정분석에서 신규 도입된 지표로 자치단체 경상세외수입과 임시세외수입을 합한 세외수입의 비중을 측정
 - 전년도('17년)까지는 임시세외수입을 제외한 경상세외수입(이자수입제외)만을 측정하여 분석지표로 활용
- '18년 세외 세외수입비율 분석결과 전국평균은 4.28%로 나타남
 - 경상세외수입만을 포함하였던 '17년의 경우에는 전국평균 1.79%(경상세외수입비율)를 기록

(단위: 백만원)

구분	세외수입	경상세외수입	임시세외수입	세입결산액
2017	13,105,739	6,065,039	7,040,700	283,421,621
2018	12,948,717	6,405,607	6,543,109	302,580,405

자체수입비율_세외수입 현황

- 자체수입비율_세외수입 전국최대(21.06%: 서울 강동구), 전국최소(1.51%: 전남본청)로 나타남
 - 자체수입비율_세외수입의 경우 자치구가 6.91%로 가장 높고, 시 5.15%, 군 3.81%, 특·광역시 3.56%, 도 2.25% 순으로 나타남
 - 자치구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의 세외수입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주차장 사용료, 시설사용료 등의 이용료 수입과 임대수입 등이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임

자체수입비율_세외수입 주요 사례

자산 매각으로 인한 세외수입 증대

- (서울 강동구) 토지와 도로부지 매각으로 전년보다 많은 임시세외수입을 올렸으며, 이를 공용 및 공공청사 시설 건립기금으로 편성하여 생활 SOC 확충 및 개선사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재투자한 사례

입장료 인상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

- (강원 태백시) 시 운영 공공시설에 대한 입장료 인상을 통해 세외수입 증대 효과를 거둔 사례가 있음
- 위생매립장 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통해 세외수입 증대를 거둔 자치단체 사례

사용료 수입 및 개발부담금 수입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

- (충북 음성군) 관내 시설에 대한 사용료 수입의 증대와 더불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부담금을 통해 개발부담금 수익으로 세외수입이 증대된 사례

자체수입증감률_세외수입 분석

- 자체수입증감률_세외수입은 '18년을 기준으로 '17년 대비 세외수입의 증감을 측정하는 지표임
- '17년 대비 '18년 자체수입증감률_세외수입은 -1.20%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단위: 백만원)

구분	세외수입	경상세외수입	임시세외수입	세입결산액
2016	4,698,299	4,698,299	-	263,631,195
2017	13,105,739	6,065,039	7,040,700	283,421,621
2018	12,948,717	6,405,607	6,543,109	302,580,405
전년대비증감률(%)	-1.20%	5.62%	-7.07%	6.76%

자체수입증감률_세외수입 현황

- 자체수입증감률_세외수입은 전국최대(185.97%: 서울 강동구), 전국최소(-67.31%: 경기 안산시)로 나타남
- 자체수입증감률_세외수입을 단체·유형별로 살펴보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군 6.81%, 자치구 6.32%, 시 4.96%로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광역자치체인 특별·광역시와 도의 경우 -6.15%, -2.38%로 전년대비 세외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광역자치단체의 세외수입이 감소한 것은 주로 임시세외수입이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보이며, 전년도에 이루어졌던 토지, 건물 등과 같은 자산매각 수입이 현년도에 크게 감소한 것이 세외수입 감소의 주된 사유인 것으로 파악됨

전년대비 세외수입 감소 단체

- **(특별·광역시: 6개 단체)** 부산본청, 대구본청, 인천본청, 광주본청, 대전본청, 울산본청
- **(도: 4개 단체)** 강원본청, 충북본청, 전남본청, 경남본청
- **(시: 26개 단체)** 수원,부천,안산,화성,평택,김포,양주,구리,안성,포천,과천,청주,천안,보령,아산,계룡,익산,남원,목포,나주,경주,김천,구미,영주,양산
- **(군: 28개 단체)** 달성,울주,양평,가평,평창,정선,양구,양양,보은,영동,증평,진천,태안,완주,구례,강진,영암,함평,영광,완도,청송,청도,칠곡,울릉,함안,창녕,산청,함양
- **(자치구: 27개 단체)** 서울) 종로,성동,동대문,중랑,성북,노원,은평,마포,양천,구로,영등포,서초,강남,부산) 중,부산진,사하,연제,수영 대구)중,서,북 인천) 중 광주) 남,북 대전) 유성 울산) 남,북

자체수입증감률_세외수입 주요 사례

자산매각에 따른 임시세외수입 증가

- **(서울 강동구)**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과정에서 토지와 도로부지 매각으로 전년보다 많은 임시세외수입을 징수한 사례
- **(경기 안산시)** 토지 매각대금이 전년도까지 입금되어 세입처리되었으나 `18년도의 경우 매각대금의 세입처리가 종료되어 임시세외수입이 감소한 사례

개발부담금 체납 및 감소로 인한 세외수입 감소

- **(충북 청주시)** 전년도의 경우 공원개발로 인한 개발부담금 수입이 발생하였던 반면, 현년도의 경우 대규모 개발부담금 부과 사업이 발생하지 않아 세외수입이 감소한 사례
- **(전남 나주시)** 혁신도시 개발부담금이 체납되어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며, 이로 인해 세외수입 체납액관리비율 역시 전년대비 상승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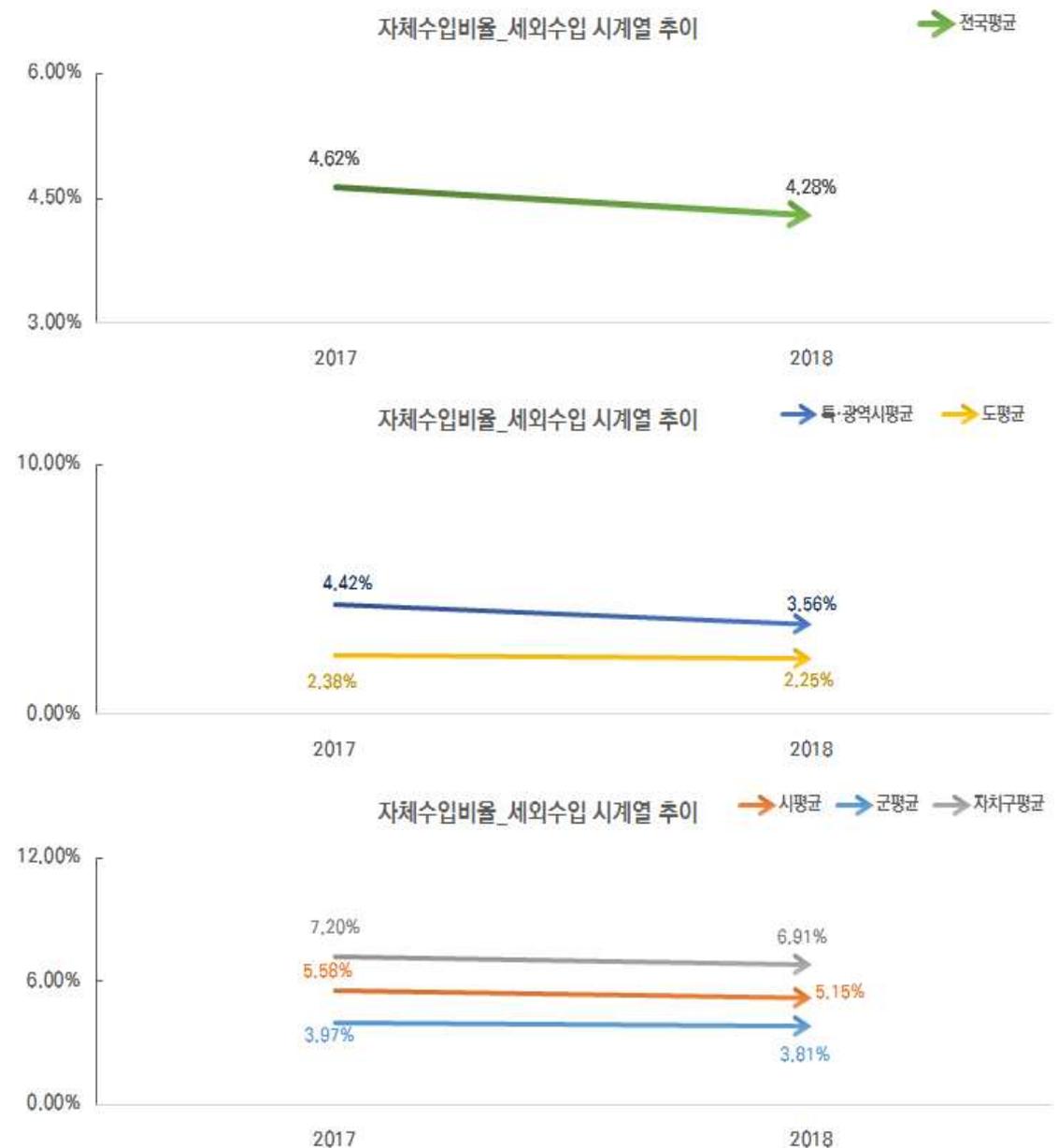
공유재산 매각대금 감소로 인한 세외수입 감소

- **(강원 양양군)** 공유재산매각대금 감소로 인한 세외수입 감소 사례로, 전년의 경우 '지경관광단지조성', '강선 물치택지조성'에 따른 재산 매각대금으로 세외수입이 증가하였으나 현년의 경우 공유재산매각이 감소하여 세외수입이 감소한 사례

| 시계열 추이 분석 |

| 표 | 자체수입비율_세외수입 시계열 추이

재정분석지표		2017	2018
자체수입비율 세외수입	전국평균	4.62%	4.28%
	특·광역시평균	4.42%	3.56%
	도평균	2.38%	2.25%
	시평균	5.58%	5.15%
	군평균	3.97%	3.81%
	자치구평균	7.20%	6.91%



|표| 자체수입증감률_세외수입 시계열 추이

재정분석지표		2018
자체수입증감률 세외수입	전국평균	-1.20%
	특·광역시평균	-6.15%
	도평균	-2.38%
	시평균	4.96%
	군평균	6.81%
	자치구평균	6.32%

자체수입비율(증감률)_세외수입 시계열 추이 분석

- 세외수입의 경우 경상세외수입(전년도 산정 기준: 임시세외수입 제외)을 기준으로 할 경우 '14년 4.9조→'15년 5.3조→'16년 5.7조→'17년 6.0조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18년 산정기준(임시세외수입을 포함)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경상세외수입의 경우 '17년 6.0조에서 '17년 6.4조로 증가한 반면, 임시세외수입의 경우 '17년 7.0조 규모에서 '18년 6.5조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개선방안

- 세외수입 산정에 있어 임시세외수입이 포함되면서 전년대비 세외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상세외수입의 경우 자치단체 차원에서 도로사용료, 교통유발부담금, 주차장 사용료 및 시설이용료 등에 대한 요금현실화 추진과 누락세원 및 체납징수를 통한 징수노력을 통해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임시세외수입의 경우 자산 매각 여부에 따라 증감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특징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경상세외수입 위주의 세외수입 증진시책을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자치단체 운영 시설에 대한 이용료, 사용료 등의 요금인상을 통한 요금현실화, 교통유발부담금 및 개발부담금에 대한 적극적 징수활동 등의 추진이 필요

지방세징수율(제고율)

개념

- 지방세징수율(제고율)은 지방세의 징수실적과 징수노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방세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의 비율 및 제고율을 측정하는 지표로, 지표값이 높을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노력이 높다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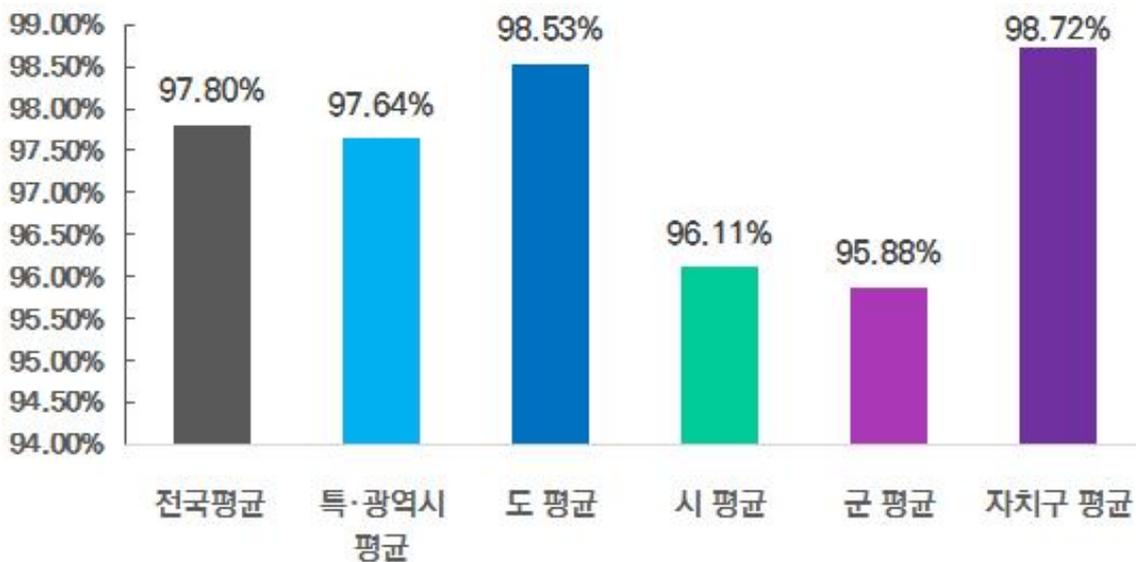
산정

- 지방세징수율(%) =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X 100
- 지방세징수율제고율 = (2018년도 지방세징수율 / 2017년도 지방세징수율)
- ※ 과년도분 및 자동차세(주행분), 지방소비세 징수실적은 제외

| 현황분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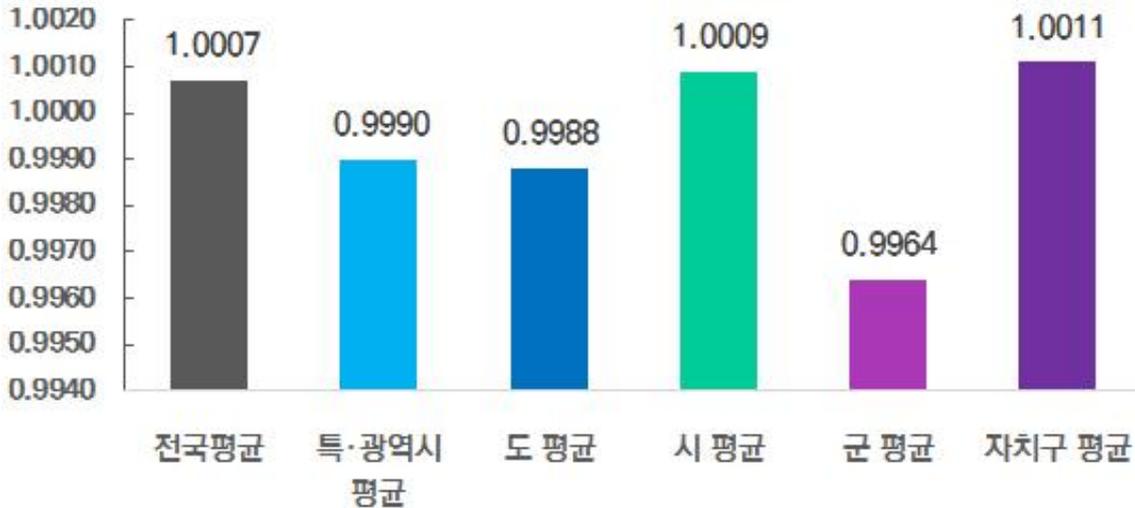
지방세징수율

전국평균	특·광역시 평균	도 평균
97.80%	97.64%	98.53%
시 평균	군 평균	자치구 평균
96.11%	95.88%	98.72%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전국평균	1.0007	특·광역시 평균	0.9990	도 평균	0.9988
시 평균	1.0009	군 평균	0.9964	자치구 평균	1.0011



지방세징수율 분석

- '18년 지방세징수율 분석결과 전국평균은 97.80%로 전년 97.69% 대비 상승한 수치를 기록함

(단위: 백만원)

구분	지방세징수율	지방세실제수납액	지방세징수결정액
2017	97.69%	68,881,144	70,512,266
2018	97.80%	77,463,617	79,205,404

지방세징수율 현황

- 지방세징수율은 전국최대(99.70%: 서울 금천구), 전국최소(91.42%: 경북 청도군)로 나타남
 - 지방세징수율을 단체·유형별로 살펴보면 도와 자치구가 98.53%와 98.72%로 상대적으로 높고, 다음으로 특별·광역시 97.64%, 시 96.11%, 군 95.88%로 나타남
 - 이는 기초자치단체 중 시와 군의 경우 주요 지방세원인 재산세와 지방소득세가 지역경제 상황에 따라 체납이 발생하는 빈도가 높아 징수실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됨

지방세징수율 주요 사례

지방세 징수 대책 TF 운영

- (서울 금천구)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세입분야 징수대책 TF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징수목표액을 설정하고 실적관리, 세입징수 특별대책 보고회 운영을 통해 세입징수 추진실적을 분석하여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한 사례가 있음

지방세 납부 편의를 위한 시책 추진

- (경기 과천시) 납세자의 납세편의 및 납부홍보를 위해 모바일 앱으로 고지서를 발송하여 납부안내를 실시하고, 지방소득세에 대한 납부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전용계좌 등 손쉬운 전자납부 방안을 다각도로 구현한 사례가 있음

골프장 수익악화로 인한 토지분 재산세 체납

- (경기 가평군) 자치단체 내 골프장 수익성 악화로 토지분 재산세가 체납되고 있으며 이에 더불어 골프장 납세자의 권리구제결정으로 인한 과오납금 발생으로 지방세징수율이 낮게 나타나는 사례가 있음

지방세징수율제고를 분석

- '18년에 대한 지방세징수율제고율 분석결과 전국평균은 1.0007로 전년 1.0027 대비 소폭 하락한 수치를 기록함
- 다만 지방세징수율이 '15년 97.22%→'16년 97.30%→'17년 97.69%→'18년 97.80%로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치단체 지방세징수실적은 대체로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지방세징수율제고율 현황

- 지방세징수율제고율은 전국최대(1.0385: 경북 예천군), 전국최소(0.9670: 경북 영천시)로 나타남
- 지방세징수율제고율을 단체유형별로 살펴보면 자치구가 1.001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 1.0009, 특별·광역시 0.9990, 도 0.9988, 군 0.9964로 나타남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주요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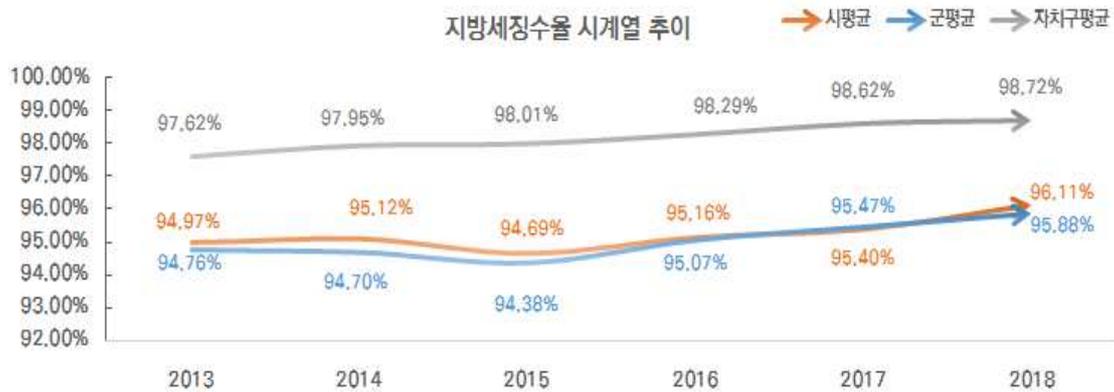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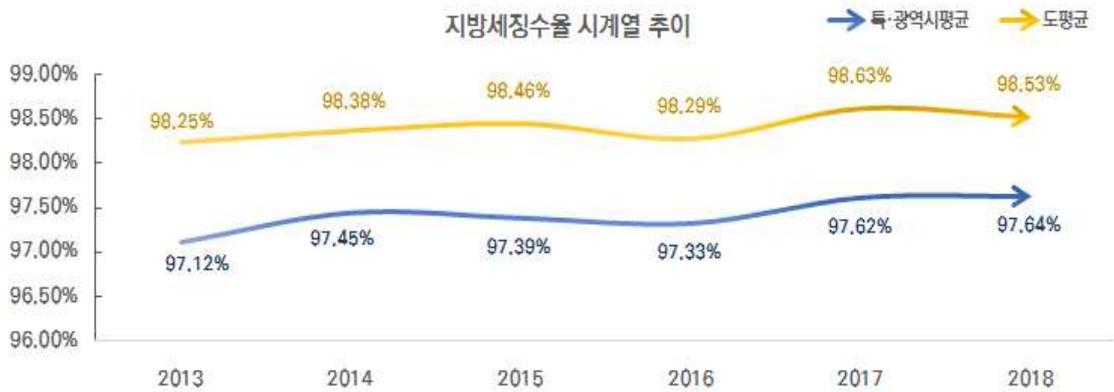
다양하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의 전개

- (경북 예천군) 사례로서 납기 3일전 문자발송, 취약분야 기획 세무조사 활동을 통한 누락세원의 발굴, 성실납세자 추첨을 통한 상품권 제공 등 성실한 지방세 납부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
- (경남 창원군) 군소식지와 지방언론에 지방세체납 일제정리기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고지서 및 독촉장 발송 후 수시로 방문하여 지방세 납부를 독력하는 등 적극적 징수활동을 펴고 있는 사례가 있음
- (강원 속초시) 체납기업 및 개인에 대한 관리와 더불어 정확한 고지서 발송 및 상하반기 일제 정리기간을 두어 지방세징수실적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

| 시계열 추이 분석 |

[표] 지방세징수율 시계열 추이

재정분석지표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지방세징수율	전국평균	96.80%	97.16%	97.22%	97.30%	97.69%	97.80%
	특·광역시평균	97.12%	97.45%	97.39%	97.33%	97.62%	97.64%
	도평균	98.25%	98.38%	98.46%	98.29%	98.63%	98.53%
	시평균	94.97%	95.12%	94.69%	95.16%	95.40%	96.11%
	군평균	94.76%	94.70%	94.38%	95.07%	95.47%	95.88%
	자치구평균	97.62%	97.95%	98.01%	98.29%	98.62%	98.72%



[표] 지방세징수율제고를 시계열 추이

재정분석지표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전국평균	1.0049	1.0037	0.9992	0.9997	1.0027	1.0007
	특·광역시평균	1.0119	1.0034	0.9973	0.9988	1.0023	0.9990
	도평균	1.0035	1.0013	1.0008	0.9984	1.0035	0.9988
	시평균	1.0037	1.0016	0.9945	1.0052	1.0024	1.0009
	군평균	1.0018	0.9997	0.9933	1.0071	1.0044	0.9964
	자치구평균	1.0006	1.0034	0.9965	0.9990	0.9998	1.0011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시계열 추이 분석

- 지방세징수율과 지방세징수율제고율의 시계열 추이를 분석한 결과, 앞서 현황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5년 97.22%→'16년 97.30%→'17년 97.69%→'18년 97.80%로 지방세징수율이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지방세징수율제고율도 전년대비 다소 하락한 점이 있지만 최근 5년 평균 추이 대비해서는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개선방안

- 지방세징수율 제고를 위해 자치단체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방세징수 노력이 필요할 것임
 - 납기 3일전 문자발송, 취약분야 기획 세무조사 활동을 통한 누락세원의 발굴, 성실납세자 추첨을 통한 상품권 제공 등 성실한 지방세 납부 환경 조성
 - 지방언론 및 자치단체 소식지를 활용한 지방세체납 일제정리기간에 대한 적극적 홍보활동
 - 체납기업 및 개인에 대한 관리와 더불어 정확한 고지서 발송 및 상하반기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_지방세

개념

- 지방자치단체의 체납된 지방세의 징수실적과 관리노력 증진을 위하여 세입결산액과 지방세체납누계액의 비율 및 증감률을 측정하는 지표로, 지표값이 낮을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체납액 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다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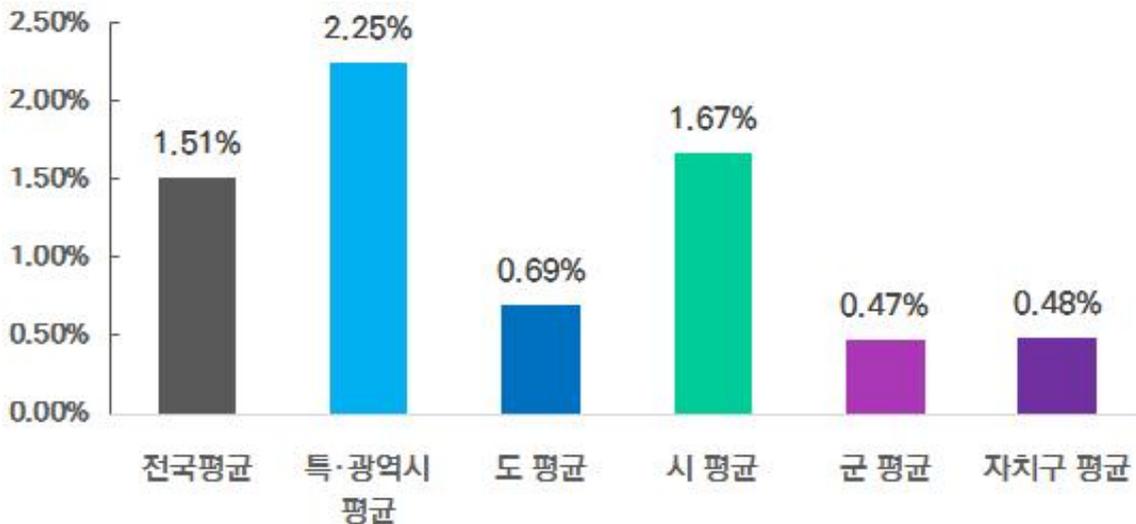
산정

- 체납액관리비율_지방세(%) = (2018년도 지방세체납액 / 2018년도 세입결산액) X 100
 - 체납액증감률_지방세(%) = $\frac{\{2018년도 지방세체납액 - 2017년도 지방세체납액\}}{2017년도 지방세체납액} \times 100$
- ※체납액은 미수납액 (징수결정액 - 실제수납액) 기준으로 산정방식이 변경

| 현황분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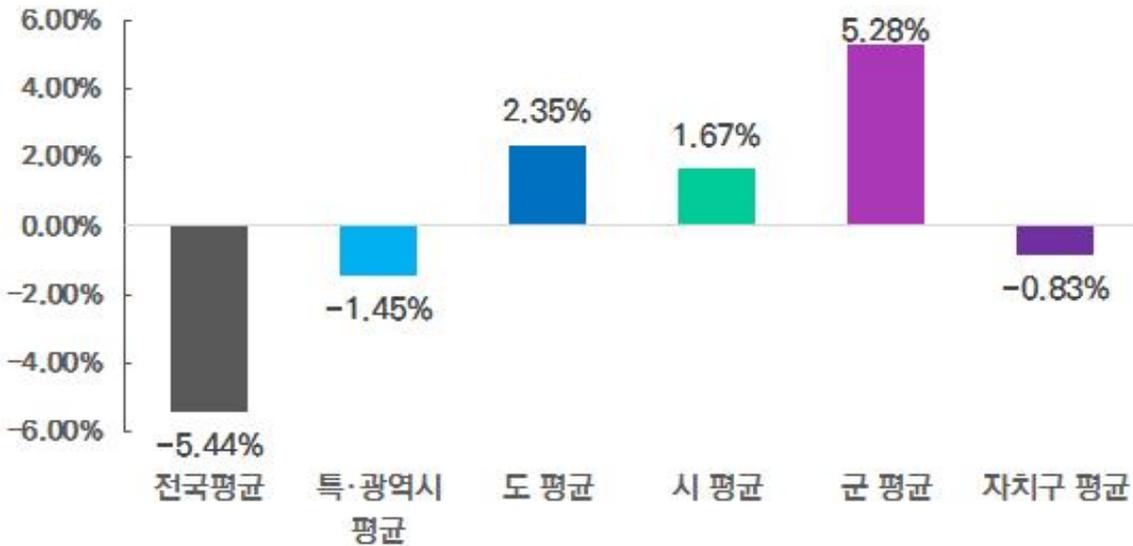
체납액관리비율_지방세

전국평균	특·광역시 평균	도 평균
1.51%	2.25%	0.69%
시 평균	군 평균	자치구 평균
1.67%	0.47%	0.48%



체납액증감률_지방세

전국평균	특·광역시 평균	도 평균
-5.44%	-1.45%	2.35%
시 평균	군 평균	자치구 평균
1.67%	5.28%	-0.83%



체납액관리비율_지방세 분석

- '18년 지방세체납액 분석결과 전국평균은 1.51%로 전년 1.68% 대비 하락하여 세입결산액 대비 지방세체납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지방세체납액규모는 불납결손액을 포함할 경우 '17년 4.8조→'18년 4.5조 규모로 감소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을 제외할 경우 '15년 4.2조→'16년 4.1조→'17년 4.0조→'18년 3.6조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단위: 백만원)

구분	지방세체납액 (미수납액기준: 불납결손포함)	세입결산액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2017	4,817,229	283,421,621	1.70%
2018	4,555,060	302,580,405	1.51%

체납액관리비율_지방세 현황

- 체납액관리비율_지방세는 전국최대(5.05%: 서울 용산구), 전국최소(0.07%: 서울 도봉구)로 나타남
- 체납액관리비율_지방세를 단체·유형별로 살펴보면 특별·광역시가 2.2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시 1.67%, 도 0.69%, 자치구 0.48%, 군 0.47%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 특별·광역시 유형에서 체납액관리비율_지방세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타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방세수의 규모가 큰 만큼 체납 역시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며, 시 유형이 도 유형에 비해 체납액관리비율이 높은 것은 시의 경우 도에 비해 취득세, 재산세 등 상대적으로 체납율이 높은 직접세 위주의 지방세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단위: 백만원)

구분	지방세수입규모	지방세체납액규모	세입결산액
특별·광역시	34,393,848	2,031,833	62,184,639
도	24,105,599	526,757	70,671,463
시	18,547,958	1,588,607	86,020,202
군	2,789,882	221,129	45,055,546
자치구	5,643,201	186,733	38,648,553

체납액관리비율_지방세 주요 사례

지방세 체납징수 총력체계 구축 및 운영

- (서울 도봉구) 지방세 체납 관리 종합계획에 따른 강력한 체납징수 총력체계의 구축·운영을 통해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부동산 및 차량 조기압류, 공매의뢰, 금융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과 같은 적극적 징수노력을 추진

부동산 압류조치 강화 및 불납결손처분

- (전남 장흥군)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조치 등의 조치와 함께 적극적인 불납결손 처분의 진행을 통해 체납규모를 감축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 TF 운영

- (전북 남원시) 체납액 징수를 전담하는 특별징수 및 고액체납자 관리 TF 팀을 운영함으로써 예금압류, 체납자 번호판 영치, 은닉재산 발굴 등 강력한 징수 세무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직원의 체납관리 능력 배양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

체납액증감률_지방세 분석

- 전년대비 지방세체납액의 증감을 의미하는 체납액증감률_지방세의 경우 '17년 -2.41%에서 '18년 -5.44%로 감소하였으며 체납액 규모 역시 '17년 4.8조 규모에서 '18년 4.5조 규모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불납결손액 포함)

(단위: 백만원)

구분	지방세미수납액	지방세징수결정액	지방세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2017	4,817,229	86,300,890	81,483,661	807,158
2018	4,555,060	90,035,550	85,480,490	887,042

체납액증감률_지방세 현황

- 체납액증감률_지방세는 전국최대(56.91%: 서울 금천구), 전국최소(-54.53%: 인천본청)로 나타남
- 체납액증감률_지방세를 단체유형별로 살펴보면, 군이 5.2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도가 2.35%, 시 1.67%, 자치구 -0.83%, 특·광역시 -1.45%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군의 지방세체납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골프장, 리조트 등 관광 관련 기업체의 경영 악화로 인한 고액의 재산세 체납이 해소되고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체납액증감률_지방세 주요 사례

지방세환급금 증가와 기업 실적 악화로 인한 체납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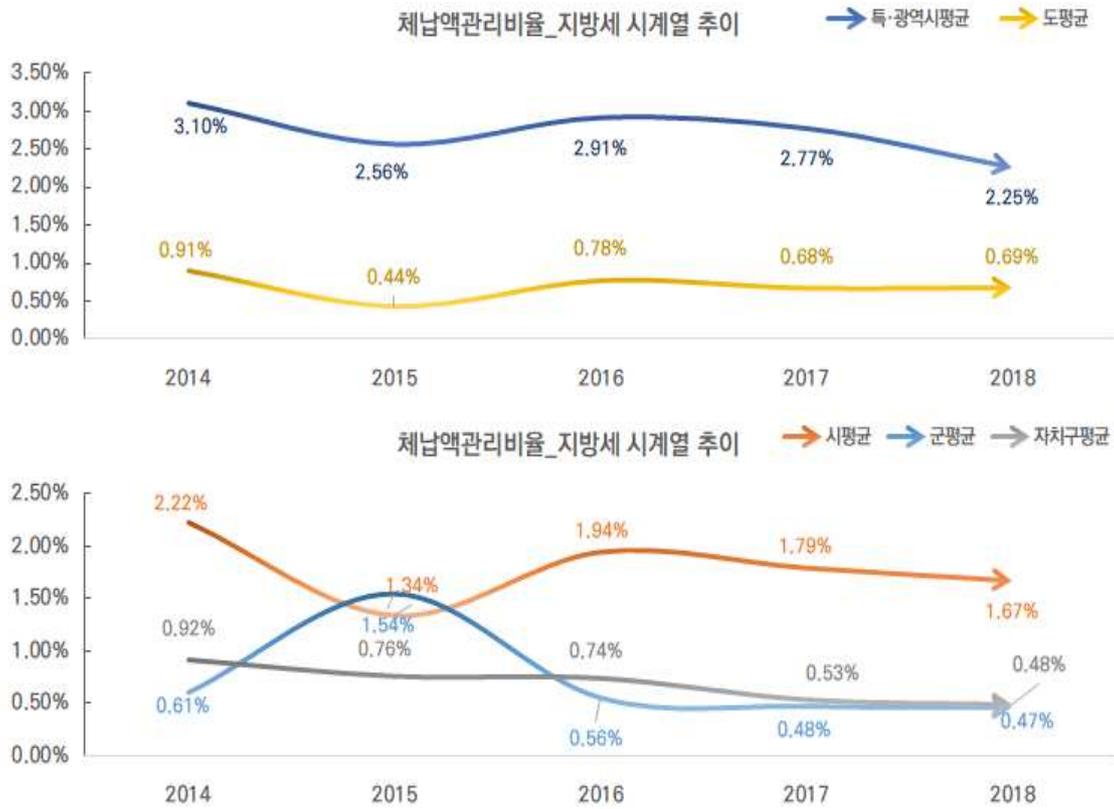
- (경남 남해군) 지방세 관련 소송패소에 따라 기업체에 대한 지방세환급액이 증가하는 등 매년 지방세관련 체납액이 증가한 사례
- (경남 하동군) 지방소득세 체납의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이는 석탄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하동 화력발전소의 실적악화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로 인한 법인분 지방소득세의 체납이 증가한 사례

| 시계열 추이 분석 |

[표] 체납액관리비율_지방세 시계열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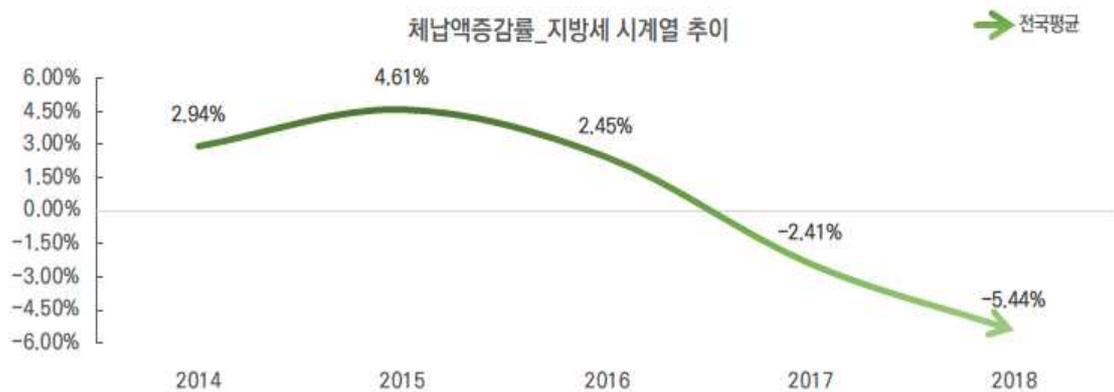
재정분석지표		2014	2015	2016	2017	2018
체납액관리비율 지방세	전국평균	2.11%	1.99%	1.87%	1.70%	1.51%
	특·광역시평균	3.10%	2.56%	2.91%	2.77%	2.25%
	도평균	0.91%	0.44%	0.78%	0.68%	0.69%
	시평균	2.22%	1.34%	1.94%	1.79%	1.67%
	군평균	0.61%	1.54%	0.56%	0.48%	0.47%
	자치구평균	0.92%	0.76%	0.74%	0.53%	0.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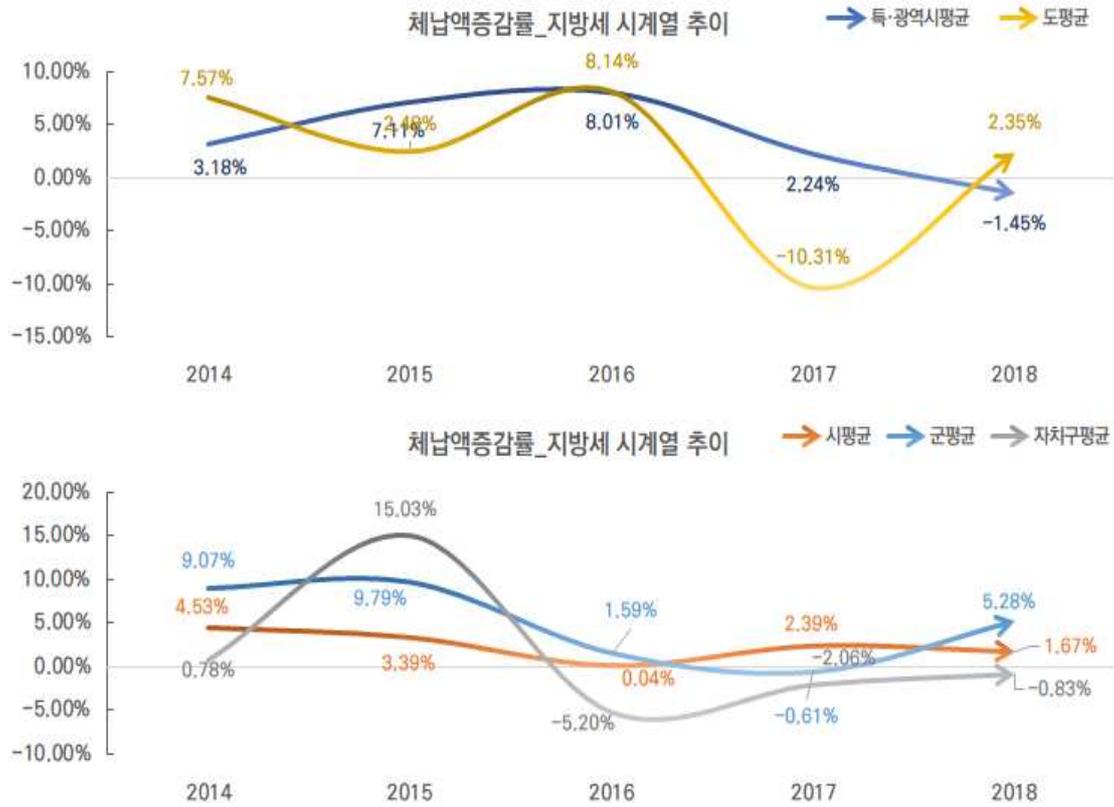




[표] 체납액증감률_지방세 시계열 추이

재정분석지표		2014	2015	2016	2017	2018
체납액증감률 지방세	전국평균	2.94%	4.61%	2.45%	-2.41%	-5.44%
	특·광역시평균	3.18%	7.11%	8.01%	2.24%	-1.45%
	도평균	7.57%	2.48%	8.14%	-10.31%	2.35%
	시평균	4.53%	3.39%	0.04%	2.39%	1.67%
	군평균	9.07%	9.79%	1.59%	-0.61%	5.28%
	자치구평균	0.78%	15.03%	-5.20%	-2.06%	-0.83%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_지방세 시계열 추이 분석

- 지방세체납액의 경우 불납결손액을 포함하여 산정할 경우 '17년 4.8조 규모에서 '18년 4.5조 규모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 불납결손액을 제외하여 산정할 경우 '15년 4.2조→'16년 4.1조→'17년 4.0조 →'18년 3.6조 규모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개선방안

- 양호한 체납액관리실적의 유지를 위해 체납관리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등 지방세체납 관리를 위한 체계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_세외수입

개념

-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를 유도하기 위하여 세입결산액과 세외수입 체납액의 비율 및 증감률을 측정하는 지표로, 체납액관리비율과 증감률이 낮을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체납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다고 판단

산정

○ 체납액관리비율_세외수입(%) = (2018년도 세외수입체납액 / 2018년도 세입결산액) X 100

○ 체납액증감률_세외수입(%) =
 {(2018년도 세외수입체납액 - 2017년도 세외수입체납액) / 2017년도 세외수입체납액} X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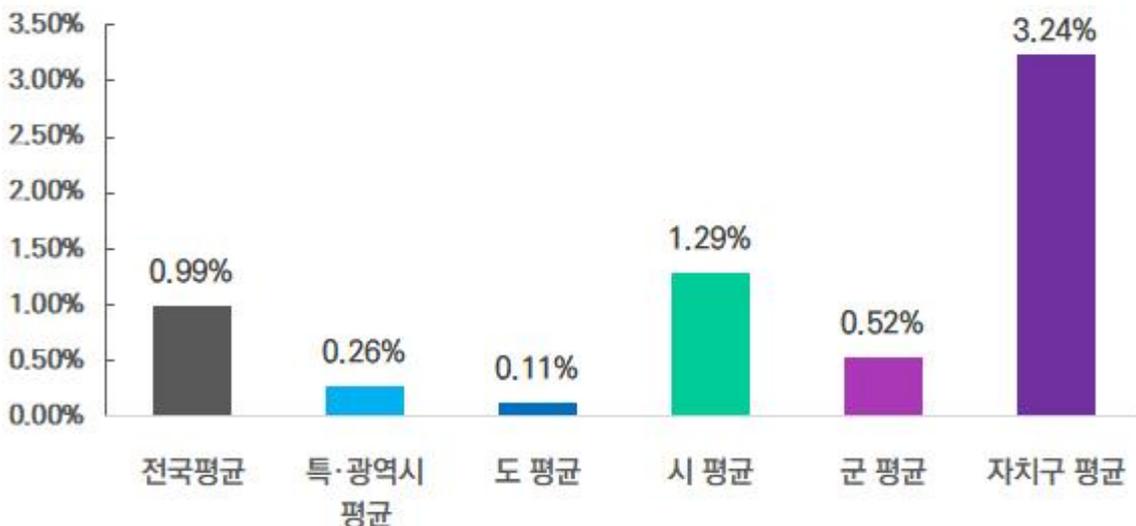
※체납액은 미수납액 (징수결정액 - 실제수납액) 기준으로 산정

※2019년 재정분석부터 납기미도래미징수액은 반영하지 않음

| 현황분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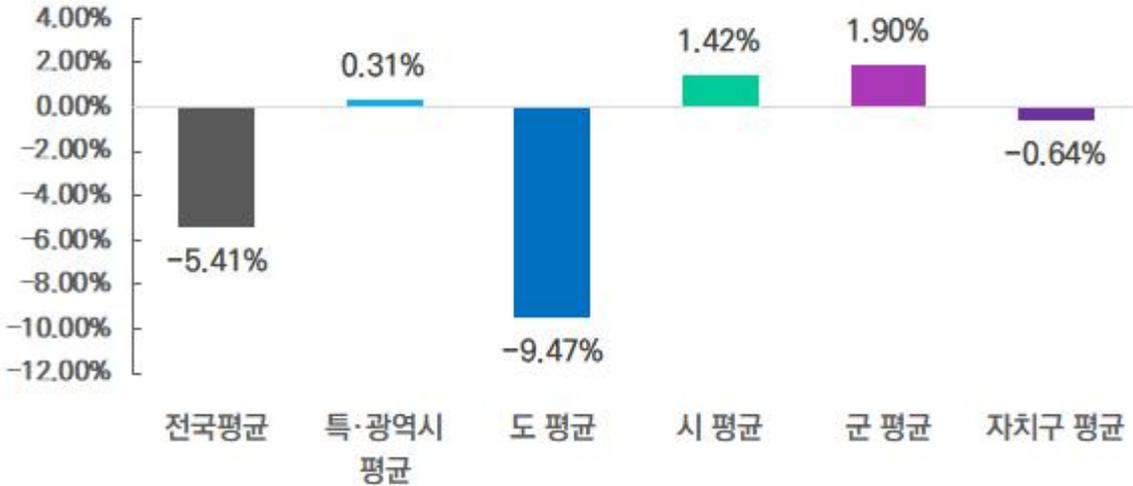
체납액관리비율_세외수입

전국평균	특·광역시 평균	도 평균
0.99%	0.26%	0.11%
시 평균	군 평균	자치구 평균
1.29%	0.52%	3.24%



체납액증감률_세외수입

전국평균	특·광역시 평균	도 평균
-5.41%	0.31%	-9.47%
시 평균	군 평균	자치구 평균
1.42%	1.90%	-0.64%



체납액관리비율_세외수입 분석

- '18년 세외수입체납액 분석결과 전국평균은 0.99%로 전년 1.11% 대비 하락하여 세입결산액 대비 세외수입체납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세외수입체납액규모(일반회계 기준)는 불납결손을 포함하여 산정할 경우 '17년 3.1조 규모에서 '18년 2.9조 규모로 감소하였으며, 불납결손을 제외하여 산정할 경우 '17년 2.87조에서 '18년 2.7조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단위: 백만원)

구분	세외수입체납액 (미수납액기준: 불납결손포함)	세입결산액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2017	3,156,689	283,421,621	1.11%
2018	2,985,994	302,580,405	0.99%

체납액관리비율_세외수입 현황

- 체납액관리비율_세외수입은 전국최대(9.09%: 부산 강서구), 전국최소(0.01%: 전남본청)로 나타남
- 체납액관리비율_세외수입을 단체·유형별로 살펴보면 자치구가 3.2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시 1.29%, 군 0.52%, 특별·광역시 0.26%, 도 0.11%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 기초자치단체의 체납액관리비율_세외수입이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이행강제금에 대한 고액 체납 발생 사례가 많으며, 도시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부담금에 대한 체납이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 특히, 자치구의 경우 불법주정차 과태료, 도로사용료, 시설이용료 등에 대한 체납 규모가 타 유형 자치단체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단위: 백만원)

구분	세외수입징수결정액	세외수입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특별·광역시	2,452,928	2,284,709	9,105
도	1,655,911	1,590,052	4,035
시	5,744,893	4,535,306	90,949
군	1,954,236	1,716,410	19,613
자치구	4,126,714	2,822,237	90,186

체납액관리비율_세외수입 주요 사례

<p>공탁 및 추심제도의 적극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 장수군) OO리조트에 대한 체납징수를 위해 법원 공탁 및 추심을 진행하여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
<p>세외수입 징수 대책단 구성·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북 봉화군) 체납액 징수를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세외수입 징수 대책단을 구성하여 세외수입 종류별로 해당 실과소장 책임하에 세외수입 체납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징수
<p>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체납의 증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서초구) 대부분 폐차나 소유권 이전 시 납부하지 않거나 차량 연식이 오래된 경우 차량초과말소등록으로 폐차 후 수수료 등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로 인한 세외수입 체납이 발생

체납액증감률_세외수입 분석

- 전년대비 세외수입세체납액의 증감을 의미하는 체납액증감률_세외수입의 경우 '17년 -2.76%에서 '18년 -5.41%로 감소하였으며 체납액 규모 역시 '17년 3.1조 규모에서 '18년 2.9조 규모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불납결손액 포함)

(단위: 백만원)

구분	세외수입미수납액	세외수입징수결정액	세외수입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2017	3,156,689	16,262,428	13,105,739	283,645
2018	2,985,994	15,934,711	12,948,717	213,891

체납액증감률_세외수입 현황

- 체납액증감률_세외수입은 전국최대(123.67%: 경남 진주시), 전국최소(-76.85%: 경기 성남시)로 나타남
- 체납액증감률_세외수입을 단체·유형별로 살펴보면, 군이 1.9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시가 1.42%로 나타났으며, 특별·광역시 0.31%, 자치구 -0.64%, 도 -9.47%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 군의 체납증감률_세외수입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일부 군 유형 자치단체에서 '17년도 미이월 사업 예산집행으로 '15년, '16년 세입처리된 국고보조금 미집행분을 감액하여 '17년도 세입으로 편성하여 수납액이 증가한 반면, '18년의 경우 이러한 과정이 없어 전년대비 세외수입체납액 증가로 나타났기 때문임

체납액증감률_세외수입 주요 사례

체납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 **(경기 성남시)** 세외수입 체납관리 체계화를 위해 전국최초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 * 1단계 : 체납실태조사반 운영(4년간 362명 일자리 창출) 실시
 - * 2단계 : 지방세+세외수입 One-Stop 통합징수시스템 구현
 - * 3단계 : 체납통합안내센터(031-729-2680)구축 및 모바일안내 발송 도입

임시세외수입 처리 방식 변경으로 인한 체납액 증가

- **(경남 거창군)** 2017년도 미이월 사업 예산집행으로 2015년, 2016년 세입처리된 국고보조금 미집행분을 감액하여 2017년도 세입으로 편성하여 수납액이 증가한 반면, 2018년의 경우 이러한 과정이 없어 전년대비 세외수입체납액 증가

납기미도래 개발부담금으로 인한 체납 증가

- **(전북 전주시)** 전북개발공사 개발부담이 납기미도래로 체납액으로 산정되어 체납증감률이 높게 나타남

| 시계열 추이 분석 |

[표] 체납액관리비율_세외수입 시계열 추이

재정분석지표		2014	2015	2016	2017	2018
체납액관리비율 세외수입	전국평균	1.54%	1.40%	1.23%	1.11%	0.99%
	특·광역시평균	0.33%	6.44%	0.27%	0.26%	0.25%
	도평균	0.14%	5.05%	0.11%	0.11%	0.11%
	시평균	2.24%	3.68%	1.76%	1.50%	1.29%
	군평균	0.70%	1.39%	0.61%	0.57%	0.52%
	자치구평균	5.32%	0.76%	4.09%	3.61%	3.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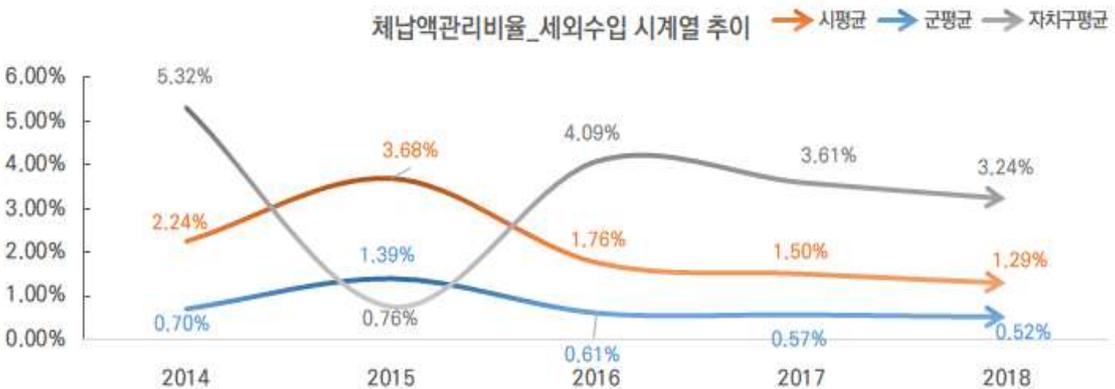


표 | 체납액증감률_세외수입 시계열 추이

재정분석지표		2014	2015	2016	2017	2018
체납액증감률 세외수입	전국평균	-1.06%	0.98%	-4.34%	-2.76%	-5.41%
	특·광역시평균	-3.64%	1.78%	-15.78%	3.75%	0.31%
	도평균	8.42%	0.86%	-3.23%	4.95%	-9.47%
	시평균	5.53%	6.66%	-1.48%	-2.16%	1.42%
	군평균	5.26%	4.49%	-1.60%	8.99%	1.90%
	자치구평균	-4.16%	5.28%	-1.92%	-2.66%	-0.64%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_세외수입 시계열 추이 분석

- 세외수입체납액 경우 불납결손액을 포함하여 산정할 경우 `17년 3.1조 규모에서 `18년 2.9조 규모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 불납결손액을 제외하여 산정할 경우 `15년 3.09조→`16년 2.94조→`17년 2.87조 →`18년 2.7조 규모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개선방안

-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 추진 중에 있는 세외수입부과담당 부서와 징수담당 부서의 협업 체계 구축을 통한 세외수입 체납 징수 등 시책의 적극적 추진의 지속이 필요
- (2018년 전국 지방재정우수사례) 경기 성남시 사례인 체납관리 체계화를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등의 방안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세외수입 징수실적 증진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개념

- 세출결산대비 지방보조금의 비율로 지방보조금으로 인한 재정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지표값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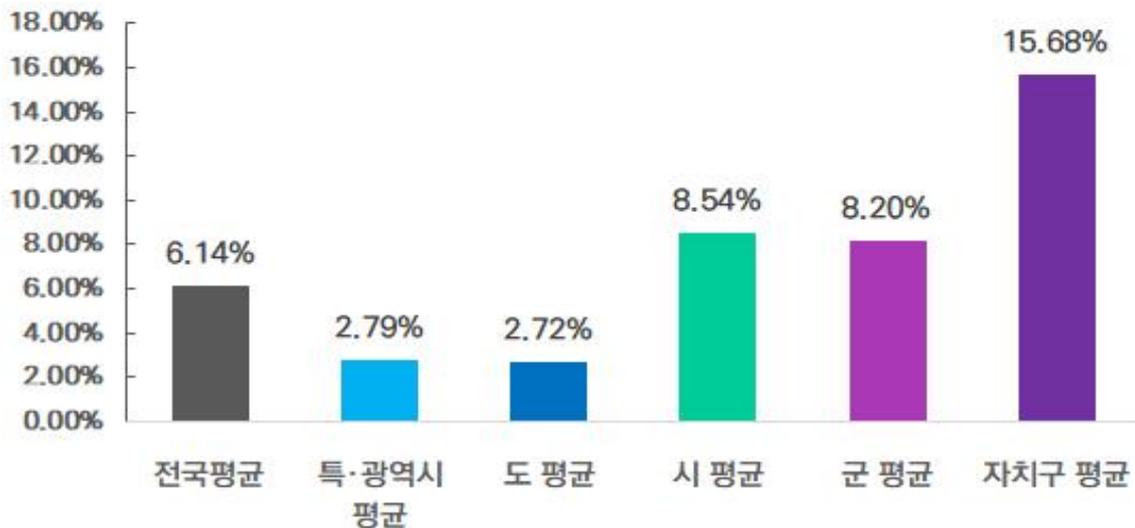
산정

- 지방보조금비율(%) =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X 100
- 지방보조금증감률(%) = $\{(2018\text{년도 지방보조금결산액} - 2017\text{년도 지방보조금결산액}) / 2017\text{년도 지방보조금결산액}\} \times 100$

| 현황분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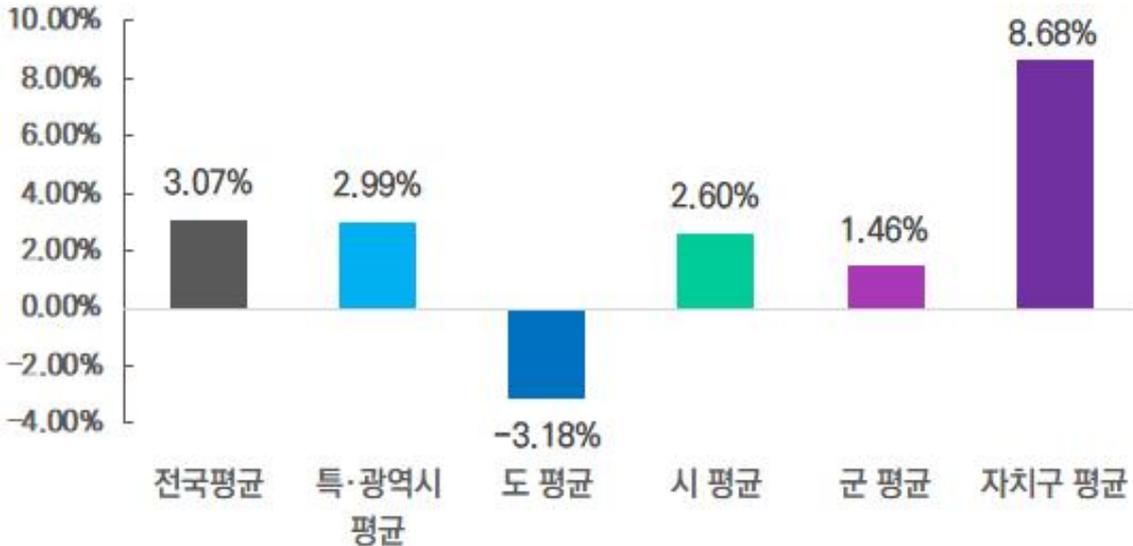
지방보조금비율

전국평균	특·광역시 평균	도 평균
6.14%	2.79%	2.72%
시 평균	군 평균	자치구 평균
8.54%	8.20%	15.68%



지방보조금증감률

전국평균	3.07%	특·광역시 평균	2.99%	도 평균	-3.18%
시 평균	2.60%	군 평균	1.46%	자치구 평균	8.68%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분석

- '18년 지방보조금비율 분석결과 전국평균은 6.14%로 전년 6.31%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전년 -1.62%로 감소추이를 보였던 지방보조금증감률은 3.07%로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지방보조금규모가 '17년 16조 규모에서 '18년 17조 규모로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특히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가 전년대비 16.61% 증가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도 전년대비 10.74% 증가한 것이 지방보조금증감률이 상승한 주된 원인인 것으로 파악됨
 - 민간자본사업부조의 경우 '17년 2.2조에서 '18년 1.5조로 감소하여 지방보조금 중 유일하게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단위: 백만원)

구분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2017	3,361,495	363,151	627,004	5,297,572	4,829,412	2,226,311
2018	3,722,498	423,455	668,537	5,526,293	5,299,322	1,578,304
증감률(%)	10.74%	16.61%	6.62%	4.32%	9.73%	-29.11%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현황

- 지방보조금비율은 전국최대(29.91%: 광주 광산구), 전국최소(0.86%: 경기본청)로 나타남
 - 지방보조금비율의 경우 단체·유형별로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데, 자치구가 15.68%로 가장 높고, 시 8.54%, 군 8.20%, 특별·광역시 2.79%, 도가 2.72%로 낮은 지방보조금비율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자치구의 지방보조금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사회복지관련 보조 및 사회단체보조가 세출결산 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 광역자치단체인 특별·광역시와 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보조금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직접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시군구의 지방보조사업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 지방보조금증감률은 전국최대(57.63%: 서울 강남구), 전국최소(-59.45%: 경기 용인시)로 나타남
 - 지방보조금증감률을 단체유형별로 살펴보면, 도가 -3.18%로 가장 낮고, 군 1.46%, 시 2.60%, 특별·광역시 2.99%, 자치구가 8.68%로 나타남
- 지방보조금의 전년대비 주요 증가사유는 아동지원, 육아지원 등 저출산 대책을 위한 보조금과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환경 관련 보조금이 주된 사유인 것으로 파악됨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주요 사례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의 증가

- (서울 강남구)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가 전년대비 크게 증가 (아이행복도우미 지원, 야간 소아응급 환자 치료 지원 등 운영비 보조의 증가)

환경관련 보조금 증가

- (경북 포항시) 노후운행경유차 폐차 지원 등 미세먼지 대책으로 인한 환경 관령 보조금 증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강화를 통한 보조금 관리

- (경기 용인시)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제 및 부서별 한도액을 설정하여 지방보조금 편성 시 전년도 예산 수준에서 동결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보조금 지원액 사전관리와,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를 통한 사후관리 철저

부서별 한도액 설정·관리를 통한 보조사업 관리

- (강원 평창군) 올림픽 이후 부서별 한도액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등 지방보조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고, 성과평가를 통하여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사업은 전면 재검토하여 축소·폐지 하는 등 지방보조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

| 시계열 추이 분석 |

| 표 | 지방보조금비율 시계열 추이

재정분석지표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지방보조금비율	전국평균	8.37%	8.54%	7.86%	7.55%	6.31%	6.14%
	특·광역시평균	3.13%	4.04%	3.51%	3.81%	3.01%	2.79%
	도평균	3.66%	3.78%	3.48%	3.64%	3.00%	2.72%
	시평균	12.83%	12.87%	11.86%	11.15%	8.89%	8.54%
	군평균	13.11%	12.93%	12.10%	11.69%	8.56%	8.20%
	자치구평균	18.21%	18.99%	17.95%	16.63%	15.60%	15.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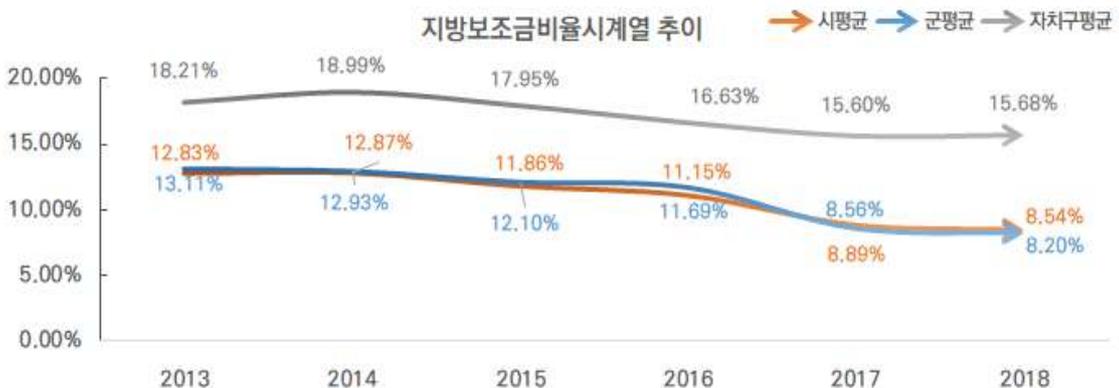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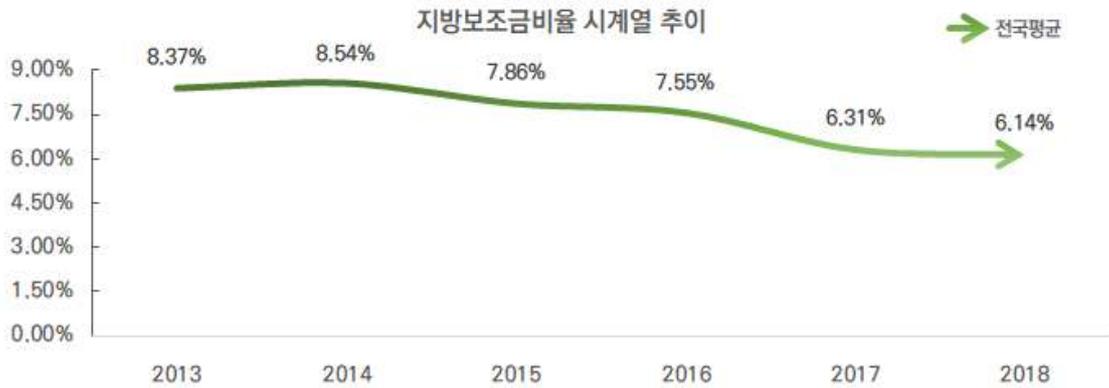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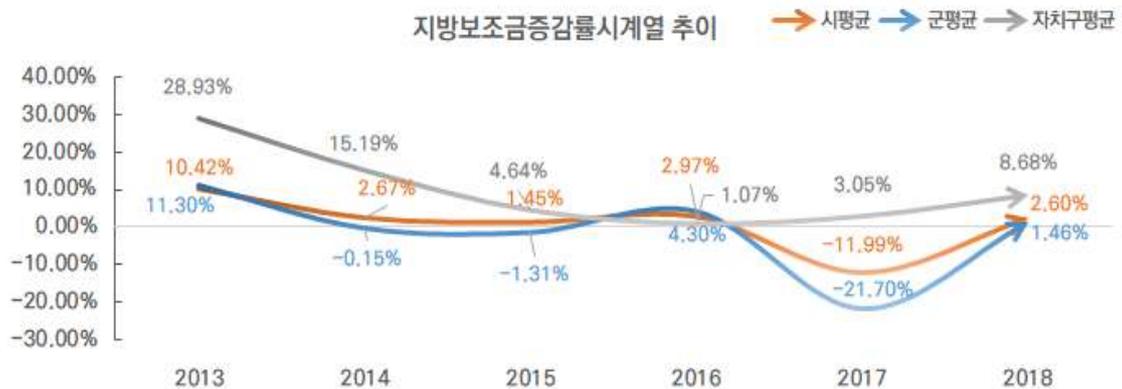


표 | 지방보조금증감률 시계열 추이

재정분석지표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지방보조금증감률	전국평균	9.86%	6.09%	0.29%	3.71%	-10.62%	3.07%
	특·광역시평균	4.73%	1.73%	-1.31%	16.00%	-13.48%	2.99%
	도평균	7.12%	2.69%	2.81%	13.77%	-13.06%	-3.18%
	시평균	10.42%	2.67%	1.45%	2.97%	-11.99%	2.60%
	군평균	11.30%	-0.15%	-1.31%	4.30%	-21.70%	1.46%
	자치구평균	28.93%	15.19%	4.64%	1.07%	3.05%	8.68%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시계열 추이 분석

- 지방보조금의 시계열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지방보조금규모는 '15년 18.0조→'16년 18.6조로 증가하였다가 17년 16.7조로 감소한 이후 '18년 17조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17년 지방보조금이 감소하였던 것은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이전재원과 자체재원으로 분리되면서 전년에 비해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임
- '18년의 경우에는 전년대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가 증가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 역시 전년대비 증가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백만원)

구 분	합계	민간경상 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	민간행사 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 사업보조	민간자본 사업보조
2015	18,023,370	3,005,709	249,177	601,721	4,938,685	4,634,482	4,593,597
2016	18,690,320	3,042,412	319,549	603,119	5,059,755	4,731,264	4,934,179
2017	16,704,948	3,361,495	363,151	627,004	5,297,572	4,829,412	2,226,311
2018	17,218,411	3,722,498	423,455	668,537	5,526,293	5,299,322	1,578,304

지방보조금 주요 증가 사유

- 아동지원, 육아지원 등 저출산 대책을 위한 보조금과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환경 관련 보조금 증가로 인한 보조금 지출 증가가 주요 원인
- **(저출산 시책)** 아이행복도우미지원, 야간 소아응급환자 진료 지원 등 저출산 대책
- **(환경보호)** 노후운행 경유차 폐차지원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개념

- 세출결산액에 대한 출자출연전출금의 비율로 출자출연전출금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지표값이 높을수록 출자출연전출금으로 인한 재정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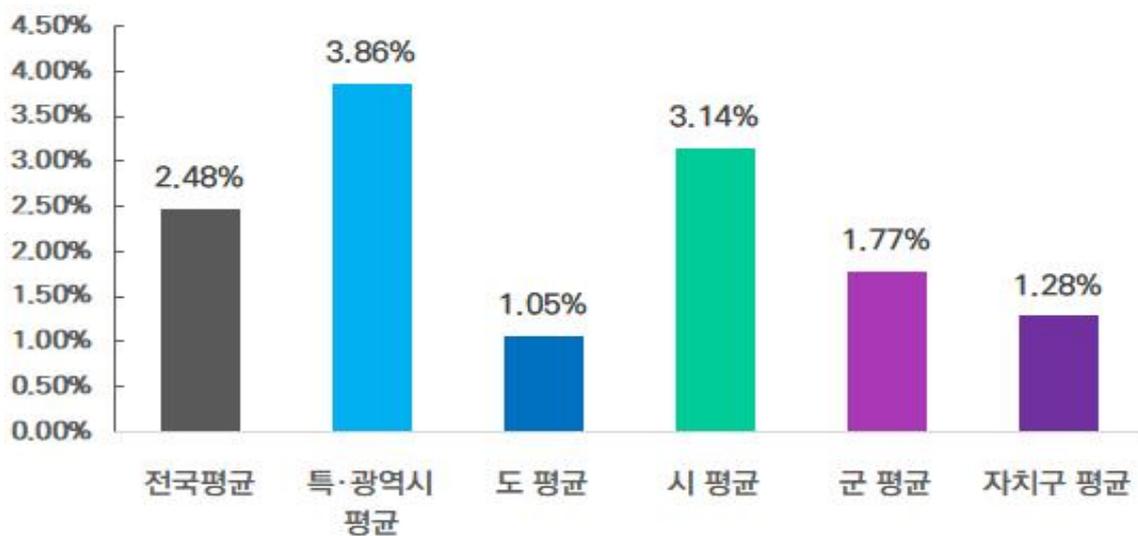
산정

- 출자출연전출금비율(%) =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X 100
-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 $\{(2018\text{년도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2017\text{년도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2017\text{년도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times 100$

| 현황분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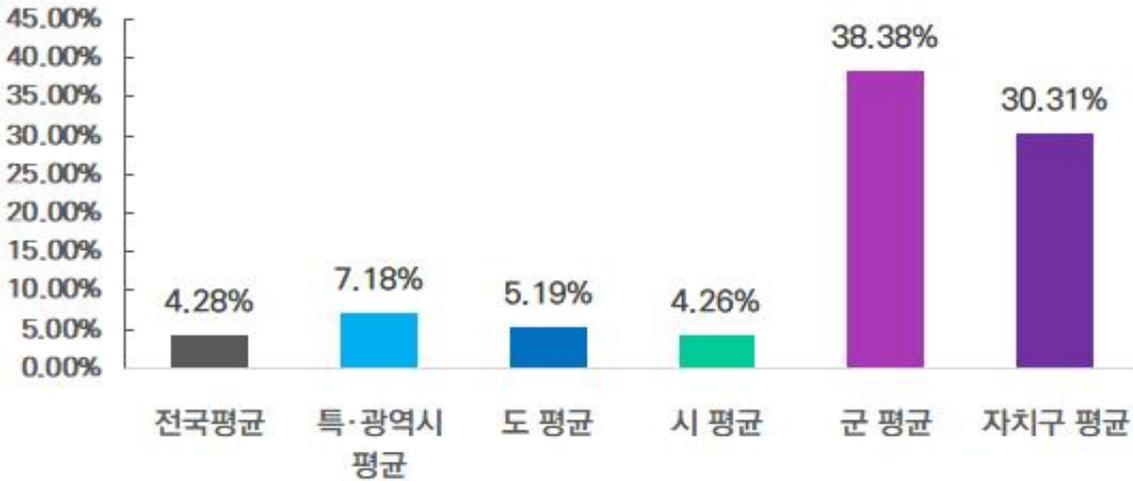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전국평균	특·광역시 평균	도 평균
2.48%	3.86%	1.05%
시 평균	군 평균	자치구 평균
3.14%	1.77%	1.28%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전국평균	4.28%	특·광역시 평균	7.18%	도 평균	5.19%
시 평균	4.26%	군 평균	38.38%	자치구 평균	30.31%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분석

- '18년 출자출연전출금비율 분석결과 전국평균은 2.48%로 전년 2.52%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전년대비 출자출연전출금의 증감을 의미하는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이 4.28%로 나타나 전년 10.10% 대비 증가폭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남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출자출연전출금비율(%)	2.41%	2.65%	2.48%	2.52%	2.48%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7.46%	19.34%	0.64%	10.10%	4.28%

- 공기업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서 나뉘어 분리되는 자치단체의 경우 새로이 편성되는 특별회계에 대한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이 포함되어 지표값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단위: 백만원)

구분	출연금	출자금	전출금	공기업자본전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
2017	2,673,203	540,023	1,956,950	663,349	516,734	1,328,389
2018	2,899,212	512,599	2,123,605	606,408	566,324	1,298,968
증감률(%)	8.45%	-5.08%	8.52%	-8.58%	9.60%	-2.21%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현황

-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전국최대(9.10%: 경기 광주시), 전국최소(0.02%: 대구 동구)로 나타남
 - 자치구 유형 중 20개 자치구(대전 유성, 대전 서, 대전 대덕, 대전 중, 대전 동, 부산 해운대, 부산 사상, 부산 남, 부산 연제, 부산 수영, 부산 사하, 부산 동래, 부산 동, 부산 북, 부산 서, 부산 영도, 대구 북, 대구 남, 울산 동)와 군 유형 중 전남 무안군은 출자출연전출금이 없음
- 출자출연전출금비율의 경우 특별·광역시 3.8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시 3.14%, 군 1.77%, 자치구 1.28%, 도 1.05%로 낮은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수준을 보이고 있음
 - 특별·광역시의 출자출연전출금비율이 높은 것은 타 유형 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출자금과 전출금의 규모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단위: 백만원)

구분	출연금	출자금	전출금	공기업자본전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
특별·광역시	987,437	408,759	891,302	531,804	56,846	305,269
도	860,558	44,027	21,296	8,846	31,621	47,328
시	739,050	56,929	697,063	35,743	376,519	678,336
군	216,997	2,763	101,114	16,853	101,336	268,033
자치구	95,168	120	412,828	13,160	-	-

-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은 전국최대(1,495.57%: 인천 계양구), 전국최소(-99.63%: 부산 남구)로 나타남
 -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을 단체·유형별로 살펴보면 군이 38.3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자치구 30.31%, 특별·광역시 7.18%, 도 5.19%, 시 4.26%인 것으로 나타남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주요 사례

군민장학회, 문화예술회관진흥재단 등에 대한 출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 괴산군) 재단법인 괴산군 군민장학회, 재단법인 괴산군 문화예술체육진흥재단에 대한 출연으로 인한 출연금의 증가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의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남 함평군)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이 포함되어 발생하는 전출금 증가사례로 공기업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서 나뉘어져 새로이 편성된 부분이 전출금 증가로 반영됨

| 시계열 추이 분석 |

[표]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시계열 추이

재정분석지표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전국평균	2.66%	2.41%	2.65%	2.48%	2.52%	2.48%
	특·광역시평균	4.29%	3.86%	4.10%	3.44%	3.93%	3.86%
	도평균	1.13%	1.25%	1.70%	1.36%	1.05%	1.05%
	시평균	2.81%	3.03%	3.01%	3.12%	3.38%	3.14%
	군평균	1.62%	1.62%	1.88%	1.77%	1.70%	1.77%
	자치구평균	1.15%	1.17%	1.18%	1.26%	1.26%	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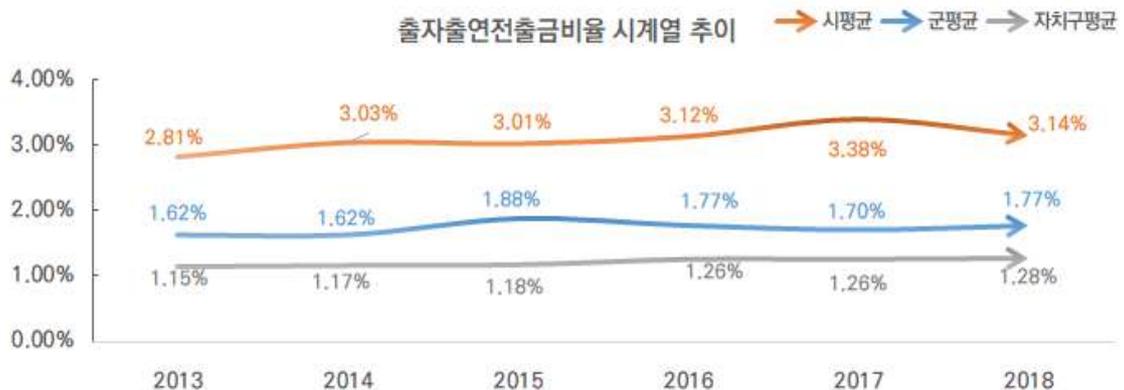


표 |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시계열 추이

재정분석지표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전국평균	8.94%	-7.46%	19.34%	0.64%	10.10%	4.28%
	특·광역시평균	19.97%	-3.25%	18.24%	-8.62%	26.19%	7.18%
	도평균	-1.43%	16.76%	54.07%	-13.47%	-3.32%	5.19%
	시평균	21.42%	11.01%	19.60%	30.28%	46.89%	4.26%
	군평균	30.70%	20.99%	200.51%	28.31%	98.00%	38.38%
	자치구평균	5298.76%	1371.49%	330.09%	2167.85%	812.13%	30.31%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시계열 추이 분석

- 출자출연전출금의 시계열 추이를 분석한 결과, 출자출연전출금규모는 '15년 6.9조→'16년 6.9조→'17년 7.6조→'18년 8.0조 규모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15년 이후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과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이 출자출연전출금 산정에 포함된 이후 꾸준히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
 - 특히,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서 일반회계 또는 기타특별회계로 운영하던 상·하수도 사업을 공기업특별회계로 분리하면서 신규자본전출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출자출연전출금 지출이 증가하고 있음
 - 이밖에 신규 장학재단 설립, 문화·예술 진흥재단 설립 등에 따른 출연금 증가와 자치구의 경우 신규 시설공단설립에 따른 신규 출자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주된 출자출연전출금 증가의 사유인 것으로 파악됨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출연금	출자금	전출금	공사공단 자본전출	공기업특별 경상전출	공기업특별 자본전출
2015	6,929,981	2,303,465	623,373	1,648,410	823,196	386,876	1,144,658
2016	6,974,472	2,454,168	441,699	1,672,223	595,140	583,079	1,228,161
2017	7,678,648	2,673,203	540,023	1,956,950	663,348	516,733	1,328,388
2018	8,007,118	2,899,212	512,599	2,123,605	606,408	566,324	1,298,968

출자출연전출금 증가 사유

- 신규 시설공단 설립 및 장학재단, 문화예술 진흥 재단 설립으로 인한 추가 출자출연의 경우 규모 면에서 작지만 매년 꾸준히 출자출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자치단체에 지속적 재정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출자출연 관리가 필요할 것임

지방의회경비절감률

개념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경비에 대한 절감 노력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의회경비 기준액 대비 결산액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로 지표값이 높을수록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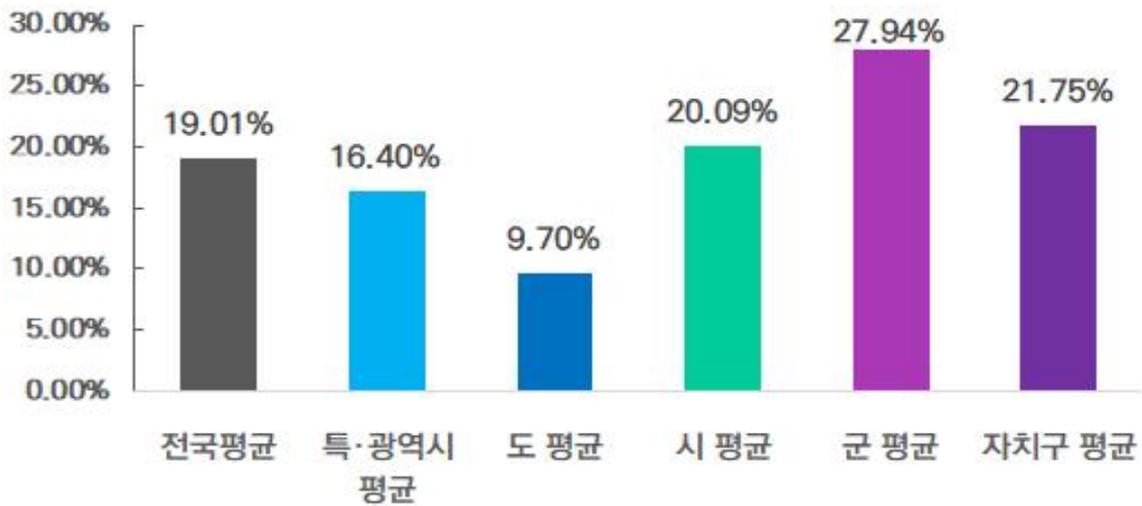
산정

- 지방의회경비절감률(%) = 100 - {(지방의회경비결산액 / 지방의회경비기준액) X 100}

| 현황분석 |

지방의회경비절감률

전국평균	특·광역시 평균	도 평균
19.01%	16.40%	9.70%
시 평균	군 평균	자치구 평균
20.09%	27.94%	21.75%



지방의회경비절감률 분석

- '18년 지방의회경비절감률 분석결과 전국평균은 19.01%로 전년 8.67%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지방의회경비결산액 증가폭이 기준액 증가폭 대비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 특히, 지방의회경비기준액의 경우 산정방식이 지난 3년 간 지방의회경비 예산액 평균 기준으로 변경되어 기준액의 상승폭이 전년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됨

(단위: 백만원)

구 분	지방의회경비기준액	지방의회경비지출액		
		의원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원운영업무추진비
2017	50,070	8,806 (7,684)	19,873	18,170
2018	62,925	9,294	22,457	19,155

※'17년 지방의회경비지출액 산정 시 "예외대상으로 편성되어 집행된 국외여비"를 제외하여 지표값을 산정하였으나, '18년부터는 예외대상 국외여비를 제외하지 아니하고 지방의회경비지출액을 산정함
 ※'17년 의원국외여비 지출액의 경우 예외대상으로 편성되어 집행된 국외여비(1,121백만원)를 제외하면 7,684백만원 규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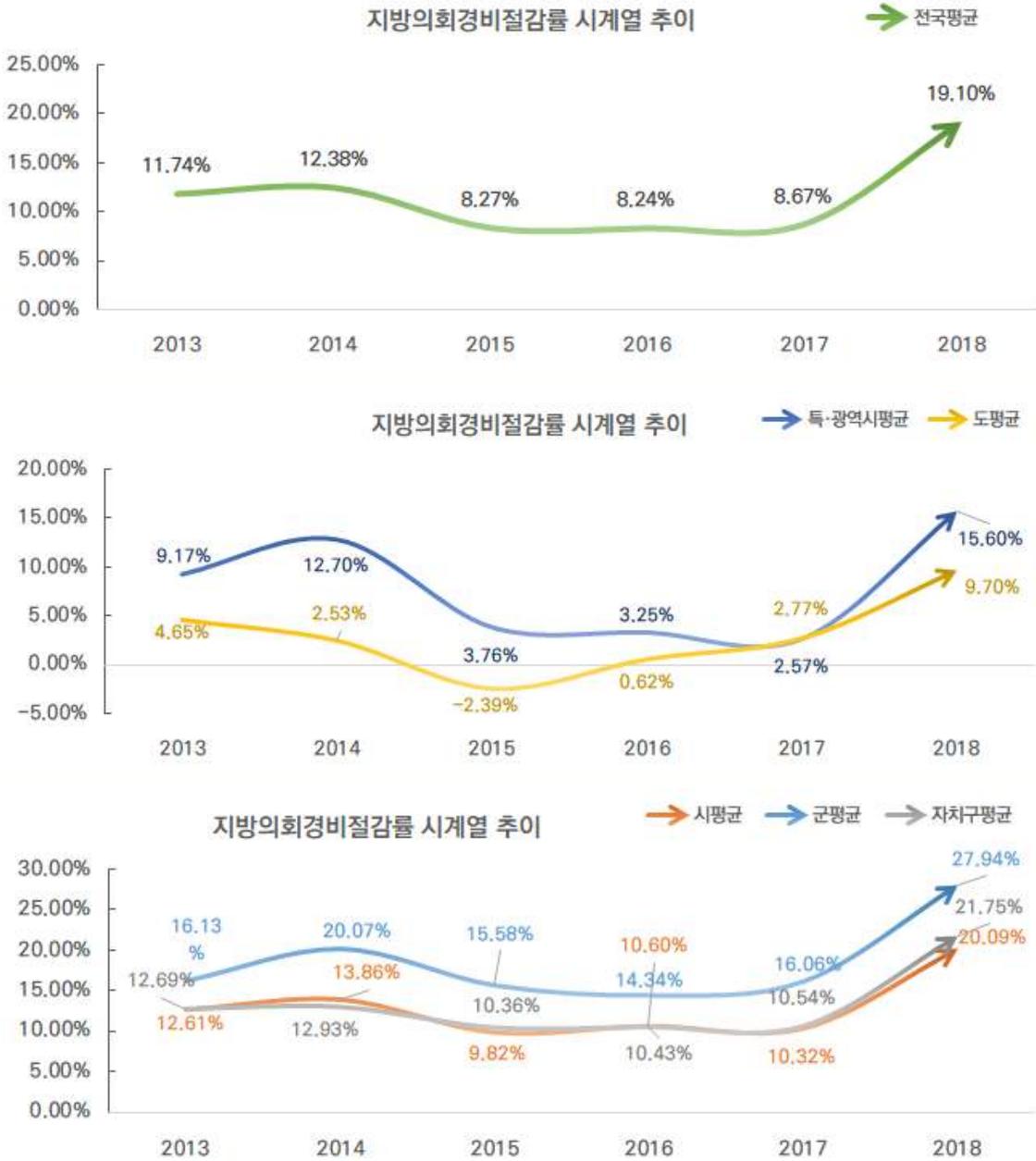
지방의회경비절감률 현황

- 지방의회경비절감률은 전국최대(61.09%: 충북 진천군), 전국최소(-4.06%: 경기 안양시)로 나타남
 - 지방의회경비절감률을 단체·유형별로 살펴보면, 군이 27.94%, 자치구 21.75%, 시 20.09%, 특별·광역시 16.40%, 도가 9.70%로 나타남
 -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 경우 지방의회경비절감률이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의회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의회경비 절감 시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임

| 시계열 추이 분석 |

[표] 지방의회경비절감률 시계열 추이

재정분석지표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지방의회경비절감률	전국평균	11.74%	12.38%	8.27%	8.24%	8.67%	19.10%
	특·광역시평균	9.17%	12.70%	3.76%	3.25%	2.57%	15.60%
	도평균	4.65%	2.53%	-2.39%	0.62%	2.77%	9.70%
	시평균	12.61%	13.86%	9.82%	10.60%	10.32%	20.09%
	군평균	16.13%	20.07%	15.58%	14.34%	16.06%	27.94%
	자치구평균	12.69%	12.93%	10.36%	10.43%	10.54%	21.75%



지방의회경비절감 주요 사례

예산 편성 시 유보액 설정 등을 통한 의회경비 절감 시책 추진

- 지방의회경비 절감을 위해 예산편성 시 유보액을 설정하여 절감하여 편성함은 물론, 지방의회 차원에서 경비 절감을 위해 국외연수를 지양하는 등 의회경비절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 **(의회경비동결)** 의회차원에서 의회경비 동결방침을 정하는 등 적극적인 절감노력을 경주
- **(유보액 설정)** 기준액 대비 10% 유보액을 설정하여 예산을 편성
- **(의원연수자제)** 경비절감 차원에서 국외연수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기 편성된 예산도 추경과정에서 전액 삭감

업무추진비절감률

개념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절감 노력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기준액 대비 결산액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로 지표값이 높을수록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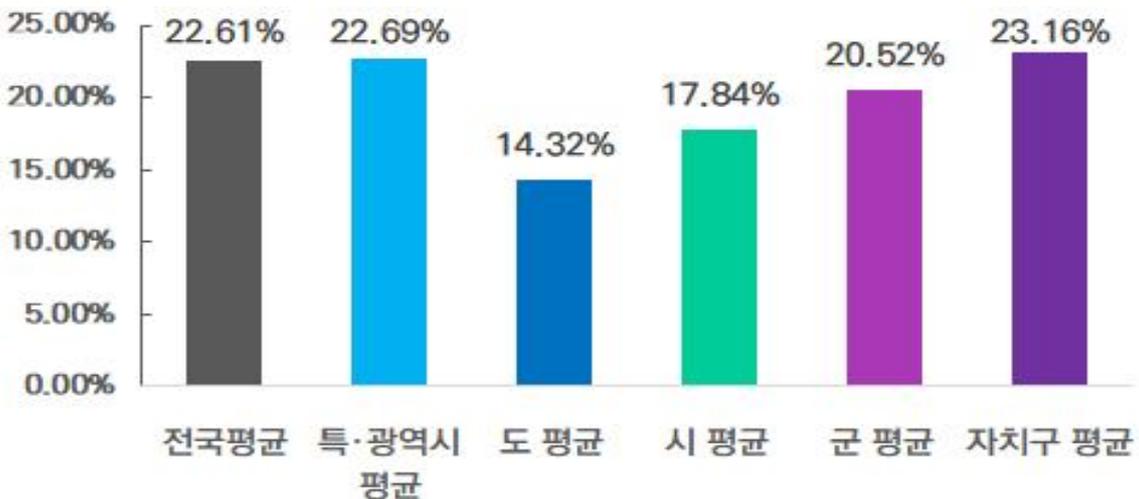
- 업무추진비절감률(%) = $100 - \{(\text{업무추진비결산액} / \text{업무추진비기준액}) \times 100\}$

※ 집행부 업무추진비 기준액 2개 과목: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현황분석 |

업무추진비절감률

전국평균	특·광역시 평균	도 평균
22.61%	22.69%	14.32%
시 평균	군 평균	자치구 평균
17.84%	20.52%	23.16%



업무추진비절감률 분석

- '18년 업무추진비절감률 분석결과 전국평균은 22.61%로 전년 19.65%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업무추진비기준액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기준액이 16.39%, 시책추진업무추진비기준액이 0.47% 증가한 반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지출액은 1.70%, 시책추진업무추진비지출액은 2.28%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단위: 백만원)

구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출액	증감률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지출액	증감률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기준액	증감률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준액	증감률 (%)
2017	63,113	-	107,382	-	69,566	-	142,635	-
2018	64,187	1.70%	109,830	2.28%	80,969	16.39%	143,312	0.47%

업무추진비절감률 현황

- 업무추진비절감률은 전국최대(80.03%: 부산 기장군), 전국최소(-1.88%: 전남 광양시)로 나타남
- 업무추진비절감률을 단체유형별로 살펴보면, 자치구가 23.1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특별·광역시 22.69%, 군 20.52%, 시 17.84%, 도 14.32%의 업무추진비절감률을 보이고 있음

| 시계열 추이 분석 |

[표] 업무추진비절감률 시계열 추이

재정분석지표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업무추진비절감률	전국평균	20.74%	21.05%	19.00%	20.28%	19.65%	22.61%
	특·광역시평균	18.40%	19.05%	17.76%	17.04%	17.74%	22.69%
	도평균	13.62%	13.91%	10.45%	12.63%	13.99%	14.32%
	시평균	12.27%	14.04%	11.53%	14.18%	14.83%	17.84%
	군평균	10.52%	11.52%	9.41%	13.89%	18.11%	20.52%
	자치구평균	26.26%	27.71%	26.17%	25.61%	22.02%	23.16%



업무추진비절감률 주요 사례

단체장의 솔선수범 및 유보액 설정을 통한 업무추진비절감

- (부산 기장군) 단체장의 솔선수범 및 전 부서의 업무추진비 절감을 위한 노력
- (경기 안성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기준액 대비 70% 수준 편성을 통해 업무추진비를 절감
- (경기 부천시) 전부서가 불필요한 업무추진비 지출을 자제하고 실질적인 간담회 개최 및 토론 문화 형성을 통해 업무추진비 절약에 적극 참여

4. 자치단체 유형별 분석 결과

가. 접근 방향

-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유사단체 간 벤치마킹 및 비교분석을 통한 상호학습 등을 위해 기초자치단체를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유형화함
- 현행 자치단체 유형화 방식의 문제점 개선과 함께 유형화 기준으로서 정태적 변수인 인구, 재정력지수(재정자립도), 세출결산규모, 노령인구비율, 사회복지비비율 외에 동태적 변수인 인구증감률을 포함
- 유형화 기준에 해당하는 변수들의 Z-score를 구한 후, 표준화점수의 가중 평균값에 따라 유형화하는 방법을 적용함

나. 자치단체 유형구분

1) 유형화 기준

- 자치단체 유형화는 구분의 기준이 되는 지표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기준지표의 선정이 매우 중요함
- 유형화 기준지표의 수는 적게는 하나에서부터 많게는 10개가 넘는 지표를 종합화하는 경우 등 매우 다양함
- 2009년 재정분석에서는 시와 군의 경우 인구규모 및 재정력지수에 의해 각각 3개와 4개로 유형화하였고,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로 구분하고 재정자립도에 의해 2개씩 나누어 4개로 유형화하였음
- 2010년 및 2011년 연구에서는 인구규모와 재정력지표(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가 정태적 지표임을 감안하여 자치단체의 발전성 및 성장성을 반영할 수 있는 동태적 지표(인구증감률)를 추가하여 시·군의 유형화에 적용함
 - 다만, 자치구는 인구증감률과 인구규모가 자치단체의 재정특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2009년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였음
- 2012년 이후의 연구에서는 재정규모 반영에 대한 요구가 있어 시·군의 경우 2011년 유형화기준(인구, 인구증감률, 재정력지수)에 예산규모를 추가함
- 2018년 연구에서는 2017년의 유형화 기준(인구, 인구증감률, 재정력지수(자치구의 경우

재정자립도), 재정규모)에 지방세수입규모, 예산규모를 적용하여 기초자치단체를 유형화 하였음

- 2019년 연구에서는 2018년 유형화 기준을 단순화하고 자치단체 현안 사항인 자치단체 사회복지비 관련 지표를 반영하여 인구, 인구증감률, 노령인구비율, 재정력지수(자치구의 경우 재정자립도), 세출결산규모, 사회복지비비율을 적용하여 기초자치단체를 유형화 하였음

2) 유형화 방법

- 2019년 연구의 유형화 방법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자치구의 경우 2018년 연구에서와 같이 6개 지표의 표준화지수 값(z-score)을 구한 다음, 6개 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한 재정분석 유형화 종합지수 값에 따라 유형화함
 - 기준지표 가중치는 인구규모 35%, 인구증감률 10%, 노령인구비율 5%, 재정력지수(재정자립도) 35%, 세출결산규모 10%, 사회복지비비율 5%의 가중치를 부여함
 - 시와 군, 자치구를 분리하여 표준화지수 값을 구함
 - 여기에 지표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유형화 종합지수를 도출하여 유형을 구분함
 - 단, 50만 이상 시의 경우 특례적용 등이 있으므로 종합지수 값에 관계없이 하나의 유형으로 구분함(시-1 유형)

표 | 시·군·자치구 유형화 기준 및 가중치

구분	유형화 기준	가중치
인구현황 (50%)	인구규모 (2018년 말 기준)	35%
	인구증감률(전년대비 증감률)	10%
	노령인구비율 (2018년 말 기준)	5%
재정현황 (50%)	재정력지수(자치구: 재정자립도) 결산기준 3년 평균	35%
	세출결산규모 (일반회계 기준)	10%
	사회복지비비율 (2018년 말 기준)	5%

- 가중치에 의한 종합점수 방법은 여섯 가지 기준지표의 가중평균에 의해 유형화하므로 하나의 지표값에 의해 유형이 전혀 다르게 구분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자치구는 종전과 같이 특별시와 광역시를 구분하여 특별시 2개, 광역시 2개로 유형화하였음

표 | 시·군·자치구 유형화 결과

유형		자치단체명					
시	시-Ⅰ (15개)	경기 수원시	경기 성남시	경기 고양시	경기 용인시	경기 부천시	
		경기 안산시	경기 안양시	경기 남양주시	경기 화성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경남 김해시	
	시-Ⅱ (21개)	경기 평택시	경기 의정부시	경기 시흥시	경기 파주시	경기 광명시	
		경기 김포시	경기 군포시	경기 광주시	경기 이천시	경기 양주시	
		경기 오산시	경기 하남시	강원 원주시	충남 아산시	전남 여수시	
		경북 경주시	경북 구미시	경북 경산시	경남 진주시	경남 거제시	
	시-Ⅲ (19개)	경남 양산시					
		경기 구리시	경기 안성시	경기 포천시	경기 의왕시	경기 여주시	
		경기 과천시	강원 춘천시	강원 강릉시	충북 충주지	충남 서산시	
		충남 당진시	전북 군산시	전북 익산시	전남 목포시	전남 순천시	
	시-Ⅳ (20개)	전남 나주시	전남 광양시	경북 김천시	경남 사천시		
		경기 동두천시	강원 동해시	강원 태백시	강원 속초시	강원 삼척시	
		충북 제천시	충남 공주시	충남 보령시	충남 논산시	충남 계룡시	
		전북 정읍시	전북 남원시	전북 김제시	경북 안동시	경북 영주시	
	군	군-Ⅰ (21개)	경북 영천시	경북 상주시	경북 문경시	경남 통영시	경남 밀양시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인천 강화군	울산 울주군	경기 양평군
			경기 가평군	경기 연천군	강원 홍천군	충북 진천군	충북 음성군
			충남 홍성군	충남 예산군	충남 태안군	전북 완주군	전남 무안군
군-Ⅱ (20개)		경북 칠곡군	경북 예천군	경북 울진군	경남 함안군	경남 창녕군	
		경남 고성군					
		강원 횡성군	강원 평창군	강원 정선군	강원 철원군	충북 옥천군	
		충북 증평군	충북 단양군	충남 금산군	충남 부여군	전북 부안군	
		전남 담양군	전남 고흥군	전남 화순군	전남 해남군	전남 영암군	
		전남 영광군	경북 성주군	경남 하동군	경남 함양군	경남 거창군	
		인천 옹진군	강원 영월군	강원 인제군	강원 양양군	충북 보은군	
		충북 영동군	충북 괴산군	충남 서천군	충남 청양군	전북 고창군	
군-Ⅲ (20개)		전남 장성군	전남 완도군	전남 신안군	경북 의성군	경북 청도군	
		경북 고령군	경북 울릉군	경남 남해군	경남 산청군	경남 합천군	
		강원 화천군	강원 양구군	강원 고성군	전북 진안군	전북 무주군	
		전북 장수군	전북 임실군	전북 순창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군-Ⅳ (21개)		전남 보성군	전남 장흥군	전남 강진군	전남 함평군	전남 진도군	
		경북 군위군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경북 영덕군	경북 봉화군	
		경남 의령군					
자치구	서울-Ⅰ (13개)	서울 중구	서울 성동구	서울 노원구	서울 마포구	서울 양천구	
		서울 강서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동작구	서울 관악구	서울 서초구	
		서울 강남구	서울 송파구	서울 강동구			
	서울-Ⅱ (12개)	서울 종로구	서울 용산구	서울 광진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중랑구	
		서울 성북구	서울 강북구	서울 도봉구	서울 은평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구로구	서울 금천구				
	광역-Ⅰ (22개)	부산 부산진구	부산 남구	부산 해운대구	부산 강서구	대구 동구	
		대구 북구	대구 수성구	대구 달서구	인천 중구	인천 미추홀구	
		인천 연수구	인천 남동구	인천 부평구	인천 계양구	인천 서구	
		광주 서구	광주 북구	공주 광산구	대전 서구	대전 유성구	
		울산 남구	울산 북구				
		광역-Ⅱ (22개)	부산 중구	부산 서구	부산 동구	부산 영도구	부산 동래구
			부산 북구	부산 사하구	부산 금정구	부산 연제구	부산 수영구
			부산 사상구	대구 중구	대구 서구	대구 남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광주 남구	대전 동구	대전 중구	대전 대덕구	
	울산 중구		울산 동구				

3) 유형별 사회경제적 특성

- 기초자치단체 유형화를 위한 기준 지표를 중심으로 각 유형별로 나타나는 사회경제적 특성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음

[표] 기초자치단체 유형별 사회경제적 특성

유형		인구규모(명) 2018년 말	인구증감률 전년대비	노령인구비율 2018년 말	재정력지수(시군) 재정자립도(자치구)	세출결산규모 (억원) 2018년 일반회계	사회복지비율 2018년 말
시	시-Ⅰ	799,235	0.73%	11.57%	0.8107	16,663	36.84%
	시-Ⅱ	331,635	1.95%	12.65%	0.6389	8,292	34.32%
	시-Ⅲ	184,803	0.05%	16.70%	0.3912	6,874	29.59%
	시-Ⅳ	97,727	-1.15%	22.76%	0.2125	5,522	25.06%
군	군-Ⅰ	95,258	0.21%	22.30%	0.3386	4,789	23.79%
	군-Ⅱ	51,016	-1.17%	27.68%	0.1764	4,249	19.13%
	군-Ⅲ	39,265	-1.61%	30.12%	0.1542	3,782	17.60%
	군-Ⅳ	29,469	-1.54%	32.21%	0.1352	3,221	17.18%
자치구	서울-Ⅰ	442,336	-0.71%	13.82%	42.13%	5,921	48.71%
	서울-Ⅱ	334,604	-1.02%	15.88%	32.13%	5,172	48.92%
	광역시-Ⅰ	376,824	0.32%	12.44%	32.94%	5,083	55.57%
	광역시-Ⅱ	179,339	-1.82%	18.25%	24.67%	3,091	53.97%

[표] 기초자치단체 유형화 기준 기초통계자료

유형		인구규모(명) 2018년 말	인구증감률 전년대비	노령인구비율 2018년 말	재정력지수(시군) 재정자립도(자치구)	세출결산규모 (억원) 2018년 일반회계	사회복지비율 2018년 말
시-Ⅰ	경기 수원시	1,201,166	-0.12%	9.76%	1.1593	21,137	38.51%
	경기 성남시	954,347	-1.36%	12.58%	1.3368	21,107	35.38%
	경기 고양시	1,044,189	0.21%	12.12%	0.8530	17,432	41.24%
	경기 용인시	1,035,126	3.09%	12.08%	1.1906	19,968	30.98%
	경기 부천시	843,768	-0.77%	11.58%	0.7190	13,303	46.05%
	경기 안산시	660,343	-2.56%	9.49%	0.8193	13,165	41.68%
	경기 안양시	576,831	-1.86%	11.73%	0.7009	10,401	38.49%
	경기 남양주시	681,828	2.48%	12.71%	0.6326	12,793	40.23%
	경기 화성시	758,722	9.79%	8.37%	1.2735	19,610	29.05%
	충북 청주시	837,749	0.26%	12.04%	0.5727	20,217	36.02%
	충남 천안시	646,075	2.30%	9.83%	0.6826	14,649	33.54%
	전북 전주시	651,091	0.33%	13.60%	0.6093	13,863	42.09%
	경북 포항시	510,013	-0.74%	15.10%	0.4029	15,462	32.19%
	경남 창원시	1,053,601	-0.32%	12.49%	0.6553	25,016	33.78%
	경남 김해시	533,672	0.29%	10.07%	0.6873	11,826	33.32%
시-Ⅱ	경기 평택시	495,642	2.93%	11.80%	0.7402	12,461	30.14%
	경기 의정부시	447,026	1.23%	13.74%	0.5809	8,340	45.96%

유형	인구규모(명) 2018년 말	인구증감을 전년대비	노령인구비율 2018년 말	재정력지수(시군) 재정자립도(자치구)	세출결산규모 (억원) 2018년 일반회계	사회복지비율 2018년 말	
시-I	경기 시흥시	448,687	6.92%	8.37%	0.7860	9,244	36.09%
	경기 파주시	451,848	3.20%	12.81%	0.6776	9,087	37.83%
	경기 광명시	326,841	-1.79%	12.20%	0.6596	6,223	42.43%
	경기 김포시	423,170	7.93%	11.47%	0.7864	8,316	36.22%
	경기 군포시	276,916	-1.53%	11.45%	0.7097	5,242	38.73%
	경기 광주시	363,782	5.16%	11.78%	0.6418	8,759	31.01%
	경기 이천시	214,206	0.50%	13.07%	0.6403	7,038	29.65%
	경기 양주시	216,951	2.26%	14.34%	0.5201	6,276	33.41%
	경기 오산시	220,070	3.11%	8.45%	0.5586	4,895	37.71%
	경기 하남시	254,415	9.43%	11.91%	0.9392	4,512	39.39%
	강원 원주시	344,070	0.80%	13.72%	0.3392	10,359	32.11%
	충남 아산시	312,822	0.44%	12.21%	0.7931	9,205	32.90%
	전남 여수시	283,300	-1.08%	17.51%	0.4629	9,244	34.76%
	경북 경주시	256,864	-0.40%	20.44%	0.3860	10,671	25.57%
	경북 구미시	421,494	-0.07%	8.41%	0.8335	9,810	31.70%
	경북 경산시	261,093	0.62%	15.35%	0.4414	8,049	31.33%
	경남 진주시	345,987	-0.20%	15.39%	0.3844	10,523	29.90%
	경남 거제시	250,516	-1.40%	9.36%	0.6656	6,276	32.62%
	경남 양산시	348,639	2.98%	11.95%	0.5716	9,607	31.30%
	시-II	경기 구리시	203,553	1.76%	11.69%	0.6408	4,017
경기 안성시		183,579	0.43%	15.97%	0.4649	6,696	28.50%
경기 포천시		150,676	-1.47%	17.46%	0.3909	5,814	28.27%
경기 의왕시		153,932	-1.18%	12.44%	0.7446	3,680	34.45%
경기 여주시		111,525	-0.41%	19.69%	0.3442	5,622	23.58%
경기 과천시		58,142	1.07%	13.35%	0.8609	2,094	25.80%
강원 춘천시		280,640	0.04%	16.22%	0.3032	9,279	32.55%
강원 강릉시		212,957	-0.47%	19.35%	0.2730	7,604	31.13%
충북 충주시		210,504	1.05%	18.12%	0.2915	8,215	29.33%
충남 서산시		174,162	1.45%	17.16%	0.4124	7,628	24.04%
충남 당진시		167,770	0.20%	17.28%	0.4793	7,239	23.71%
전북 군산시		272,645	-0.86%	16.84%	0.4193	9,455	34.64%
전북 익산시		294,062	-2.04%	17.53%	0.3287	10,821	33.44%
전남 목포시		232,327	-0.88%	14.99%	0.3713	6,346	46.21%
전남 순천시		279,389	0.02%	14.51%	0.2748	9,552	28.51%
전남 나주시		113,839	3.39%	21.66%	0.2459	6,822	23.28%
전남 광양시		156,564	0.45%	11.70%	0.3533	6,361	27.08%
경북 김천시		141,104	-1.26%	21.49%	0.2141	7,660	23.50%
경남 사천시		113,888	-0.32%	19.88%	0.3095	5,709	25.35%
시-III		경기 동두천시	96,226	-0.87%	18.39%	0.4127	3,381
	강원 동해시	91,272	-1.70%	18.11%	0.2886	3,343	32.76%
	강원 태백시	44,858	-2.24%	22.16%	0.1995	2,856	24.11%
	강원 속초시	81,682	-0.72%	17.08%	0.3292	3,012	32.94%
	강원 삼척시	68,326	-0.27%	22.66%	0.1713	5,252	20.30%

유형	인구규모(명) 2018년 말	인구증감을 전년대비	노령인구비율 2018년 말	재정력지수(시군) 재정자립도(자치구)	세출결산규모 (억원) 2018년 일반회계	사회복지비율 2018년 말	
군- I	충북 제천시	135,386	-0.77%	19.66%	0.2045	6,731	24.58%
	충남 공주시	107,581	-0.78%	23.75%	0.2156	6,178	23.19%
	충남 보령시	101,990	-1.17%	23.65%	0.2212	6,294	21.92%
	충남 논산시	120,230	-1.64%	24.25%	0.1924	6,346	27.43%
	충남 계룡시	43,731	-0.54%	10.17%	0.2928	1,441	25.31%
	전북 정읍시	112,169	-1.41%	25.68%	0.1344	7,022	26.41%
	전북 남원시	82,554	-0.87%	25.98%	0.1202	6,346	22.10%
	전북 김제시	85,331	-1.83%	29.60%	0.1433	6,258	23.71%
	경북 안동시	162,180	-2.46%	22.72%	0.1624	9,533	24.68%
	경북 영주시	106,801	-1.45%	24.66%	0.1774	5,972	25.74%
	경북 영천시	101,595	0.97%	26.42%	0.1969	6,272	21.66%
	경북 상주시	100,297	-0.64%	29.01%	0.1008	7,109	19.34%
	경북 문경시	71,874	-1.94%	28.28%	0.1491	5,662	19.14%
	경남 통영시	133,720	-1.56%	17.08%	0.3195	5,027	27.49%
	경남 밀양시	106,744	-1.07%	25.82%	0.1988	6,408	22.65%
	부산 기장군	164,864	1.99%	14.59%	0.6882	4,395	39.12%
대구 달성군	250,543	2.95%	11.48%	0.5375	6,808	31.87%	
인천 강화군	68,896	0.21%	30.70%	0.1952	4,428	21.80%	
울산 울주군	221,842	0.51%	13.05%	0.5376	7,916	25.36%	
경기 양평군	116,095	0.86%	23.17%	0.3407	5,534	25.68%	
경기 가평군	62,918	-0.09%	23.53%	0.4135	4,225	23.98%	
경기 연천군	44,633	-1.76%	23.77%	0.2964	3,831	18.84%	
강원 홍천군	69,949	-0.56%	23.45%	0.1608	5,146	19.92%	
충북 진천군	78,218	6.16%	15.85%	0.4323	3,828	21.68%	
충북 음성군	95,830	-1.52%	19.10%	0.4319	5,086	26.13%	
충남 홍성군	101,082	-0.48%	22.12%	0.2621	5,074	24.77%	
충남 예산군	80,083	-0.32%	28.80%	0.2156	5,587	19.15%	
충남 태안군	63,238	-1.09%	28.41%	0.2775	4,431	19.32%	
전북 완주군	94,444	-1.60%	20.94%	0.3327	5,523	25.27%	
전남 무안군	81,991	-1.06%	20.24%	0.1924	4,329	20.55%	
경북 칠곡군	118,828	-1.68%	14.05%	0.4287	4,110	29.93%	
경북 예천군	53,274	8.16%	29.80%	0.1470	4,332	17.58%	
경북 울진군	50,036	-1.84%	26.13%	0.2421	4,152	19.25%	
경남 함안군	67,025	-1.73%	22.12%	0.3731	3,499	24.55%	
경남 창녕군	63,396	-1.10%	28.45%	0.2574	4,250	24.47%	
경남 고성군	53,243	-1.51%	28.47%	0.2609	4,092	20.31%	
군- II	강원 횡성군	46,726	0.96%	26.63%	0.1482	3,936	17.70%
	강원 평창군	42,610	-1.12%	25.05%	0.1704	4,277	13.21%
	강원 정선군	37,700	-1.24%	25.22%	0.2366	4,000	20.18%
	강원 철원군	46,413	-1.64%	20.39%	0.1124	4,201	15.10%
	충북 옥천군	51,465	-0.58%	27.44%	0.1939	3,421	24.64%
	충북 증평군	37,317	-1.23%	15.67%	0.3367	1,879	23.26%
	충북 단양군	30,255	0.13%	27.68%	0.1817	3,286	16.21%
	충남 금산군	53,222	-1.25%	28.52%	0.2513	3,546	22.28%

유형	인구규모(명) 2018년 말	인구증감을 전년대비	노령인구비율 2018년 말	재정력지수(시군) 재정자립도(자치구)	세출결산규모 (억원) 2018년 일반회계	사회복지비율 2018년 말	
군-Ⅱ	충남 부여군	68,078	-1.46%	31.59%	0.1654	5,443	20.50%
	전북 부안군	54,441	-2.93%	30.56%	0.1560	5,077	16.57%
	전남 담양군	46,917	-0.78%	29.45%	0.1802	3,667	19.34%
	전남 고흥군	65,777	-1.44%	38.87%	0.0842	6,176	19.43%
	전남 화순군	63,933	-1.15%	25.02%	0.1566	4,764	19.47%
	전남 해남군	71,901	-2.31%	30.33%	0.1103	5,760	21.24%
	전남 영암군	54,731	-1.59%	25.28%	0.2135	4,525	20.92%
	전남 영광군	54,127	-1.18%	27.80%	0.1916	4,287	20.20%
	경북 성주군	44,672	-1.03%	29.42%	0.1721	3,545	16.51%
	경남 하동군	47,533	-2.66%	31.24%	0.1711	4,982	16.98%
	경남 함양군	40,044	-0.33%	31.52%	0.1673	4,054	16.25%
	경남 거창군	62,455	-0.49%	25.96%	0.1797	4,151	22.55%
군-Ⅲ	인천 옹진군	21,036	-2.49%	23.60%	0.1937	2,795	14.77%
	강원 영월군	39,730	-0.84%	26.85%	0.1557	3,955	24.21%
	강원 인제군	32,136	-1.37%	18.71%	0.1194	3,583	14.26%
	강원 양양군	27,347	0.51%	27.63%	0.1579	2,592	17.81%
	충북 보은군	33,680	-1.10%	31.62%	0.1492	3,582	16.29%
	충북 영동군	49,715	-1.04%	28.91%	0.1441	3,755	19.60%
	충북 괴산군	39,133	0.20%	30.93%	0.1473	3,746	16.76%
	충남 서천군	53,922	-2.27%	33.47%	0.1883	4,389	24.91%
	충남 청양군	32,296	-1.65%	32.56%	0.1617	3,550	14.37%
	전북 고창군	57,041	-5.67%	31.69%	0.1250	5,253	19.03%
	전남 장성군	45,795	-0.69%	28.25%	0.1400	3,863	19.38%
	전남 완도군	51,477	-1.21%	30.57%	0.1261	4,289	19.92%
	전남 신안군	41,263	-1.92%	33.83%	0.0869	5,081	13.29%
	경북 의성군	52,944	-0.99%	38.85%	0.1077	5,168	18.95%
	경북 청도군	43,057	-0.67%	35.24%	0.1681	3,259	20.02%
	경북 고령군	32,969	-2.37%	28.45%	0.2244	2,957	17.83%
	경북 울릉군	9,832	-1.43%	23.29%	0.2118	1,431	8.72%
	경남 남해군	43,990	-1.46%	36.17%	0.1917	3,560	20.88%
	경남 산청군	35,952	-1.07%	33.63%	0.1763	3,580	18.62%
	경남 합천군	45,916	-2.31%	37.22%	0.1413	4,889	16.75%
군-Ⅳ	강원 화천군	25,084	-3.60%	20.19%	0.1265	2,717	18.53%
	강원 양구군	23,408	-1.79%	18.47%	0.1149	2,949	13.45%
	강원 고성군	28,144	-6.28%	26.35%	0.1495	2,838	16.16%
	전북 진안군	25,963	-1.17%	32.49%	0.1146	3,357	17.46%
	전북 무주군	24,589	-0.89%	31.38%	0.1437	2,822	16.64%
	전북 장수군	23,221	0.95%	31.00%	0.1281	2,862	17.19%
	전북 임실군	30,072	-0.30%	32.49%	0.1306	3,431	17.26%
	전북 순창군	29,209	-1.65%	31.77%	0.1362	3,366	17.32%
	전남 곡성군	29,624	-1.68%	33.85%	0.1386	3,226	17.67%
	전남 구례군	27,117	-1.48%	31.38%	0.1256	2,883	15.28%
	전남 보성군	42,803	-2.18%	35.92%	0.1150	4,165	18.75%

유형	인구규모(명) 2018년 말	인구증감을 전년대비	노령인구비율 2018년 말	재정력지수(시군) 재정자립도(자치구)	세출결산규모 (억원) 2018년 일반회계	사회복지비율 2018년 말	
전남	전남 장흥군	39,312	-2.05%	32.08%	0.1210	3,802	19.07%
	전남 강진군	36,144	-1.96%	32.72%	0.1139	3,929	16.69%
	전남 함평군	33,420	-2.65%	34.17%	0.1272	3,556	18.15%
	전남 진도군	31,219	-1.72%	32.39%	0.1014	3,292	17.40%
	경북 군위군	23,919	-1.22%	37.56%	0.1449	3,108	13.52%
	경북 청송군	25,678	-1.26%	34.88%	0.1310	2,975	16.24%
	경북 영양군	17,356	-0.70%	35.05%	0.1206	2,280	17.70%
	경북 영덕군	38,108	-1.09%	34.87%	0.1522	3,618	20.33%
	경북 봉화군	32,843	-1.25%	33.61%	0.0973	3,688	14.46%
	경남 의령군	27,667	-0.65%	34.64%	0.1714	3,129	17.04%
서울-Ⅰ	서울 중구	125,725	0.01%	17.30%	59.19%	3,714	32.09%
	서울 성동구	308,221	1.12%	13.83%	32.46%	4,524	45.02%
	서울 노원구	543,752	-1.92%	14.17%	19.51%	8,008	57.50%
	서울 마포구	375,077	0.04%	13.48%	37.46%	5,066	50.39%
	서울 양천구	464,185	-1.48%	12.48%	29.15%	5,814	51.32%
	서울 강서구	596,949	-0.79%	13.31%	25.57%	7,612	59.17%
	서울 영등포구	367,778	-0.21%	14.93%	40.76%	5,455	48.18%
	서울 동작구	396,203	0.00%	14.96%	30.47%	5,187	52.46%
	서울 관악구	501,957	-0.27%	14.32%	23.64%	6,151	55.26%
	서울 서초구	433,951	-1.62%	12.60%	58.79%	5,549	39.59%
	서울 강남구	542,364	-2.48%	12.35%	65.58%	6,930	42.41%
	서울 송파구	666,635	0.32%	12.18%	43.44%	6,921	49.74%
	서울 강동구	427,573	-1.98%	13.72%	34.29%	6,043	50.08%
	서울-Ⅱ	서울 종로구	153,065	-1.10%	17.36%	48.34%	3,731
서울 용산구		228,999	-0.07%	16.25%	44.88%	3,543	42.25%
서울 광진구		355,559	-0.60%	12.78%	31.59%	4,727	44.79%
서울 동대문구		348,052	-0.74%	16.37%	25.89%	5,575	51.96%
서울 중랑구		403,209	-1.23%	15.31%	22.73%	5,829	54.91%
서울 성북구		435,868	-1.84%	15.52%	23.73%	6,314	50.13%
서울 강북구		319,164	-1.64%	18.20%	22.08%	5,580	52.06%
서울 도봉구		339,413	-1.38%	16.48%	21.88%	5,266	50.53%
서울 은평구		483,197	-0.74%	15.99%	22.36%	6,662	59.08%
서울 서대문구		310,313	-0.80%	16.13%	30.16%	4,802	45.76%
서울 구로구		404,497	-1.52%	15.11%	26.42%	5,885	51.64%
서울 금천구		233,917	-0.53%	15.11%	28.48%	4,149	49.86%
광역시-Ⅰ	부산 부산진구	362,357	-2.51%	17.83%	25.13%	4,968	59.61%
	부산 남구	279,917	2.21%	17.92%	26.14%	3,700	58.87%
	부산 해운대구	409,347	-0.65%	15.35%	31.38%	5,226	60.12%
	부산 강서구	122,957	4.75%	11.46%	47.19%	2,982	37.25%
	대구 동구	351,291	0.55%	17.55%	22.86%	5,545	61.10%
	대구 북구	439,489	-0.43%	12.95%	24.46%	5,385	60.99%
	대구 수성구	432,759	-1.47%	14.12%	32.77%	5,349	56.97%
	대구 달서구	573,413	-0.81%	12.38%	26.55%	6,676	62.78%

유형	인구규모(명) 2018년 말	인구증감을 전년대비	노령인구비율 2018년 말	재정력지수(시군) 재정자립도(자치구)	세출결산규모 (억원) 2018년 일반회계	사회복지비율 2018년 말	
광역시-Ⅰ	인천 중구	122,499	3.81%	14.27%	49.64%	3,072	35.51%
	인천 남구	416,542	-0.65%	15.08%	22.00%	5,880	60.43%
	인천 연수구	346,359	3.35%	9.02%	42.81%	4,464	52.84%
	인천 남동구	537,161	0.11%	11.59%	32.48%	6,699	61.15%
	인천 부평구	524,640	-2.83%	12.66%	23.70%	6,656	64.02%
	인천 계양구	312,680	-3.43%	10.59%	26.05%	4,240	55.86%
	인천 서구	538,596	4.38%	9.28%	41.65%	6,716	54.25%
	광주 서구	304,172	-0.91%	12.65%	26.50%	4,303	58.88%
	광주 북구	439,773	0.23%	13.37%	19.58%	6,218	64.82%
	광주 광산구	404,547	0.10%	8.63%	25.53%	5,684	58.94%
	대전 서구	484,663	-0.57%	11.19%	26.88%	5,769	59.26%
	대전 유성구	349,790	0.39%	8.35%	36.25%	4,434	50.32%
	울산 남구	330,732	-1.40%	10.22%	38.01%	4,313	48.23%
	울산 북구	206,434	2.85%	7.26%	32.32%	3,546	40.33%
광역시-Ⅱ	부산 중구	42,795	-3.22%	24.26%	29.43%	1,370	37.08%
	부산 서구	110,534	0.45%	22.80%	17.52%	2,483	53.83%
	부산 동구	86,912	-2.20%	24.63%	18.98%	2,285	52.36%
	부산 영도구	120,109	-2.76%	24.20%	14.18%	2,823	54.02%
	부산 동래구	266,515	-1.56%	16.61%	25.46%	3,364	55.83%
	부산 북구	296,952	-1.97%	14.52%	17.26%	4,060	65.71%
	부산 사하구	327,791	-1.65%	16.11%	20.15%	4,876	60.07%
	부산 금정구	242,956	-0.62%	18.27%	23.35%	3,542	55.57%
	부산 연제구	207,840	0.53%	17.09%	25.34%	2,811	59.56%
	부산 수영구	176,246	-2.08%	19.17%	23.71%	2,626	55.49%
	부산 사상구	223,361	-2.56%	15.36%	23.61%	3,508	58.13%
	대구 중구	79,401	0.53%	19.60%	33.69%	2,107	43.19%
	대구 서구	184,372	-3.97%	19.43%	21.13%	3,338	57.80%
	대구 남구	150,501	-1.53%	21.37%	19.49%	3,044	59.40%
	인천 동구	66,233	-4.68%	20.01%	23.28%	1,905	44.41%
	광주 동구	94,475	-1.02%	21.53%	18.99%	2,519	51.86%
	광주 남구	216,369	-0.95%	16.03%	16.27%	3,697	57.35%
	대전 동구	229,071	-0.63%	16.88%	17.04%	4,210	59.40%
	대전 중구	244,421	-1.81%	17.03%	19.80%	3,945	56.66%
	대전 대덕구	181,991	-2.63%	13.63%	23.31%	3,537	51.45%
울산 중구	231,973	-2.80%	12.68%	21.69%	3,361	48.58%	
울산 동구	164,642	-2.93%	10.19%	25.57%	2,582	49.66%	

다. 기초자치단체 유형별 지표분석 결과

1) 시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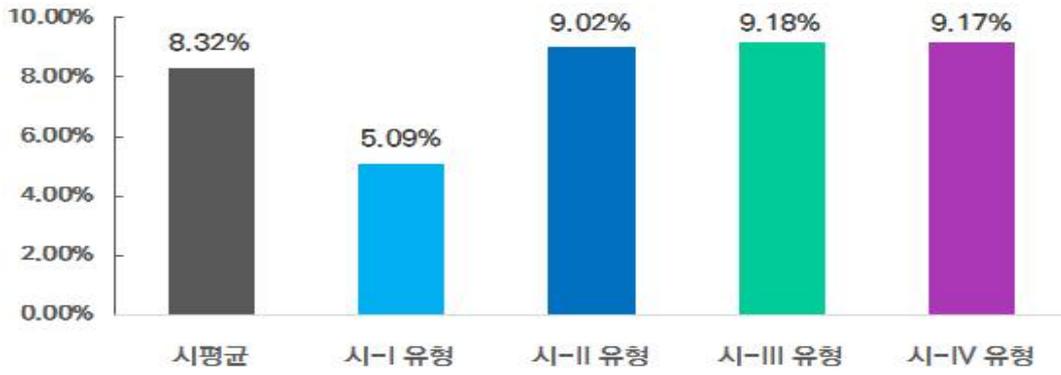
|재정건전성|

- 시 유형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결과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시-I 유형) 통합재정수지비율과 관리채무비율이 시 평균에 비해 낮은 실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상수지비율과 공기업부채비율은 시 평균 대비 양호
 - (시-II 유형) 통합재정수지비율과 경상수지비율의 경우 시 평균 대비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관리채무비율과 공기업부채비율은 시 평균 대비 다소 부진
 - (시-III 유형) 통합재정수지비율과 관리채무비율, 공기업부채비율은 시 평균 대비 양호하나, 경상수지비율이 다소 부진
 - (시-IV 유형) 통합재정수지비율과 관리채무비율에서 시 평균 대비 우수하며, 경상수지비율과 공기업부채비율은 시 평균 대비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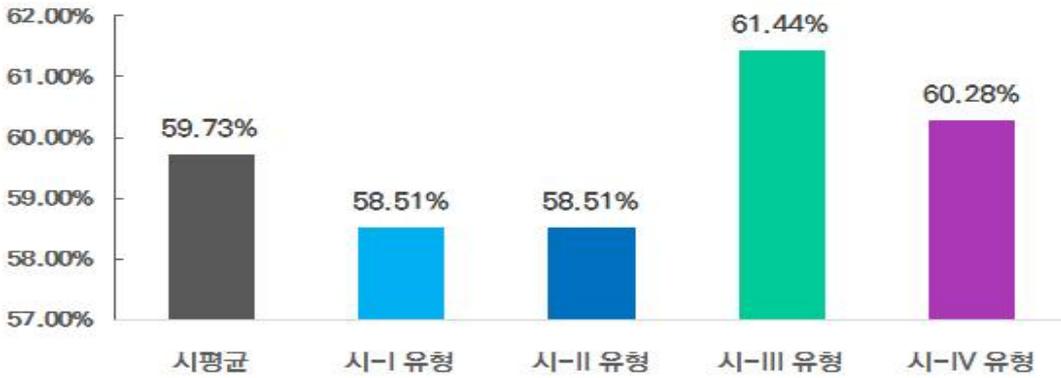
〈재정건전성 시 유형 특성〉

- 경상수지는 시 유형 간 편차가 크지 않아 시 유형은 약 60% 정도의 수입을 경상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 규모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비율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 인구 50만 이상 시로 구성된 시-I 유형의 경우, 재정력이 높아 지방교부세 등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재원 규모가 작아 통합재정수지비율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관리채무는 하수도 BTL 금액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인구가 많은 시 유형들의 BTL 잔액 규모가 커 관리채무비율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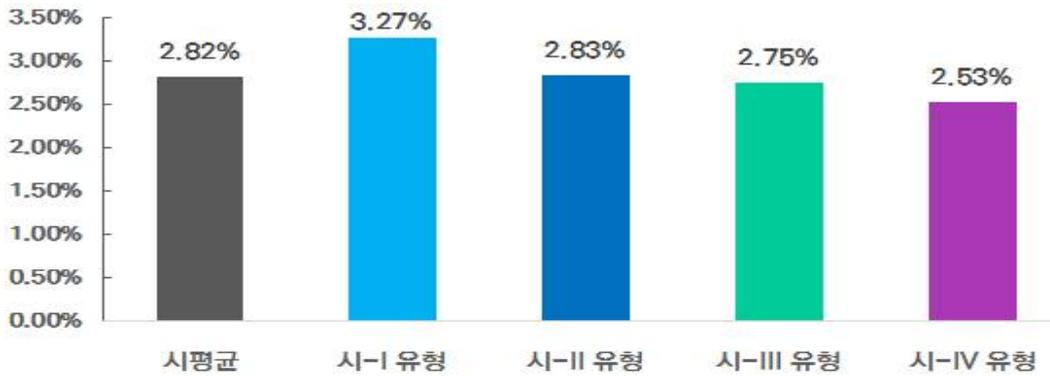
구분	통합재정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	관리채무비율	공기업부채비율
시(I)유형	5.09%	58.51%	3.27%	10.18%
시(II)유형	8.70%	58.51%	2.83%	22.75%
시(III)유형	9.54%	61.44%	2.75%	12.26%
시(IV)유형	9.17%	60.28%	2.53%	18.96%
시 평균	8.32%	59.73%	2.82%	16.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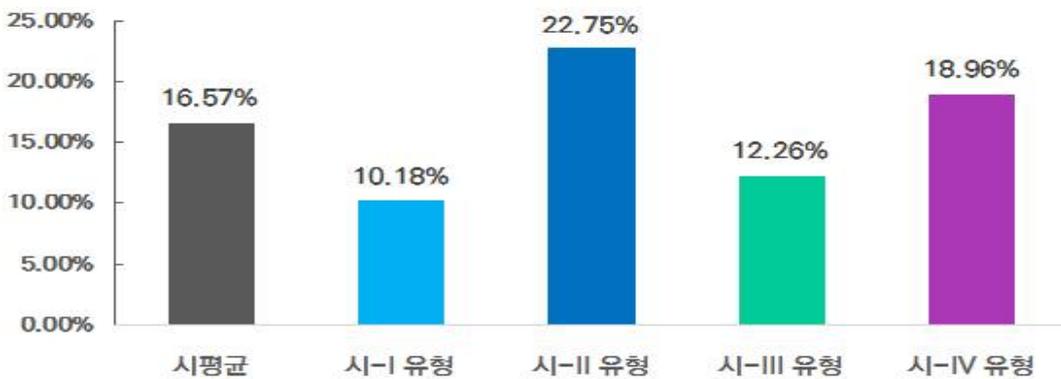
통합재정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



관리채무비율



공기업부채비율

재정건전성 주요사례 (시- I 유형)

- 경기 안산시(통합재정수지비율: -0.56%)
 - 보통교부세의 감소로 인하여 경상수익 규모가 작아진 반면, 일반회계 인건비와 운영비가 증가하여 통합재정수지비율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음
- 경기 용인시(경상수지비율: 56.64%)
 - 2회에 걸친 조직개편과 함께 이루어진 277명 가량의 인력증원으로 인하여 인건비가 전년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며, 위탁대행사업비의 증가 등으로 인한 운영비 증가로 인하여 경상수지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경남 창원시(통합재정수지비율: 0.00%)
 - 신규직원 채용과 함께 정부시책에 따라 계약직 직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정규직화에 따른 퇴직급여, 맞춤형복지포인트 등의 비용 증가로 수지관련 지표가 전년대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경남 김해시(관리채무비율: 10.78%)
 - 채무의 주된 사유는 하수관거 BTL사업에 대한 지급잔액 500억이 있으며, 이외 도로건설 및 노인종합복지관 건설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여 관리채무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전북 전주시(관리채무비율: 7.65%)
 - 상급단지재생, 도로개설, 청사정비, 상수도유수율제고 사업 추진 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며,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BTL사업의 시행으로 관리채무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지방채무에 대한 조기상환을 추진하여 총채무 규모가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매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어 채무규모가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경북 포항시(공기업부채비율: 38.54%)
 - 하수도공기업의 BTL 채무 중 70%를 차지하는 국비분이 공기업부채총액에 포함되어 상대적으로 공기업부채비율이 높게 나타남
 - 포항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포항야구장, 시청사, 노인복지회관, 어린이 교통랜드, 전통문화체험관의 운영적자도 공기업부채비율을 높이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음

재정건전성 주요사례 (시- II 유형)

- 경기 시흥시(통합재정수지비율: -10.97%)
 - 배곧신도시 조성사업의 진행과정에서의 위탁대행사업비의 증가 등의 운영비 증가와 공무원 정원 증가 및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 지출수요가 다수 발생하여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함
 - 배곧신도시 사업을 공기업인 공영개발로 진행함에 따라 준공 시 까지는 계속하여 부채가 발생하고 있음.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준공 시 공기업부채를 상환할 계획을 갖고 있음
- 경기 군포시(통합재정수지비율: -2.42%)
 -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공무원 정원 증가로 인한 인건비 증가로 인하여 전년대비 지출이 증가하여 통합재정수지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경기 평택시(공기업부채비율: 42.29%)
 - 평택도시공사에서 진행 중인 산단 준공으로 분양선수금이 감소하였으나 일반산단 조성사업 및 고덕국제신도시 조성사업을 위해 공사채를 발행하여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공사 준공과 함께 상환을 완료할 예정임

재정건전성 주요사례 (시-Ⅲ 유형)

- 경북 김천시(통합재정수지비율: -3.25%)
 - 지방세수입이 전년대비 감소하는 등 수입 감소로 인하여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하였음. 이는 경기침체 등에 따른 기업의 경영악화로 지방소득세가 감소하였으며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역시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전북 군산시(관리채무비율: 5.93%)
 - 하수관거 BTL사업으로 인한 재정 부담으로 발생한 부채로 인하여 관리채무가 발생하고 있음. 강도 높은 재무건전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통하여 신규채무 발행을 억제하고 지방채를 조기상환 하는 등 재정운영관리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 경기 과천시(공기업부채비율: 46.95%)
 - 지식정보타운 공영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이며, 지식기반산업용지 매매계약 체결분 중 계약금이 부채로 인식되어 발생한 부채인 것으로 파악됨

재정건전성 주요사례 (시-Ⅳ 유형)

- 충남 계룡시(통합재정수지비율: 20.67%)
 - 통합재정수입 중 이전수입과 경상수입이 전년대비 증가하여 통합재정수비율이 높게 나타남. 이는 주로 국도비 보조금과 교부세 수입의 증가가 원인인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열악한 세입여건을 타개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절감 등 경상지출의 최소화 노력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경남 통영시(공기업부채비율: 59.08%)
 - 2013년 시행한 하수관거 BTL사업으로 인한 부채로 인하여 공기업부채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통영관광공사의 영업이익이 감소하여 공기업의 경영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충북 제천시(경상수지비율 59.03%)
 -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의 절약을 통해 시민 대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절약된 예산을 활용하여 시민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월별 집행 및 배정계획 수립 시 특정 통계목에 대하여 유보액 5%를 적용하는 등 기본경비에 대해 유보액을 적용하여 예산절감에 전체 부서가 노력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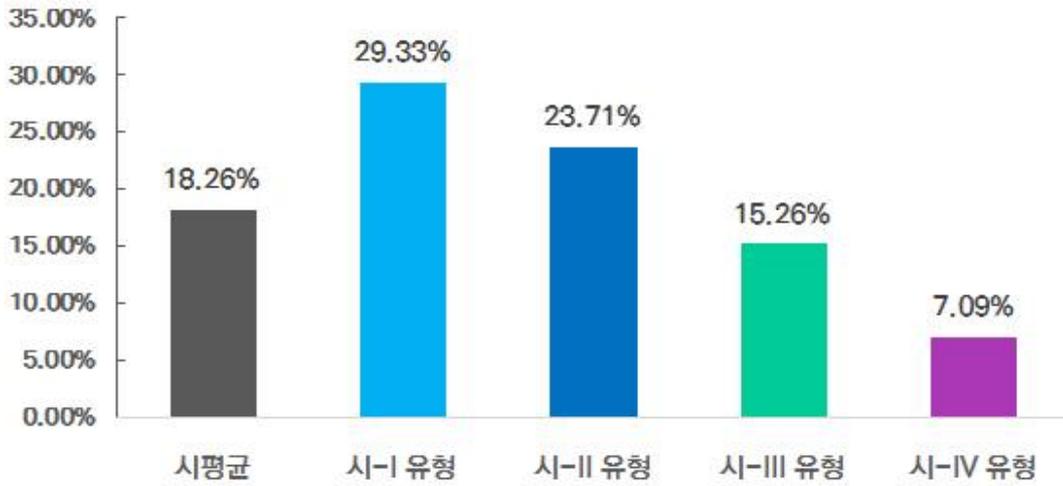
|재정효율성_세입|

- 시 유형 자치단체의 재정효율성(세입) 결과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시-I 유형) 자체수입비율(지방세, 세외수입)에서 시 평균 대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납액관리비율(지방세, 세외수입)의 경우 시 평균에 비해 부진
 - (시-II 유형) 자체수입비율(지방세, 세외수입)이 시 평균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납액관리비율(지방세, 세외수입)은 시 평균에 비해 부진
 - (시-III 유형) 체납액관리비율(지방세, 세외수입)은 시 평균에 비해 양호한 편이나, 자체수입비율(지방세, 세외수입)은 시 평균에 비해 부진
 - (시-IV 유형) 체납액관리비율(지방세, 세외수입)은 시 평균에 비해 양호하나, 자체수입비율(지방세, 세외수입)은 시 평균 대비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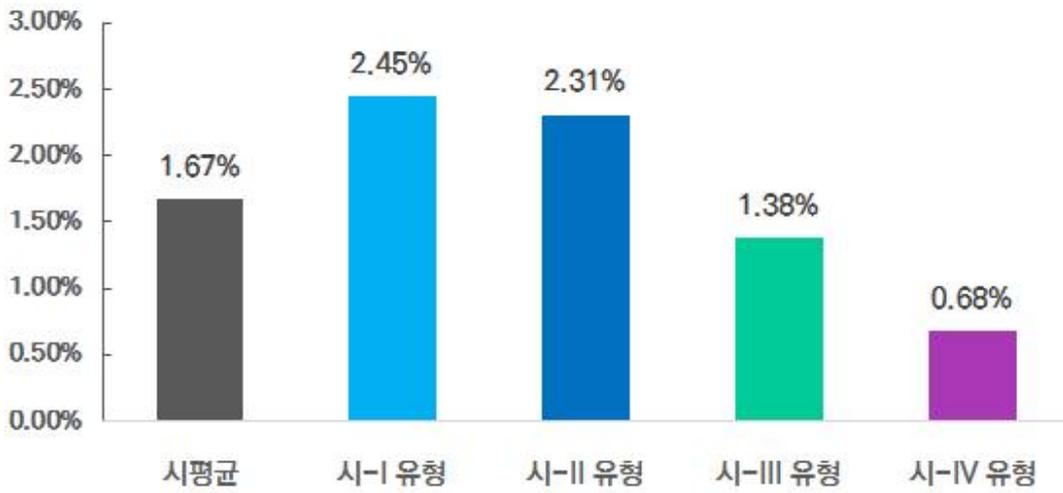
〈재정효율성(세입) 시 유형 특성〉

- 자체수입비율은 인구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 인구가 많을수록 자체수입비율도 높음
- 자체수입증감률은 인구증감률과 관련이 높는데, 시 유형 중에서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은 시-II 유형이 가장 높음. 또한 인구가 감소한 시-IV 유형은 자체수입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수입이 많을수록 체납액도 높게 마련이지만, 체납액 증감률은 체납 행정력과 관련이 깊으므로 50만 이상 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체납액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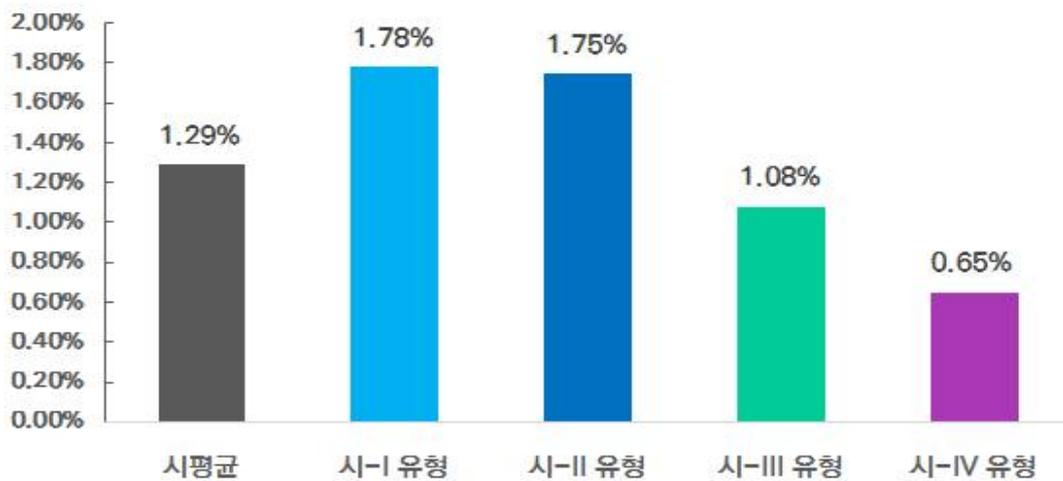
구분	자체수입비율 (지방세)	자체수입증감률 (지방세)	체납액관리비율 (지방세)	체납액증감률 (지방세)	체납액관리비율 (세외수입)	체납액증감률 (세외수입)
시(I)유형	29.33%	8.05%	2.45%	-0.65%	1.78%	-3.11%
시(II)유형	23.71%	8.19%	2.31%	4.67%	1.75%	4.39%
시(III)유형	15.26%	0.79%	1.38%	-1.23%	1.08%	3.18%
시(IV)유형	7.09%	-0.16%	0.68%	3.03%	0.65%	0.04%
시 평균	18.26%	4.06%	1.67%	1.67%	1.29%	1.42%



자체수입비율_지방세



체납액관리비율_지방세



체납액관리비율_세외수입

재정효율성(세입) 주요사례 (시-Ⅰ 유형)

- 경기 수원시(자체수입비율_지방세: 40.53%)
 -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증가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증가하였으며, 주민세 개인균등분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으로 주민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징수관리를 위해 지방세가 체납되지 않도록 납기 전 사전안내 강화 및 각종 지방세 납부홍보를 하고 체납징수를 전담하는 징수과를 신설하여 체납을 통합관리하고 있음
- 경기 화성시(자체수입비율_지방세: 44.88%)
 - 양도세 강화,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부동산 규제 정책의 영향으로 부동산 매매가 증가하여 취득세가 증가하였으며, 대규모 택지개발과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로 지방소득세와 재산세가 증가하였음
- 충북 청주시(체납액증감률_지방세: -9.92%)
 -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2회 운영하고,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및 집중독려기간 운영, 체납자에 대한 적기 채권확보 및 행정제재 강화 등의 노력을 통해 지방세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강화한 것으로 나타남
- 경기 성남시(체납액증감률_지방세: -9.92%)
 - 체납관리 체계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통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등 체납액징수를 위한 노력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남

재정효율성(세입) 주요사례 (시-Ⅱ 유형)

- 경기 이천시(자체수입비율_지방세: 35.24%)
 - 반도체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전년대비 1.5배가 증가한 것이 지방세수입 증가의 주된 사유인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지방세수입이 지방소득세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지역경제가 하나의 특정산업에 의존하여 안정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음
- 충남 아산시(자체수입비율_지방세: 32.81%)
 - 지방소득세가 지방세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법인소득세가 상당부분을 차지함. 이에 아산시는 기업지원전담부서를 설치하여 기업경영활동 및 신규기업유치와 사업 확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방세입 확충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경기 광주시(체납액관리비율_지방세: 3.21%)
 - 지역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의 도산, 납세능력저하 등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직원 자동차 영치의 날 운영, 체납기동반 확대 운영을 통한 체납징수 노력에 힘쓰고 있음
- 경기 오산시(체납액증감률_지방세: -13.70%)
 - 체납자 실태조사반을 확대운영하고, 전국최초로 차량 GPS 위치기반 정보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개발 및 운영을 통해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체납액을 축소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재정효율성(세입) 주요사례 (시-Ⅲ 유형)

- 전북 군산시(자체수입증감률_지방세: -15.56%)
 - 현대중공업 기동중단과 GM 사태로 인한 지역경제 하락에 따라 지방세가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구체적으로는 자동차세 주행분과 담배소비세가 감소하는 등 지역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고 있음
- 강원 춘천시(체납액증감률_지방세: -24.85%)
 - 체납관리전문가로 이루어진 전담팀을 운영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차량번호판 영치 등 체납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충북 충주시(체납액증감률_지방세: -18.96%)
 - 체납징수를 위해 징수전담 부서인 세무2과를 신설하여 적극적인 체납액징수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체납자 재산 압류 및 공매추진,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고액체납자 주4회 방문 등의 시책을 추진 중에 있음
- 충남 당진시(체납액증감률_세외수입: -19.86%)
 -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단을 구성하여 고액 체납자 부서별 책임징수제 운영 및 징수보고회 개최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체납징수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재정효율성(세입) 주요사례 (시-Ⅳ 유형)

- 강원 태백시(체납액관리비율_지방세: 0.47%)
 -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체납액 총력 징수, 예금압류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체납액 결손처분 등) 및 지방세 모니터링을 통한 숨은 자원 적극 발굴, 주민친화형 납세제도 운영 등으로 체납액을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있음
- 강원 속초시(자체수입증감률_지방세: 18.39%)
 - 적극적인 체납기업에 대한 관리와 정확한 고지서 발송 및 상하반기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체납징수에 총력을 기울임
- 경남 통영시(체납액관리비율_지방세: 1.26%)
 - 소액체납자 관리, 징수기동팀 운영 및 예금압류, 체납처분 방식의 다양화, 징수유예건에 관해 업체와의 지속적인 연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음
- 충남 공주시(체납액관리비율_세외수입: 0.58%)
 - 세외수입 전담팀을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통합적 징수활동을 펼쳐 적극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음
 - 특히, 세외수입체납자에 대한 공탁자 자료 대법원 의뢰 후 추심, 예금압류 후 추심, 지방세환급금 압류 후 추심 등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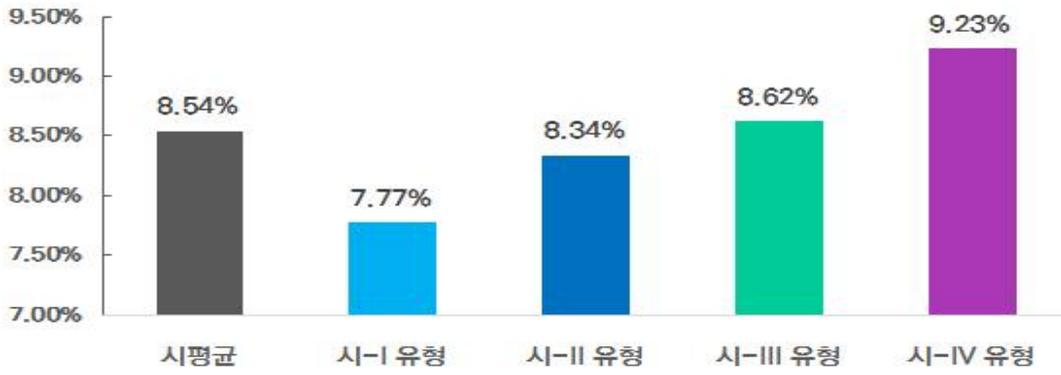
|재정효율성_세출|

- 시 유형 자치단체의 재정효율성_세출 결과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시-I 유형) 지방보조금비율과 업무추진비절감률의 경우 시 평균 대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출자출연전출금비율과 지방의회경비절감률의 경우 시 평균 대비 다소 부진
 - (시-II 유형) 지방보조금비율과 지방의회경비절감률에서 시 평균 대비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자출연전출금비율과 업무추진비절감률은 시 평균 대비 다소 부진
 - (시-III 유형) 출자출연전출금비율은 시 평균 대비 양호한 실적을 보인 반면, 지방보조금비율, 지방의회경비절감률, 업무추진비절감률은 시 평균 대비 부진
 - (시-IV 유형) 지방의회경비절감률과 업무추진비절감률은 시 평균 대비 양호한 반면, 지방보조금비율, 출자출연전출금비율은 시 평균 대비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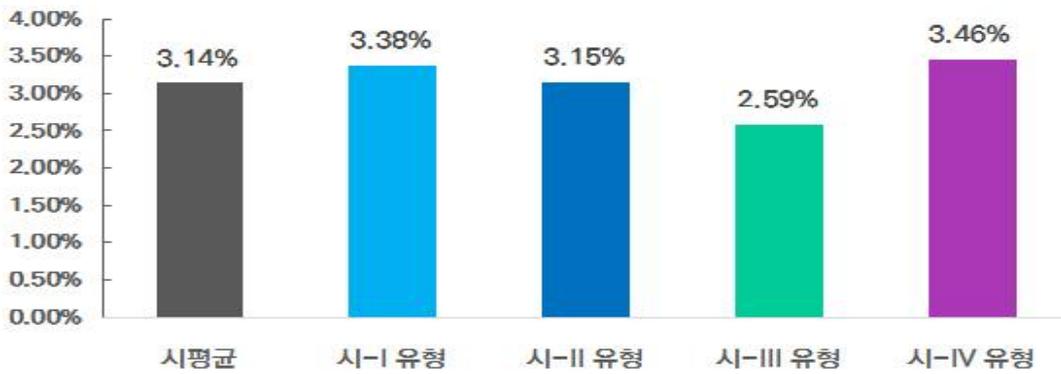
〈재정효율성(세출) 시 유형 특성〉

- 시 유형에서 지방보조금비율은 일반적으로 재정력에 반비례하는데, 이는 같은 금액을 지원하더라도 분모인 재정력이 높을수록 지방보조금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임
-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지방의회경비절감률, 업무추진비절감률은 각 개별 자치단체의 사정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므로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기는 어려움. 다만 시 유형에서는 출자출연전출금을 통해 자치단체가 위임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직접 수행할 경우 업무추진비가 더 많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출자출연전출금비율이 가장 낮은 시 3 유형의 경우 업무추진비절감률이 가장 낮게 나왔으며, 출자출연전출금 비율이 가장 높은 시 4 유형의 경우 업무추진비절감률은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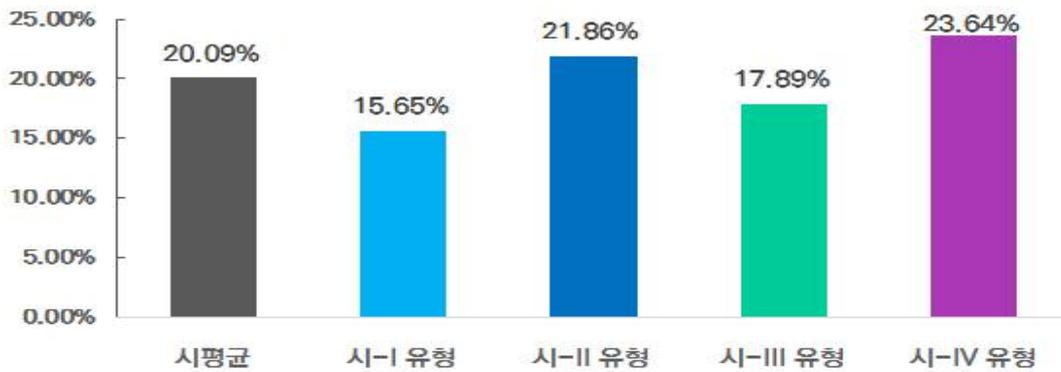
구분	지방보조금 비율	출자출연전출금 비율	지방의회경비 절감률	업무추진비 절감률
시(I)유형	7.77%	3.38%	15.65%	18.25%
시(II)유형	8.34%	3.15%	21.86%	17.81%
시(III)유형	8.62%	2.59%	17.89%	16.52%
시(IV)유형	9.23%	3.46%	23.64%	18.82%
시 평균	8.54%	3.14%	20.09%	17.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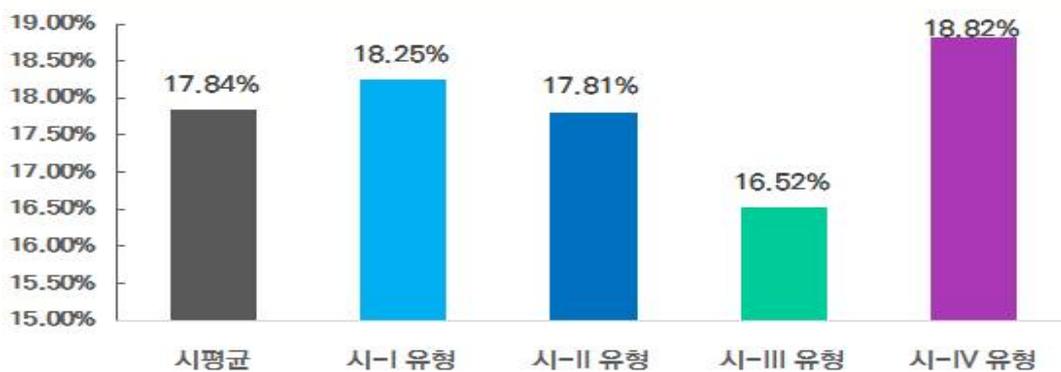
지방보조금비율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지방의회경비절감률



업무추진비절감률

재정효율성(세출) 주요사례 (시-Ⅰ 유형)

- 충북 청주시(지방보조금비율: 10.16%)
 - 사회복지사업보조가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어린이집 종사지 인건비 지원, 노인일자리운영, 누리과정 운영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보조 증가가 원인인 것으로 파악됨
 - 또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보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등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
- 경남 김해시(출자출연전출금비율: 6.41%)
 - 김해문화재단, 복지재단, 김해산업진흥의 생명융합재단에 대한 출연이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며, 이는 김해문화재단 서부문화센터 개관에 따른 자산취득비 및 인건비 소요로 인한 출연금 증가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파악됨
- 경기 안양시(지방의회경비절감률: -4.06%)
 - 의원수가 기존 대비 2인이 감소하여 기준액 산정에서 2인이 제외되었으나 실제 지출에는 2명분이 포함되어 지방의회경비 지출액이 기준액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
- 경기 부천시(업무추진비절감률: 42.49%)
 - 전부서가 불필요한 업무추진비 사용을 자제하고 실질적인 간담회 개최 및 토론문화 형성으로 업무추진비 절감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재정효율성(세출) 주요사례 (시-Ⅱ 유형)

- 경기 오산시(지방보조금비율: 17.68%)
 - 지방보조금의 대부분을 사회복지관련 보조금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유아 및 저소득층 등 사회복지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출산·보육 관련 사회복지 정책 추진에 따른 지원금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
- 경기 양주시(출자출연전출금비율: 4.86%)
 - 공기업특별자본전출금을 축소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인구증가에 따라 공공시설 및 상하수도 확충을 추진하고 있어 추가적인 전출금 수요가 발생하고 있음
- 경기 이천시(지방의회경비절감률: 33.11%)
 - 의원 국외여비, 의원업무추진비 등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기준액을 동결하고 해외연수를 자제하는 등 경비절감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경북 경주시(업무추진비절감률: 32.11%)
 - 시민소통협력관, 투자유치과, 농업유통과 등의 부서신설로 인한 추가적인 업무추진비 증가요인이 있었음에도 효율적 예산집행을 통해 업무추진비를 절감하였음

재정효율성(세출) 주요사례 (시-Ⅲ 유형)

- 충남 당진시(지방보조금비율: 7.23%)
 - 지방보조금에 대한 부서별 한도액을 설정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사전심사를 통해 부실사업을 정리하고 있으며, 단체장의 관심 속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연간 18회 이상 진행하여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사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

- 강원 춘천시(출자출연전출금비율: 6.49%)
 - 최저임금 인상 및 물가상승에 따라 전체적인 산하기관에 대한 전출금이 증가하였으며, 신규위탁시설에 대한 전출금 증가로 전년대비 출자출연전출금이 증가하였음
- 충북 충주시(지방의회경비절감률: 30.64%)
 - 의원국외여비와 의정운영공통경비를 동결하였으며, 회기기간 동안 상임위원 식대비용 절감 등을 통해 의회경비 절감 노력을 꾸준히 추진 중에 있음
- 경기 과천시(업무추진비절감률: 28.85%)
 - 업무추진비 절감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기준경비와는 별도로 자체 기준액을 설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경비를 절감하였으며, 이를 위해 업무추진비 등 세출예산 집행기준 교육, 낭비적 지출요소 제거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의 노력도 추진하고 있음

재정효율성(세출) 주요사례 (시-Ⅳ 유형)

- 강원 동해시(지방보조금비율: 11.92%)
 - 사회복지 관련 보조금의 꾸준한 증가로 지방보조금비율이 상승하고 있음. 이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건비 상승과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국도비 사회복지사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 경기 동두천시(출자출연전출금비율: 0.64%)
 - 공사·공단인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며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담당 부서의 철저한 사전 검토 및 사후관리를 시행하고 있음
- 강원 동해시(지방의회경비절감률: 43.63%)
 - 매년 기준액과 유보액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경비가 지출되지 아니하도록 의회 스스로 자구노력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해외여비의 경우 자매도시 공식방문 이외 연수활동을 자제하는 등 적극적인 경비절감 노력을 추진하고 있음
- 경북 상주시(업무추진비절감률: 22.60%)
 - 기준액의 10%를 일괄적으로 유보액으로 설정하고 집행단계에서도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고 부서 자체적으로 절감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2) 군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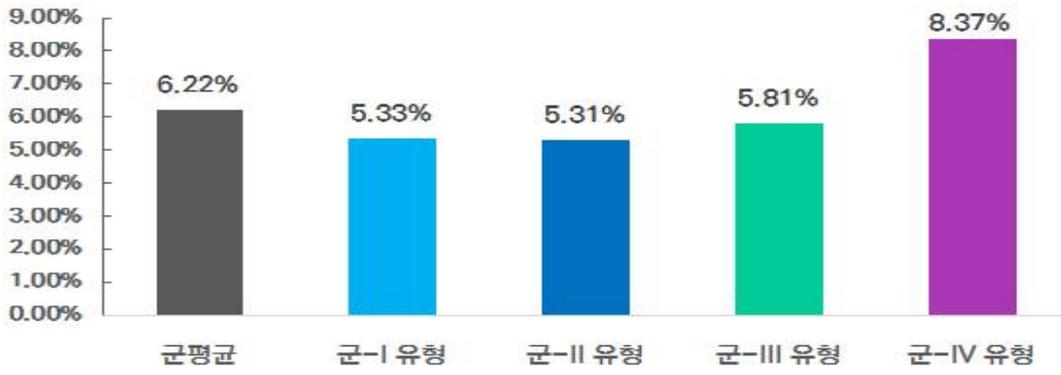
|재정건전성|

- 군 유형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결과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군-Ⅰ유형) 경상수지비율의 경우 군 평균 대비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통합재정수지비율, 관리채무비율, 공기업부채비율은 군 평균 대비 부진
 - (군-Ⅱ유형) 공기업부채비율에서 군 평균 대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합재정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 관리채무비율은 군 평균 대비 부진
 - (군-Ⅲ유형) 관리채무비율과 공기업부채비율은 군 평균 대비 양호한 반면, 통합재정수지비율과 경상수지비율은 군 평균 대비 부진
 - (군-Ⅳ유형) 통합재정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 관리채무비율에서 군 평균 대비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반면, 공기업부채비율은 군 평균 대비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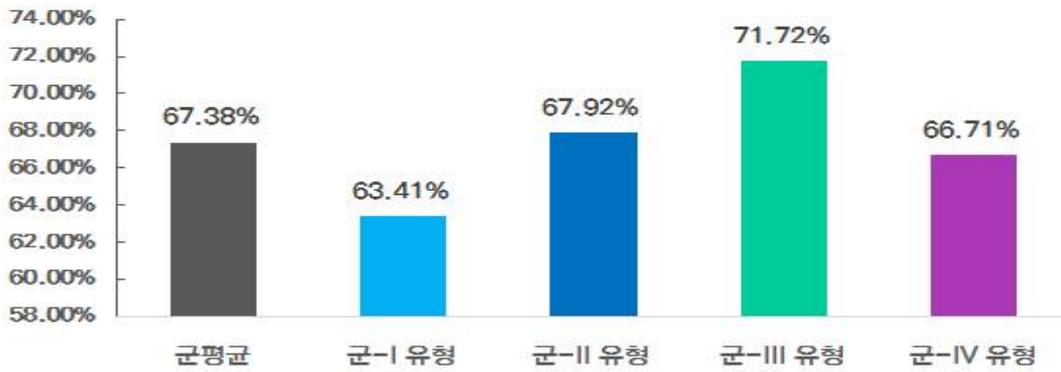
〈재정건전성 군 유형 특성〉

-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특히 광역시 소속 군들이 속해있는 군-Ⅰ 유형은 재정력도 높아 경상수지비율이 낮지만, 상대적으로 이전재원을 적게 교부받게 되므로 통합재정수지비율이 낮음
- 관리채무는 하수도 BTL 금액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인구가 많은 군-Ⅰ 유형들의 BTL 잔금이 크고 이에 따라 관리채무비율도 높은 것으로 보임. 나머지 군 유형은 대체적으로 고령화로 인해 경상수지가 높은 특성을 보이는데, 군-Ⅲ 유형이 특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군-Ⅲ 유형의 경우 인구감소율이 가장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에 따라 수입이 감소한 것이 경상수지를 높인 원인이라 분석됨
- 군단위에서는 지방채를 아예 발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체적으로 관리채무비율이 낮음. 또한 공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하수도를 다른 시군 시설을 빌려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공기업이 없어 공기업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다만 농촌이 다수인 군지역 특성상, 농작물 작황에 따라 관련공사들의 부채가 높아진 군들이 존재함. 18년의 경우 군-Ⅳ 유형의 공사들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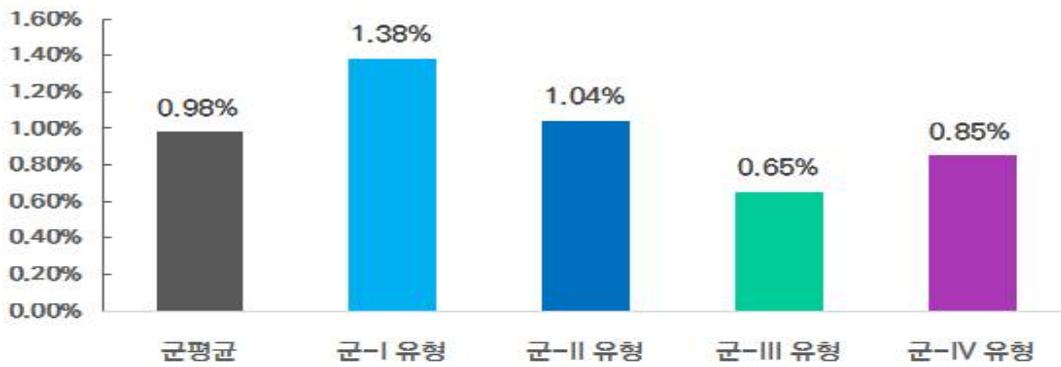
구분	통합재정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	관리채무비율	공기업부채비율
군(Ⅰ)유형	5.33%	63.41%	1.38%	25.71%
군(Ⅱ)유형	5.31%	67.92%	1.04%	2.65%
군(Ⅲ)유형	5.81%	71.72%	0.65%	4.83%
군(Ⅳ)유형	8.37%	66.71%	0.85%	12.93%
군 평균	6.22%	67.38%	0.98%	11.72%



통합재정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



관리채무비율



공기업부채비율

재정건전성 주요사례 (군-Ⅰ 유형)

- 경기 연천군(통합재정수지비율: 25.76%)
 -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교부액 및 지방세의 증가로 인한 통합재정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수입 대비 지출을 절감하여 통합재정수지규모가 증가하였음
- 대구 달성군(통합재정수지비율: -1.44%)
 - 세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상지출과 자본지출이 증가하여 통합재정수지 규모가 감소하였음. 이는 자본지출 중 고정자산취득 증가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파악됨. 특히, 읍면 청사 승강기 설치 공사 및 공설시장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문화 휴양공간 조성 사업 등의 일환에 따른 자본지출이 증가하였음
- 충북 진천군(관리채무비율: 8.43%)
 - 신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나 하수도특별회계의 하수관거정비사업 BTL 지급액으로 인한 채무가 발생하고 있음. 연차별 계획에 의거하여 상환하고 있어 매년 관리채무비율이 개선되고 있음
- 충북 진천군(공기업부채비율: 22.64%)
 - 공기업특별회계의 하수관거 정비사업 BTL로 인하여 높은 부채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이에 하수도공기업의 경영실적 개선을 위해 요금을 꾸준히 인상하는 등 영업이익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재정건전성 주요사례 (군-Ⅱ 유형)

- 충북 옥천군(경상수지비율: 59.96%)
 - 전년도에 비해 산업단지조성비와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설치 사업비 등 경상비용이 감소한 반면, 지방세수입, 경상세외수익, 지방교부세 등 경상수익이 증가하여 낮은 경상수지 실적을 보임
- 전남 해남군(경상수지비율: 49.48%)
 - 조직 및 인력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인건비, 운영비 등을 절약하여 낮은 수준의 경상수지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 전남 영암군(관리채무비율: 0.04%)
 - 채무상환계획에 의거하여 지방채를 지속적으로 상환하고 있어 환경개선특별회계 채무만이 남아있는 상태임. 이 역시 매년 국비로 이자와 원금을 지원받고 있어 실질적인 재무구조가 매우 양호한 상태임

재정건전성 주요사례 (군-Ⅲ 유형)

- 충북 영동군(통합재정수지비율: 10.58%)
 - 지출 대비 수입의 증가폭이 커 통합재정수지 규모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수입원이 빈약한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효율적 지출관리를 통한 비용 감소에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이를 위해 지출규모가 큰 경상사업에 대해 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경북 고령군(경상수지비율: 68.46%)
 - 문화 및 행사 운영비의 증가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부진한 경상수지비율을 보이고 있음. 이는 다산행정복합타운, 다산도서관 등 주민편의시설수선유지비의 증가와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주된 요인인 것으로 파악됨
- 강원 영월군(경상수지비율: 82.23%)
 - 기타직 인건비의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로 높은 경상수지비율을 보이고 있음. 이는 기타직 인건비 상승이 주된 요인인 것으로 보이며, 인건비 상승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대규모 공무직 전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임

재정건전성 주요사례 (군-Ⅳ 유형)

- 강원 고성군(경상수지비율: 78.52%)
 - 인건비 및 운영비의 증가로 인하여 경상수지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산발발생으로 인한 관련 운영비 증가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보임
 - 인건비 증가의 경우 공무직 전환 및 미지출 임금협상분 반영이 주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남
 - 운영비의 경우 산발관련 소각시설 보수사업 대행사업비, 산발헬기임차용역비, 긴급벌채비용 등 산발 관련 경비 증가가 주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남
- 전북 장수군(경상수지비율: 81.48%)
 - LPG 배관망 사업,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하수관거 사업, 소규모 상수도 시설 및 소화천 정비사업 등의 추진으로 인하여 경상비용이 증가하여 경상수지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전남 함평군(경상수지비율: 62.63%)
 - 상대적으로 빈약한 수입원을 감안하여 비용측면에서 인건비, 운영비 등의 지출증가요인을 억제하고 경상비용의 지출을 최소화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경상수지비율을 보이고 있음
- 경북 영양군(공기업부채비율: 64.94%)
 - 영영고추유통공사의 부채로서 대부분의 부채가 단기차입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영양군의 지급보증으로 금융기관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판매제품의 주 원료인 농산물을 수매하고 그해 발생한 영업이익으로 이듬해 초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구조를 갖고 있음
 - 경영개선을 통한 중장기경영전략 및 판매계획 재수립을 통해 수익구조를 개선해 나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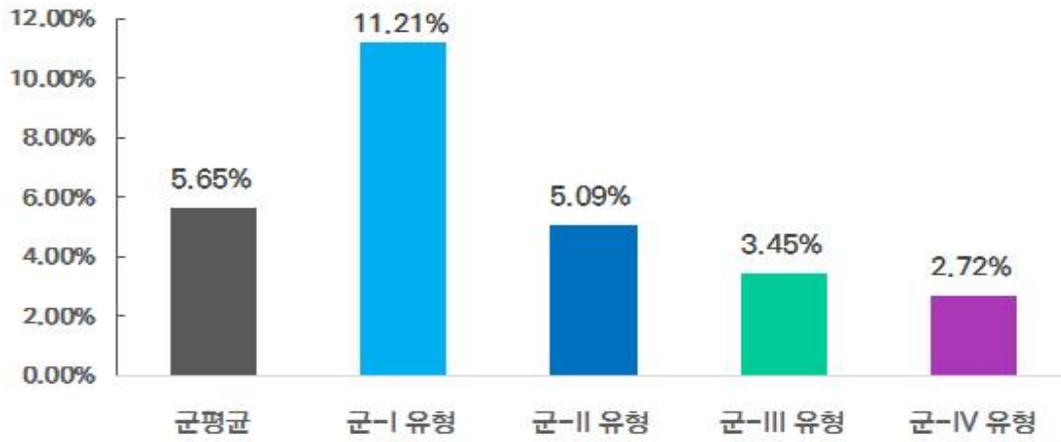
|재정효율성_세입|

- 군 유형 자치단체의 재정효율성(세입) 결과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군-Ⅰ 유형) 자체수입비율(지방세, 세외수입)은 군 평균 대비 양호한 실적으로 보이고 있으나, 체납액관리비율(지방세, 세외수입)은 군 평균 대비 부진
 - (군-Ⅱ 유형) 체납액관리비율(지방세, 세외수입)은 군 평균 대비 양호하나, 자체수입비율(지방세, 세외수입)은 군 평균 대비 부진
 - (군-Ⅲ 유형) 체납액관리비율(지방세, 세외수입)은 군 평균 대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체수입비율(지방세, 세외수입)은 군 평균 대비 부진
 - (군-Ⅳ 유형) 체납액관리비율(지방세, 세외수입)은 군 평균 대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체수입비율(지방세, 세외수입)은 군 평균 대비 부진

〈재정효율성(세입) 군 유형 특성〉

- 자체수입비율은 인구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 인구가 많을수록 자체수입비율도 높음
- 자체수입증감율은 인구증감률과 관련이 높는데, 군 유형 중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군-Ⅰ 유형만 자체수입이 증가하고 있음. 나머지 유형들은 인구감소에 따라 자체수입증감률도 음수를 보이고 있음
- 수입이 많을수록 체납액도 높게 마련이므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모두 군-Ⅰ 유형의 관리비율이 높지만, 전체적으로 군 단위 체납액 비율은 1%를 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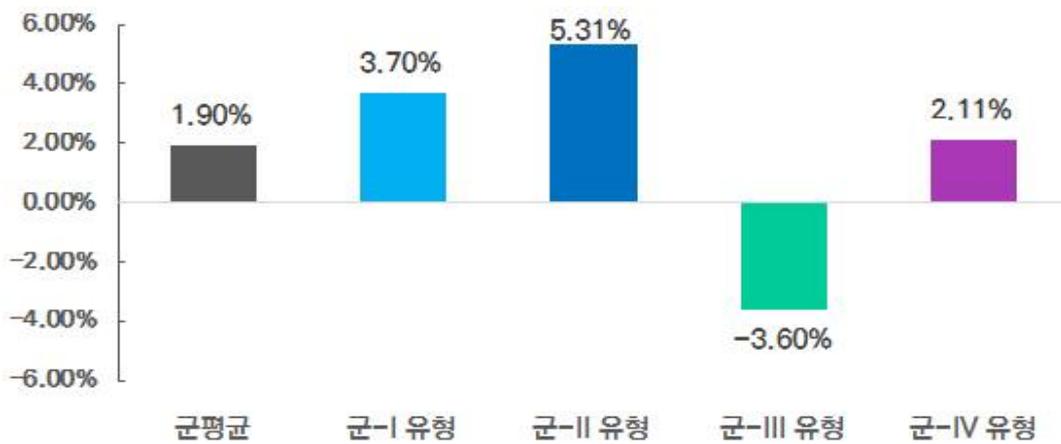
구분	자체수입비율 (지방세)	자체수입증감률 (지방세)	체납액관리비율 (지방세)	체납액증감률 (지방세)	체납액관리비율 (세외수입)	체납액증감률 (세외수입)
군(Ⅰ)유형	11.21%	2.83%	0.93%	5.54%	0.94%	3.70%
군(Ⅱ)유형	5.09%	-4.74%	0.41%	6.36%	0.39%	5.31%
군(Ⅲ)유형	3.45%	-0.65%	0.34%	4.70%	0.42%	-3.60%
군(Ⅳ)유형	2.72%	-0.52%	0.20%	4.55%	0.30%	2.11%
군 평균	5.65%	-0.72%	0.47%	5.28%	0.52%	1.90%



자체수입비율_지방세



체납액관리비율_지방세



체납액관리비율_세외수입

재정효율성(세입) 주요사례 (군-Ⅰ 유형)

- 경기 연천군(체납액관리비율_세외수입: 1.27%)
 - 유가보조금 부당이득 환수조치에 따른 체납액이 대규모로 발생하였고, 폐수종말처리장 사용료 부과에 따른 체납액이 발생하여 체납액이 증가하였음
- 경기 가평군(체납액관리비율_지방세: 1.59%)
 - 별장조사 등 신규 세원발굴과 체계적인 체납관리를 통한 체납액 축소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관내 골프장 수익성 악화에 따른 토지분 재산세가 체납되고 있으며 골프장 납세자 권리구제결정으로 인한 과오납 발생으로 지방세체납액이 증가하였음
- 충북 진천군(체납액관리비율_지방세: 0.98%)
 -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하여 상하반기 4개월에 걸쳐 체납액 일제정리를 실시하고, 체납차량에 대한 변호판 영치, 체납자별 통합안내문 발송,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접 전화로 납부를 독려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음
- 강원 홍천군(자체수입비율_지방세: 6.33%)
 -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지방세수입실적을 보이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건 상 지방세수입의 증대에 한계가 있어 현재 여건을 유지하면서 세수확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재정효율성(세입) 주요사례 (군-Ⅱ 유형)

- 충남 부여군(체납액관리비율_지방세: 0.29%)
 - 자체세입기반이 취약하고 지방세원이 빈약함에도 자체지원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이를 위해 신속한 행정처리로 압류와 공매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읍면별 체납액 관리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제의 시행을 통해 체납징수를 강화하고 있음
- 강원 정선군(자체수입비율_지방세: 7.66%)
 - 강원랜드를 기반으로 하는 법인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등 자체세입 기반이 비교적 건실한 것으로 나타남
 - 이외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수입과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의 세외수입으로 인하여 자체세입 기반이 양호한 상태임

재정효율성(세입) 주요사례 (군-Ⅲ 유형)

- 충북 보은군(자체수입비율_지방세: 4.11%)
 - 법인분 지방소득세 신고건수 및 납부세액의 증가로 인한 지방소득세 증가로 자체수입비율_지방세가 양호한 실적을 나타냄
 - 아울러 체납액징수를 위해 체납원인을 분석하여 체납고지서를 발부하고 체납자의 재산파악을 통한 재산압류, 체납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전남 장성군(체납액관리비율_지방세: 0.29%)
 - 지방세체납액 징수를 위해 특별정리기간을 약 7개월 간 운영하고 있으며, 부동산 공매 및 소송 등 체납최소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음

재정효율성(세입) 주요사례 (군-Ⅳ 유형)

- 강원 화천군(체납액관리비율_지방세: 0.15%)
 - 체납액 징수를 위해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체납액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여 집중적인 체납징수체계를 가동하고 있음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119전화 독려제, 지속적인 공매예고 및 매각을 실시하고 있음
- 전북 장수군(체납액관리비율_세외수입: 0.08%)
 - 세외수입체납 징수를 위해 체납자동차 영치, 유선을 통한 납부독려, 가상계좌 안내문자 발송, 법인 현장 사무실 방문 등의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음
- 경북 영양군(체납액관리비율_세외수입: 0.19%)
 - 세외수입 사전부과 안내 제도 운영 등의 적극적인 세외수입 체납 징수활동을 시행 중에 있음
 - 이외 주민설득 및 압류를 통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 중에 있음
- 경북 봉화군(체납액관리비율_지방세: 0.12%)
 -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체납징수 대책단을 구성하여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또한 세외수입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세외수입 종류별로 해당 실과소장 책임 하에 세외수입 체납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강원 양구군(체납액관리비율_지방세: 0.18%)
 - 체납액을 세목별로 분석하여, 체납액의 40% 이상 징수를 목표로 설정하고 지방세체납액정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체납액일제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이어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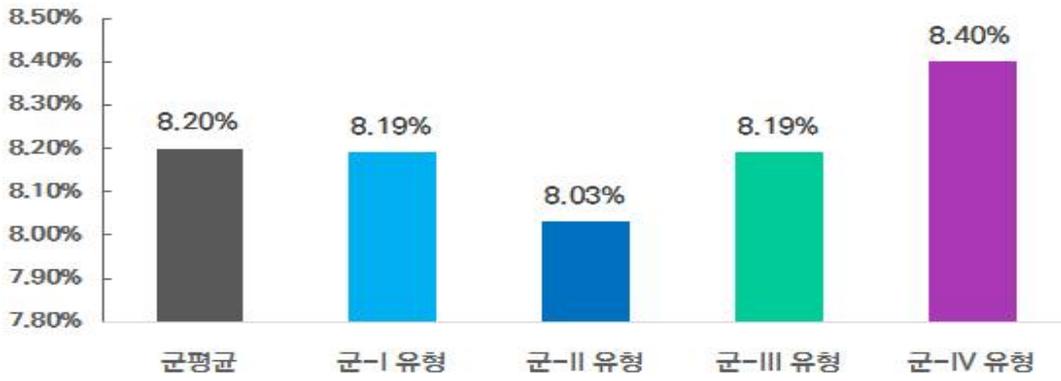
|재정효율성_세출|

- 군 유형 자치단체의 재정효율성(세출) 결과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군-Ⅰ 유형) 지방보조금비율, 지방의회경비절감률, 업무추진비절감률에서 군 평균 대비 양호한 실적으로 보이고 있으나, 출자출연전출금비율은 군 평균 대비 부진
 - (군-Ⅱ 유형) 지방보조금비율에서 군 평균 대비 양호한 실적으로 보이고 있으나,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지방의회경비절감률, 업무추진비절감률은 군 평균 대비 부진
 - (군-Ⅲ 유형) 지방보조금비율,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지방의회경비절감률에서 군 평균 대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업무추진비절감률은 군 평균 대비 부진
 - (군-Ⅳ 유형) 출자출연전출금비율과 업무추진비절감률에서 군 평균 대비 양호한 실적을 보인 반면, 지방보조금비율과 지방의회경비절감률은 군 평균 대비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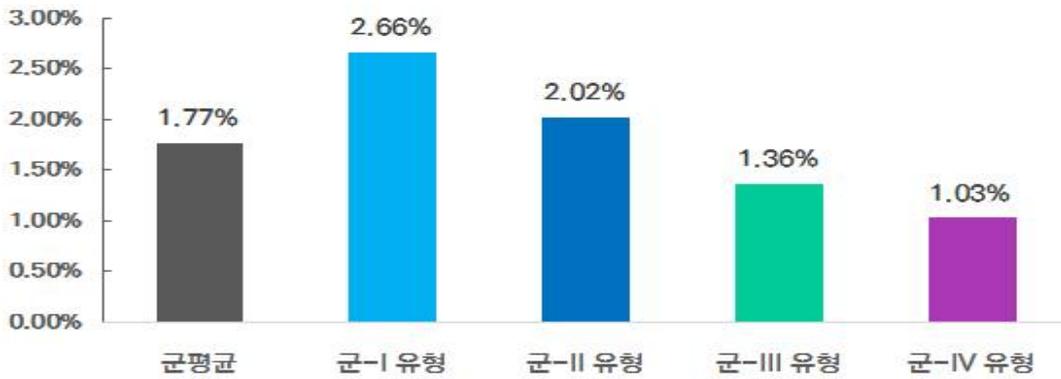
〈재정효율성(세출) 군 유형 특성〉

- 농촌지역이 많은 군단위 특성상, 지방보조금비율은 8%대로 유사함. 또한 군 유형에서는 재정력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이 늘어나는 특성이 있음
- 인구 3만 이하인 군-Ⅳ 유형의 경우에는 출자출연기관도 별로 없고 그 규모도 아주 작지만, 군-Ⅰ 유형은 출자출연기관의 수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 지방의회경비절감률, 업무추진비절감률은 각 개별 자치단체의 사정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므로 세부 유형별로 특성을 살펴보기는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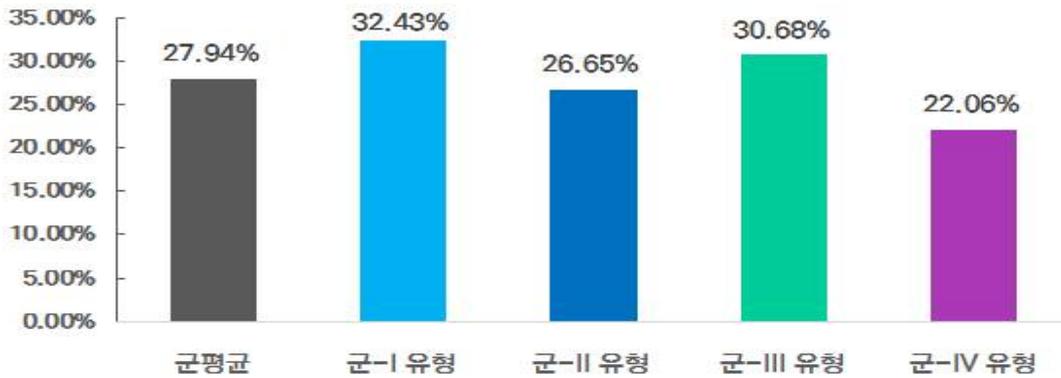
구분	지방보조금 비율	출자출연전출금 비율	지방의회경비 절감률	업무추진비 절감률
군(Ⅰ)유형	8.19%	2.66%	32.43%	21.76%
군(Ⅱ)유형	8.03%	2.02%	26.65%	20.24%
군(Ⅲ)유형	8.19%	1.36%	30.68%	18.54%
군(Ⅳ)유형	8.40%	1.03%	22.06%	21.44%
군 평균	8.20%	1.77%	27.94%	20.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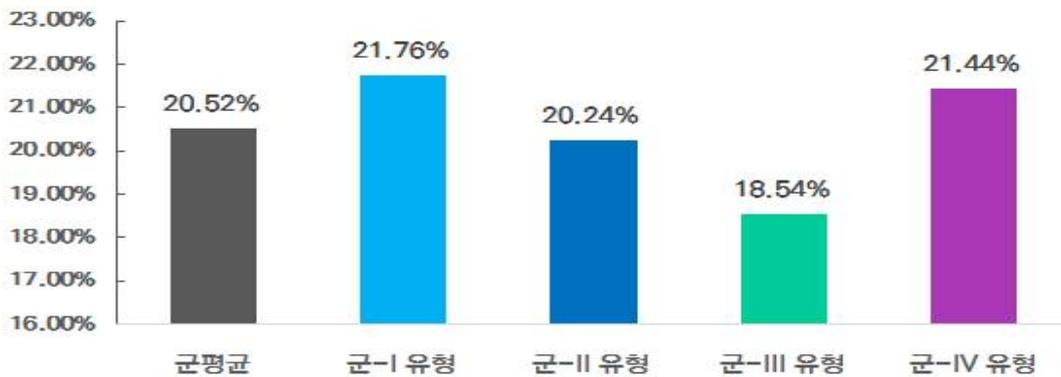
지방보조금비율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지방의회경비절감률



업무추진비절감률

재정효율성(세출) 주요사례 (군- I 유형)

- 경기 양평군(지방보조금비율: 10.94%)
 - 경기도 도민체전 유치에 따른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증가하였으며 국가 및 경기도 시책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사회복지보조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충북 음성군(출자출연전출금비율: 3.79%)
 - 기금에 대한 출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대한 법률에 의거하여 주민기금을 조성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 충남 홍성군(지방의회경비절감률: 37.98%)
 - 의정운영공통경비와 국외여비에 대한 절감을 위해 의회차원에서 유보액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해외 국외연수를 자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대구 달성군(업무추진비절감률: 24.29%)
 - 업무추진비 절감을 위해 매년 본 예산 편성 후 예산배정계획 수립 단계에서 현액기준 10% 절감 기준에 의거하여 유보액을 설정하여 예산을 운영하고 있음

재정효율성(세출) 주요사례 (군- II 유형)

- 전남 해남군(지방보조금비율: 11.11%)
 - 열악한 산업구조 개선 및 농축수산업 경쟁력 제고,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복지비 증가,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각종 행사 개최지원 등의 수요가 많아 상대적으로 높은 지방보조금비율을 보이고 있음
- 강원 평창군(지방보조금비율: 7.42%)
 - 동계올림픽 이후 관련 지방보조금을 계속하여 감축하고 있음. 이를 위해 부서별 한도액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등 지방보조사업을 철저히 관리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연계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은 전면 재검토 하는 등 강력한 보조금 관리를 추진하고 있음
- 충남 부여군(출자출연전출금비율: 5.39%)
 -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이 2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는 인건비 수요증가 및 시설관리공단 업무 특성 상 관광관련 시설 관리 업무가 많아 그에 따른 시설 보수 등의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 충북 증평군(지방의회경비절감률: 41.67%)
 - 지방의회경비 기준액을 준수하기 위하여 의회 스스로 경상경비 절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의정활동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여 선심성 및 과도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구적 노력을 추진하고 있음

재정효율성(세출) 주요사례 (군-Ⅲ 유형)

- 경북 의성군(지방보조금비율: 5.75%)
 - 문화, 노인·청소년, 농업 부문 지방보조금을 감축하여 양호한 지방보조금비율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이를 위해 부서별로 지방보조금 한도액을 배부하여 관리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심성 사업의 편성을 억제하며, 성과평가를 통해 성과미달 사업을 과감히 통폐합 및 삭감하고 있음
- 충북 괴산군(지방의회경비절감률: 60.46%)
 - 의회 자체적으로 경비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외유성 국외연수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고자 의원국외여비를 편성하지 않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음

재정효율성(세출) 주요사례 (군-Ⅳ 유형)

- 경북 군위군(지방보조금비율: 4.83%)
 - 지방보조금 감축을 위해 보조사업자 선정에 대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일몰제를 적용하는 등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조금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전북 무주군(출자출연전출금비율: 0.33%)
 - 상대적으로 넉넉지 못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출자출연전출금 지출을 최소 수준으로 억제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꼭 필요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설립한 무주교육발전 장학재단에 대한 출연을 하고 있으며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3년 동안 출연금을 동결함
- 강원 화천군(업무추진비절감률: 37.22%)
 - 당초 예산배정 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 기준액의 10%를 유보액으로 입력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절감액을 배정하지 않고 있음
 - 단체장이 업무추진비절감을 위해 의전행사 최소화, 간담회 최소화 등을 통해 솔선수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 부서가 업무추진비절감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
- 경남 의령군(지방의회경비절감률: 28.09%)
 - 의회경비 중 업무추진비에 대해 기준액 대비 유보액을 설정하여 지출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특히 의원국외여비의 경우 예산 편성을 하였으나 의회와의 협조를 통해 지출하지 않음으로써 경비를 절감하였음

3) 자치구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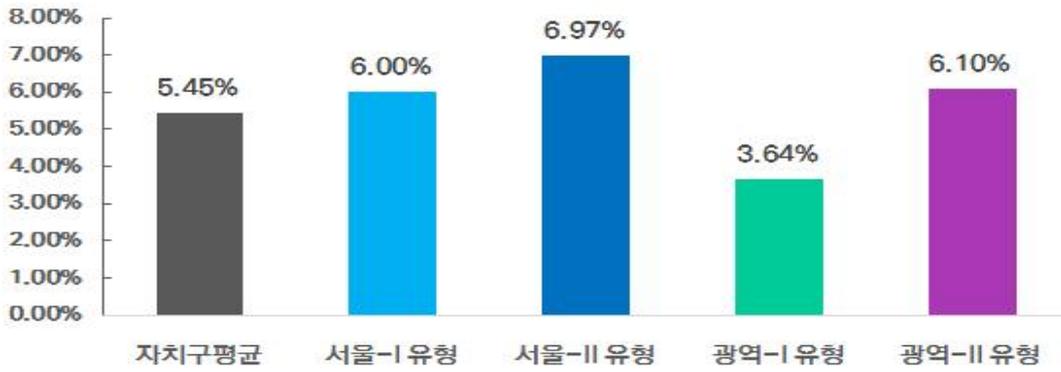
|재정건전성|

- 자치구 유형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결과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서울-Ⅰ 유형) 통합재정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 관리채무비율에서 자치구 평균 대비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공기업부채비율은 자치구 평균 대비 부진
 - (서울-Ⅱ 유형) 통합재정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 관리채무비율이 자치구 평균 대비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기업부채비율은 자치구 평균 대비 부진
 - (광역시-Ⅰ 유형) 공기업부채비율에서 자치구 평균 대비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통합재정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 관리채무비율이 자치구 평균 대비 부진
 - (광역시-Ⅱ 유형) 관리채무비율과 공기업부채비율은 자치구 평균 대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합재정수지비율과 경상수지비율이 자치구 평균 대비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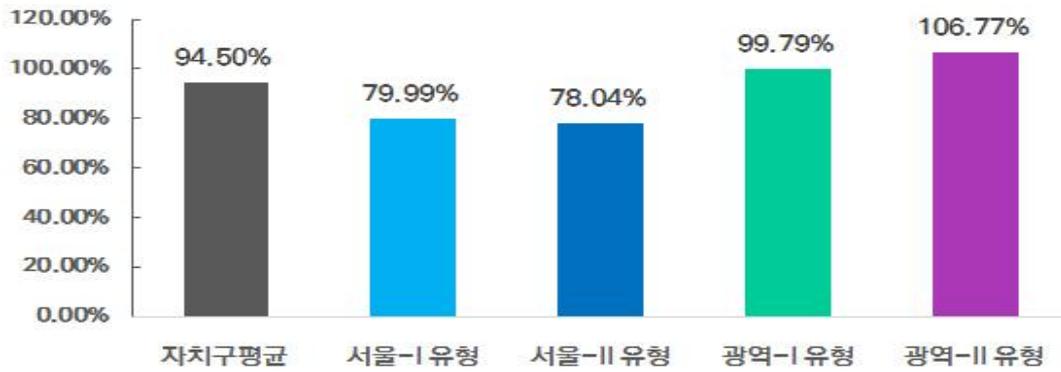
〈재정건전성 자치구 유형 특성〉

- 수입원이 제한되어 있는 자치구들은 경상수지 비율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음. 다만 재정력에서 서울시 자치구들과 나머지 광역시 자치구들 사이의 격차가 커서 경상수지비율의 격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중앙정부시책에 따른 공공부문 인건비 상승과 추가고용의 부담이 고스란히 경상수지에 나타나 광역-Ⅱ 유형의 경우에는 경상수지비율이 100%가 넘어서는 자치단체들이 많이 보이고 있음
- 도시계획, 지역개발 등 많은 부분에서 상위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자치구의 특성상 자체개발사업이 적어 관리채무비율은 아주 낮음
- 자치구의 공기업은 거의 시설관리공단인데, 인건비 상승에 비해 시설물 이용료 수입은 낮으므로 이용자가 많을수록 오히려 운영수익이 낮아지는 구조가 됨. 이에 따라 인구가 많은 서울시 자치구들의 공기업 부채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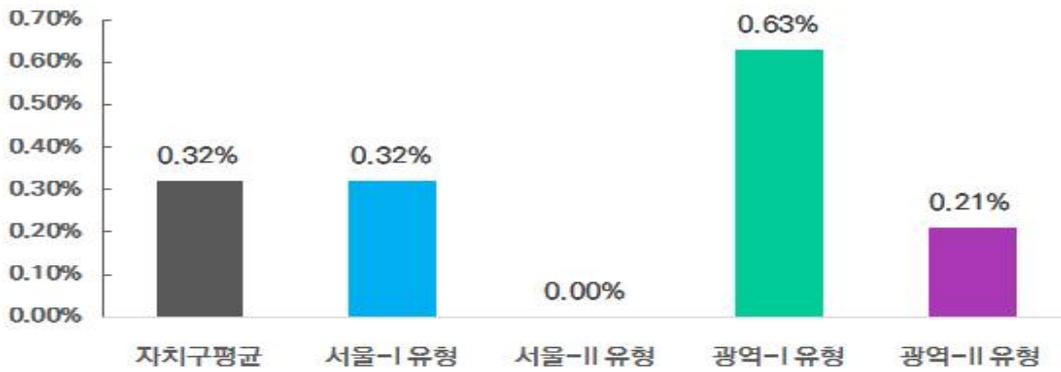
구분	통합재정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	관리채무비율	공기업부채비율
서울(Ⅰ)유형	6.00%	79.99%	0.32%	131.12%
서울(Ⅱ)유형	6.97%	78.04%	0.00%	157.06%
광역시(Ⅰ)유형	3.64%	99.79%	0.63%	72.05%
광역시(Ⅱ)유형	6.10%	106.77%	0.21%	12.95%
자치구 평균	5.45%	94.50%	0.32%	79.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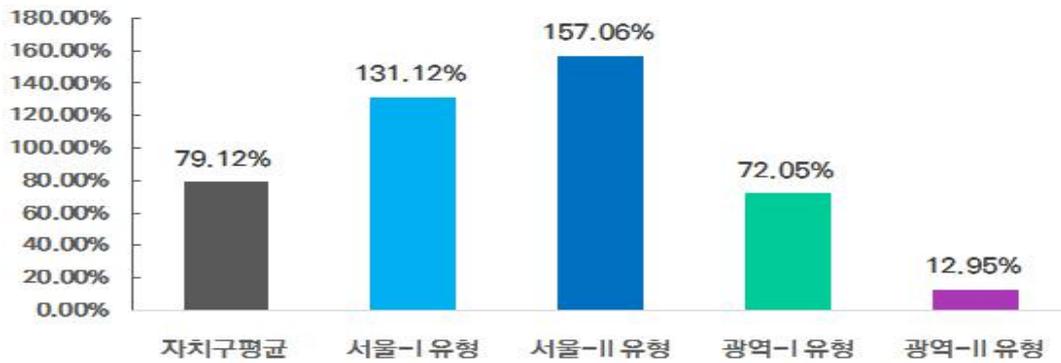
통합재정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



관리채무비율



공기업부채비율

재정건전성 주요사례 (서울- I 유형)

- 서울 강남구(통합재정수지비율: 12.98%)
 - 유형 내 타 단체에 비해 지방세수입 여건이 양호한 수준으로 이로 인한 수입의 증대가 양호한 통합재정수지비율 실적의 주된 요인인 것으로 파악됨
- 서울 노원구(경상수지비율: 65.34%)
 - 부동산교부세, 자치구조정교부금 등 경상수입이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며,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한 지출절감 노력을 통한 비용절감으로 경상수지비율이 양호한 상태를 보임

재정건전성 주요사례 (서울- II 유형)

- 서울 용산구(통합재정수지비율: 12.00%)
 - 부동산경기의 호조로 인하여 공시지가가 크게 인상되어 이로 인한 재산세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음
 - 재산세 수입을 포함한 지방세수입 증가와 함께 징수교부금 및 사용자 수익 등 세외수입의 증가 역시 양호한 통합재정수지비율의 주된 요인인 것으로 파악됨
- 서울 종로구(경상수지비율: 88.92%)
 - 공동주택의 추가 승인에 따른 재산세 수입 증가로 인한 지방세수익 증가가 양호한 경상수지비율 실적의 주된 요인인 것으로 파악됨
 - 이외 자치구조정교부금수익과 경상세외수익의 증가 역시 경상수지비율 개선의 주된 요인인 것으로 파악됨

재정건전성 주요사례 (광역- I 유형)

- 광주 북구(경상수지비율: 115.04%)
 - 유형 내 타 단체 대비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와 이로 인한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복지관련 수요 발생으로 인하여 경상비용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의 지속적 증원으로 인하여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울산 북구(경상수지비율: 129.07%)
 - 경상수익 측면에서 자체조달수익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는 반면, 비용 측면에서 전년대비 인건비 증가로 인하여 경상수지비율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정부시책에 따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회복지분야 인력 증원 등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가 주된 요인인 것으로 파악됨

재정건전성 주요사례 (광역-Ⅱ 유형)

- 부산 사하구(경상수지비율: 155.01%)
 - 경상수익 증가 대비 높은 경상비용의 증가가 경상수지비율 증가의 원인인 것으로 보임
 - 경상비용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위탁대행사업비 증가에 따른 운영비 증가가 있음
 - 구체적으로는 영유아보육료, 장애인지원, 복지관 건립 등 사회복지 관련 위탁사업비가 추가되어 경상비용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영유아보육료의 민간위탁대행사업비로의 회계항목 전환이 경상비용 증가의 주된 요인 중 하나인 것으로 파악됨
- 광주 남구(경상수지비율: 111.91%)
 -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상비용 증가가 계속되고 있어 높은 경상수지비율을 보이고 있음
 - 이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기초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인건비 인상이 주된 요인인 것으로 파악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비용 중 운영비 축소를 위한 의회비 및 업무추진비 절감 시책을 추진하고 있어 전년에 비해서는 다소 개선된 경상수지비율 실적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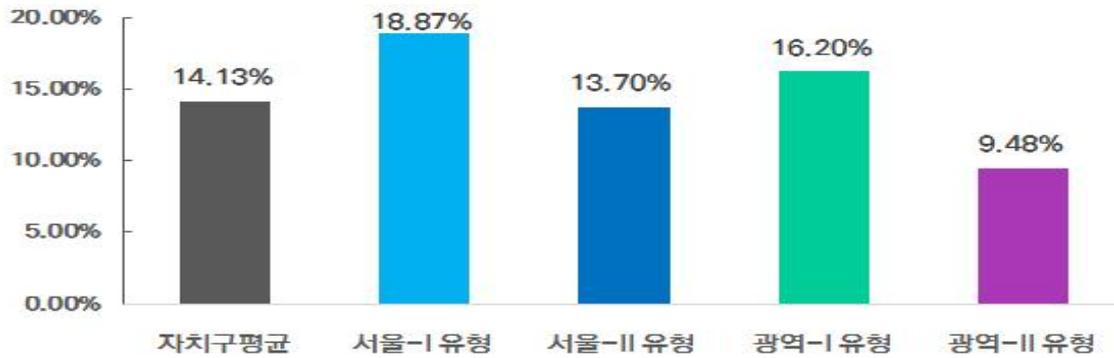
|재정효율성_세입

- 자치구 유형 자치단체의 재정효율성(세입) 결과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서울-Ⅰ 유형) 자체수입비율(지방세, 세외수입)과 체납액관리비율(지방세)의 경우 자치구 평균 대비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체납액관리비율(세외수입)은 자치구 평균 대비 부진
 - (서울-Ⅱ 유형) 자체수입비율(지방세, 세외수입)과 체납액관리비율(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관리 지표가 자치구 평균 대비 부진
 - (광역-Ⅰ 유형) 자체수입비율(지방세, 세외수입)과 체납액관리비율(세외수입)의 경우 자치구 평균 대비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체납액관리비율(지방세)은 자치구 평균 대비 부진
 - (광역-Ⅱ 유형) 체납액관리비율(지방세, 세외수입)의 경우 자치구 평균 대비 양호한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체수입비율(지방세, 세외수입)은 자치구 평균 대비 부진

〈재정효율성(세입) 자치구 유형 특성〉

- 자치구의 자체수입은 재산세와 등록면허세임. 재산세는 토지, 건물 등 부동산 가치와 관련이 깊고, 등록면허세는 인구나 관련이 깊음. 따라서 자체수입비율은 부동산 가치가 높고, 인구가 많은 서울시 소속 자치구들이 높음
- 다만 자치구 유형 중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광역-Ⅰ 유형의 자치구들은 자체수입증가비율도 가장 높음
- 수입이 많을수록 체납액도 높게 마련이지만, 체납액증감률은 체납행정력과 관련이 깊음. 서울시 소속 자치구들의 체납액 증감률이 모두 감소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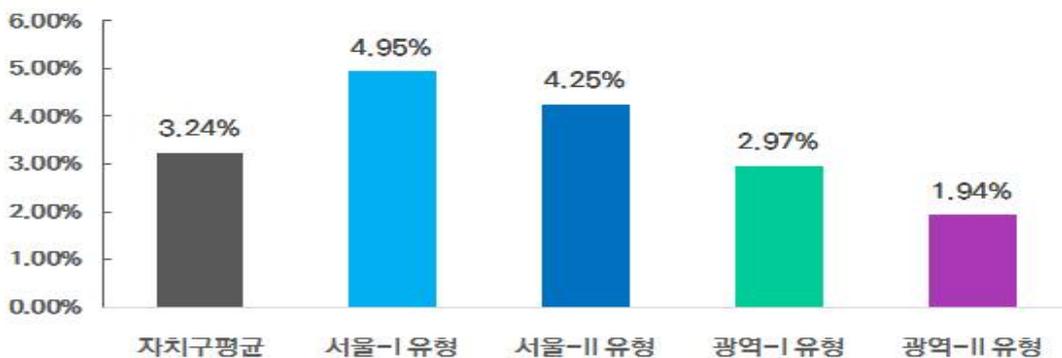
구분	자체수입비율 (지방세)	자체수입증감률 (지방세)	체납액관리비율 (지방세)	체납액증감률 (지방세)	체납액관리비율 (세외수입)	체납액증감률 (세외수입)
서울(Ⅰ)유형	18.87%	7.11%	0.42%	-4.35%	4.95%	-2.11%
서울(Ⅱ)유형	13.70%	7.35%	0.60%	-1.13%	4.25%	-1.95%
광역시(Ⅰ)유형	16.20%	8.64%	0.67%	3.41%	2.97%	-3.20%
광역시(Ⅱ)유형	9.48%	7.03%	0.27%	-2.83%	1.94%	3.50%
자치구 평균	14.13%	7.61%	0.48%	-0.83%	3.24%	-0.64%



자체수입비율_지방세



체납액관리비율_지방세



체납액관리비율_세외수입

재정효율성(세입) 주요사례 (서울- I 유형)

- 서울 성동구(자체수입비율_지방세: 17.44%)
 - 성수동 상권 활성화 및 재개발에 따른 부동산 공시가격이 상승하여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재건축 아파트 입주로 인한 재산세 과세 기반 확대가 주된 자체수입비율_지방세 증대 원인인 것으로 파악됨
- 서울 중구(체납액관리비율_지방세: 0.73%)
 - 유형 내 타 단체에 비해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들이 집중되어 있어 재산세 가액이 상대적으로 커 지방세수입원이 양호한 편이나, 이로 인한 고액 체납 역시 많은 것으로 나타남

재정효율성(세입) 주요사례 (서울- II 유형)

- 서울 종로구(자체수입비율_지방세: 23.60%)
 - 유형 내 타 단체 대비 높은 공시지가 상승률로 인한 재산세수입 증가가 주된 지방세수입 증대의 요인인 것으로 파악됨
 - 이는 공동주택에 대한 추가승인으로 인한 공시지가 상승이 주된 요인인 것으로 파악됨
- 서울 강북구(체납액관리비율_지방세: 0.08%)
 - 징수불능으로 판단되어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지 않던 2000년 이전 체납에 대해서도 금융재산 압류예고 안내문자를 전송하여 압류를 실시하고, 체납자 및 무재산 체납자에 대한 정기적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 확인 시 즉시 압류하는 등의 강도 높은 징수시책을 시행하고 있음
- 서울 금천구(체납액관리비율_지방세: 0.17%)
 - 나이스를 통한 체납자 예금조회 후 즉시 압류, 체납자에 대한 공공기록정보 제공,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고발, 출국금지, 체납징수 및 결손처분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 체납관리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재정효율성(세입) 주요사례 (광역- I 유형)

- 부산 강서구(자체수입비율_지방세: 27.58%)
 - 부산 서부산개발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지방세수입 증대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지방세수입비율을 보이고 있음
 - 이밖에 국제산업물류도시 건설, 개별공시지가 상승 및 건축물 가격상승, 미음산단 과세기반 강화 등 지방세수입증대 요인이 다양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인천 미추홀구(체납액관리비율_세외수입: 2.58%)
 - 세외수입 체납 관리를 위해 체납액 통합 안내문 및 고지서 발송, 징수대책 보고회 실시, 부동산·차량·각종 채권 압류, 영치예고문 발송 및 차량번호판 영치 등 체납징수 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재정효율성(세입) 주요사례 (광역-II 유형)

- 부산 사상구(체납액관리비율_세외수입: 1.27%)
 - 세무부서에서 세외수입의 체납액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전담팀을 구성하여 집중적으로 체납관리 활동을 벌이고 있음
 - 또한 무재산 및 공매 시 배분이익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이월을 최소화 하고 있음
- 대구 중구(체납액관리비율_지방세: 0.31%)
 -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특별정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체납특별징수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음
 - 특히 소액체납자 문자메세지 안내, 행정제재 강화 등의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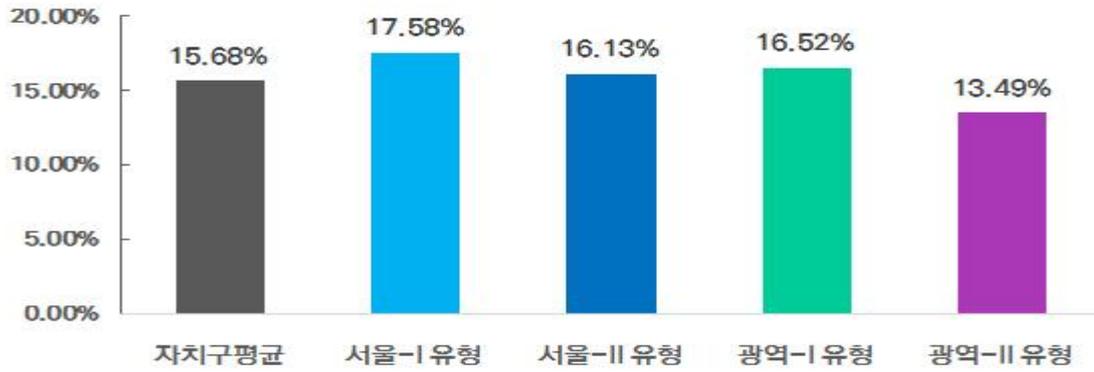
|재정효율성_세출|

- 자치구 유형 자치단체의 재정효율성(세출) 결과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서울-I 유형) 업무추진비절감률의 경우 자치구 평균 대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방보조금비율,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지방의회경비절감률은 자치구 평균 대비 부진
 - (서울-II 유형) 업무추진비절감률에서 자치구 평균 대비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지방보조금비율,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지방의회경비절감률은 자치구 평균 대비 부진
 - (광역-I 유형) 출자출연전출금비율과 지방의회경비절감률의 경우 자치구 평균 대비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방보조금비율과 업무추진비절감률은 자치구 평균 대비 부진
 - (광역-II 유형) 지방보조금비율,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지방의회경비절감률에서 자치구 평균 대비 양호한 실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업무추진비절감률은 자치구 평균 대비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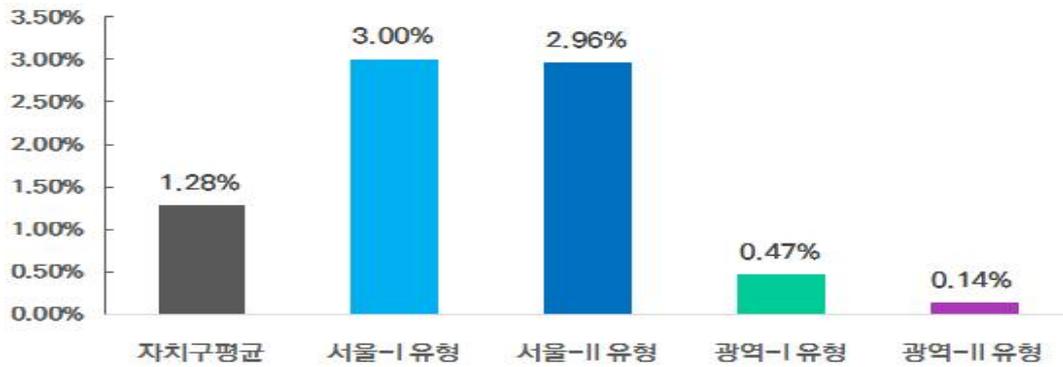
〈재정효율성(세출) 자치구 유형 특성〉

- 자치구 유형에서 지방보조금과 출자출연전출금비율은 일반적으로 재정력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남. 서울시 지역의 지방보조금과 출자출연전출금 비율이 높으며, 재정력이 높은 자치구들의 비율이 더 높음
- 지방의회경비절감률, 업무추진비절감률은 각 개별 자치단체의 사정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므로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기는 어려움
- 다만 서울시의 경우, 업무추진비 절감률이 높는데 비해 지방의회경비절감률은 낮음. 반면, 광역시 유형에서는 업무추진비 절감률은 낮는데 비해 지방의회경비절감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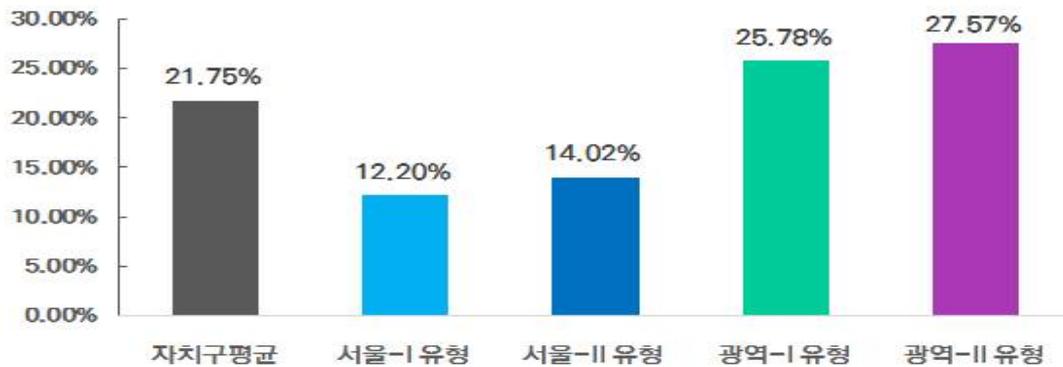
구분	지방보조금 비율	출자출연전출금 비율	지방의회경비 절감률	업무추진비 절감률
서울(I)유형	17.58%	3.00%	12.20%	32.47%
서울(II)유형	16.13%	2.96%	14.02%	35.61%
광역(I)유형	16.52%	0.47%	25.78%	13.76%
광역(II)유형	13.49%	0.14%	27.57%	20.25%
자치구 평균	15.68%	1.28%	21.75%	23.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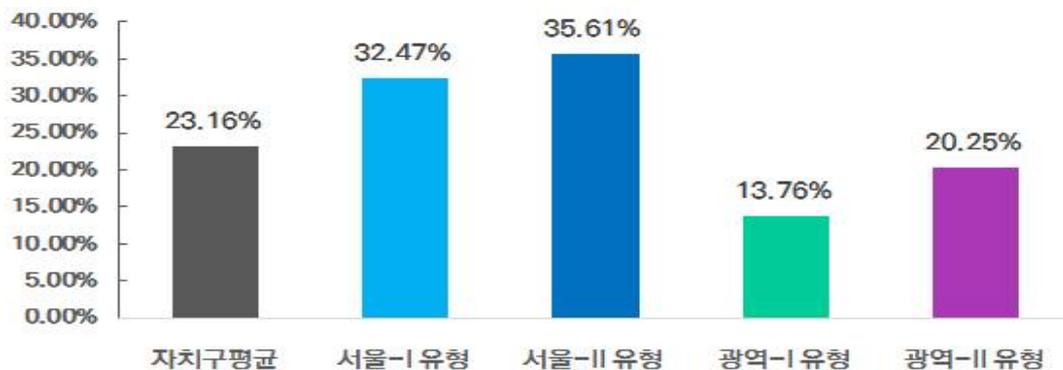
지방보조금비율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지방의회경비절감률



업무추진비절감률

재정효율성(세출) 주요사례 (서울- I 유형)

- 서울 강서구(지방보조금비율: 20.16%)
 - 사회복지분야 수요층과 기관이 많아 보조사업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지방보조금비율을 보이고 있음
 - 이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한 보조사업에 대한 엄밀한 성과평가 등을 통한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서울 양천구(출자출연전출금비율: 2.05%)
 - 인건비 인상 수요로 인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출자출연전출금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 나 등급에 따른 인센티브 반영 등으로 인해 인건비와 운영비가 전년대비 증가하였기 때문임
- 서울 노원구(업무추진비절감률: 34.68%)
 - 연도별 예산 편성 시 업무추진비를 실질적으로 동결하고 있으며, 사업의 시급성, 중요도, 타당성을 따져 일부만 반영하는 등 절감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단체장부터 일선부서까지 매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등 기관 스스로 업무추진비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재정효율성(세출) 주요사례 (서울- II 유형)

- 서울 중랑구(지방보조금비율: 19.29%)
 - 유형 내 타 단체에 비해 사회복지보조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아 사회복지보조금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공공임대아파트 비율이 높아 사회복지수요 계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며, 기초수급자 인구비율이 높아 사회복지사업 관련 보조금 수요가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임
- 서울 광진구(출자출연전출금비율: 3.65%)
 - 광진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축소하는 등 출연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으나, 시설관리공단 건물 개보수로 인한 운영비 증대 수요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증대 수요로 인하여 전출금이 증가하였음
- 서울 은평구(지방의회경비절감률: 42.31%)
 - 전년대비 의원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원운영업무추진비 등 모든 의회경비 항목에서 지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국외여비를 지출하지 아니하는 등 의회차원의 경비절감 노력이 있었음
- 서울 용산구(업무추진비절감률: 51.90%)
 -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업무추진비를 기준액 범위 내에서 편성·집행하고 있으며, 특히 예산편성 시 유보액 설정을 통한 절감 노력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음

재정효율성(세출) 주요사례 (광역- I 유형)

- 광주 북구(지방보조금비율: 23.41%)
 - 매년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종 현물성 급여 지원사업 등으로 인한 의무지출성 복지예산점유율이 높은 편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지속적 증가 역시 사회복지보조금 증가의 주된 요인인 것으로 파악됨
- 울산 남구(출자출연전출금비율: 3.49%)
 -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자본전출 감소로 전년대비 감소한 전출금 규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래문화재단, 장학재단 등의 재단출연금이 지속적으로 지출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출자출연전출금비율을 보이고 있음
- 부산 부산진구(지방의회경비절감률: 48.31%)
 - 의회차원의 자체적 경비절감 시책 추진으로 높은 지방의회경비절감 실적을 보이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업무추진비와 여비 등 경비를 전년대비 감액하여 지출하고, 의원의 해외출장을 실시하지 않는 등의 국외여비 절감노력이 있었음
- 대구 달서구(업무추진비절감률: 26.97%)
 - 예산 배정 시 절감운용계획을 함께 수립하여 전 부서에 통보하고 업무추진비 관련 14개 편성목에 대해 5% 의무절감을 목표로 관리하는 등 업무추진비절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지역경기 활성화에 재투자하여 재정효율성을 높이고 있음

재정효율성(세출) 주요사례 (광역- II 유형)

- 부산 사하구(지방보조금비율: 5.28%)
 - 지방보조금 관리를 위해 지방보조금 총액한도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음. 이를 위해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및 심의를 강화하고 결과를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고 있음
- 부산 중구(지방보조금비율: 5.13%)
 - 신규보조사업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성과평가를 매년 실시하는 등 보조사업 관리를 강화하였음
 - 3년 지속사업의 경우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사후평가를 강화하여 보조금 총액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음
 - 세입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여 세출의 효율적 관리에 더욱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 광주 동구(출자출연전출금비율: 0.06%)
 - 필수불가결한 출연금을 제외한 출자출연전출금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있으며, 특히 신규 출연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하여 출연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적극 예방하고 있음
- 부산 동래구(지방의회경비절감률: 48.22%)
 - 의회경비 절감 추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필요예산만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대해서는 5% 유보액을 의무적으로 편성함으로써 의회경비를 절감하고 있음
- 대구 서구(지방의회경비절감률: 29.92%)
 - 기준경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함으로써 지방의회경비를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해외연수 심사위원회 구성 시 지방의회 의원을 배제하여 구성하고, 해외연수 계획서를 의회누리집에 공개하도록 제도화하는 등 국외여비 절감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Ⅲ. 지방재정분석 결과의 활용

1. 지방재정분석 주요결과와 개선방안	153
가. 재정분석의 성과	153
나. 재정분석결과 부진지표에 대한 개선방안	154
2. 지방재정분석제도의 향후 발전방향	156
가. 재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분석방법의 발굴	156
나. 활용도 높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체계 구축	157

1. 지방재정분석 주요결과와 개선방안

가. 재정분석의 성과

1) 재정건전성의 향상

“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 노력의 지속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강화** ”

- '18년도에 대한 재정분석 결과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채무관리와 지출개선 노력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 최근 3년('16년~'18년) 연속으로 채무 및 부채 측면에서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통합재정수지비율이 다소 부진한 실적을 보임
- 경상수지의 경우 인건비 증가로 인한 경상비용의 증가로 전년대비 소폭상승 하였으나 지난 5년 간 추이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양호
- 자치단체의 꾸준한 채무 감축 노력의 결과로 관리채무비율이 꾸준히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건전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 통합재정수지의 지속적 흑자 유지를 위해 세입확충과 비용절감 노력을 지속하고, 통합재정수지가 감소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적극집행 및 정확한 세입추계 등을 통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운영의 효율화 필요

2) 재정효율성의 개선

“ **자치단체 재정운영 효율성 강화 노력의 결과로 외부자원관리 및 내부경비관리를 포함한 세출효율성 측면에서 양호한 실적** ”

- '18년 재정분석결과, 효율성 지표 중에서 세입관리(자체수입증감률, 세외수입증감률) 부문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재정효율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자체수입비율 중 지방세수입비율과 같은 세입관련 지표와 체납액관리비율을 포함한 징수관리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어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방세수입증감률과 세외수입증감률의 경우 다소 부진한 실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출자출연전출금 증감률이 다소 완화되고 지방의회경비절감률과 업무추진비절감률이 개선되어 내부경비관리에 있어 양호한 실적을 나타냄

나. 재정분석결과 부진지표에 대한 개선방안

“ ’18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결과 재정건전성 분야 중 통합재정수지비율과 공기업 부문 중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이 부진하여 개선이 필요 ”

- 통합재정수지의 지속적 흑자 유지를 위해 세입확충과 비용절감 노력을 지속하고, 통합재정수지가 감소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적극집행 및 정확한 세입추계 등을 통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운영의 효율화 필요
- 건전한 재정운영 기초를 유지하기 위해 꾸준한 채무 및 부채관리가 필요할 것이며, 통합부채 중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의 부채 관리를 위해 면밀한 계획적 관리가 필요

“ 재정효율성 분야 세입관리 부문에서 자체수입비율과 증감률(지방세, 세외수입)이 세출관리 부문에서는 지방보조금증감률이 다소 부진하여 개선이 필요 ”

- 세입실적의 개선을 통한 효율적 세입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징수하는 등의 징수관리 노력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
- 신규 지출(출자출연전출금, 지방보조금) 결정 시 향후 재정부담 등을 면밀히 검토 한 후 집행하는 등 효율적 외부경비지원에 대한 관리가 필요

|통합재정수지비율|

- 통합재정수지의 흑자기조 유지를 위해 지방세수입확충을 비롯한 세입확충 노력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할 것이며, 수입 증가 대비 상대적으로 큰 지출 증가로 인하여 통합재정수지규모가 감소하고 있어 효율적 재정운영을 통한 비용절감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임
- 특히 사회복지직 공무원 증원 및 계약직의 정규직화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지출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자치단체 인건비 부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임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의 개선을 위해 직영기업 및 도시철도에 대한 요금인상을 포함한 요금현실화 시책의 꾸준한 추진과 함께 경영실적 개선을 위한 부채규모 축소 등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할 것임

|자체수입증감률|

- 부동산경기활성화, 국세실적개선, 지방세제도 개편 등과 같은 자체수입 증가의 외부효과가 줄어들고 있어, 자체수입증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신세원발굴 노력과 면세 및 감면 정책 정비에 대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징수관리를 통한 지방세수입증대 노력이 필요할 것임

|지방보조금증감률|

- 아동지원, 육아지원 등 저출산 대책을 위한 보조금과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환경 관련 보조금 증가로 인한 보조금 지출 증가로 지방보조금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이로 인한 재정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강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운영 강화 등을 통한 지방보조금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

2. 지방재정분석제도의 향후 발전방향

가. 재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분석방법의 발굴

“ 재정분권의 강화, 재정지율성 및 책임성 증대 등 최근의 지방재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규지표 발굴을 포함한 새로운 재정분석 방법의 발굴이 필요 ”

1) 공공서비스 제공 관련 질적 분석 필요

- 효율성 지표 중 공공서비스 제공 관련 지표에 대한 분석방법의 개선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을 통한 공공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효율성을 분석·평가함에 있어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사회적 효용 극대화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여 재정운영 효율성 분석·평가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재정사업자율평가, 지방보조사업성과평가 등과 연계하여 지방재정운영의 배분적 효율성을 분석·평가하는 방안의 고려가 필요

2)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재정환경변화의 반영

- 지방자치단체 재정활동을 둘러싼 재정환경변화를 반영한 재정분석 지표체계 구축이 필요
- 재정분권의 확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감 있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의 필요성이 대두
 - 적절한 예산편성, 예산집행 및 운용의 효율성 제고
 - 불용액, 이월액 최소화를 통한 계획적 재정운영 제고
- 지방자치단체 재정활동에 대한 시각 변화에 대응하는 재정분석의 필요성 대두
 - 경기활성, 일자리창출 등과 관련한 재정활동을 위한 채무발행의 경우에 대해서는 발생 원인을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적정수준의 채무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3) 정성평가 지표의 도입이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지표의 도입이 필요
 - 재정분석 결과 중에서 단기간에 성과가 나지 않는 자치단체 노력의 시도나, 의도는 좋았으나 성과가 부족한 시책에 대해서 가점을 주는 방식의 고려가 필요
 - 재정상황에 대한 아무런 개선 노력 없이 평균 점수를 획득하는 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를 위한 방안으로서 고려가 필요
- 재정지출 활동에 대한 재정성과 측정을 위한 질적 지표 보완이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성과 측정을 위하여 지역여건, 산업경제 변화 등 미래 재정영향 등에 대한 심층 분석의 추가가 필요
 - 비계량 지표를 활용한 질적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표체계 보완이 필요

나. 활용도 높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체계 구축

“ 재정분석 결과의 환류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보다 활용도 높은 재정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분석 결과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 ”

1) 재정적 현안이슈에 대한 수시분석의 확대 실시

- 분석지표를 활용한 정기적 재정분석 이외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자치단체에 대한 원인을 찾아내서 개선안을 제시하기 위해, 재정적 측면 뿐 아니라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요소 등을 활용한 현안이슈분석의 확대 실시가 필요

2) 재정컨설팅 제도와의 연계강화

- 재정분석결과 부진단체를 대상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거나 겪을 가능성이 높은 단체에 대해 자율적 재정위험 수준에 대한 사전 점검 차원에서 재정컨설팅을 실시
 - 언론보도, 민원발생 등을 통한 재정적 이슈가 발생하는 자치단체에 대해 재정분석 지표결과를 활용하여 수시로 재정컨설팅을 실시
 - 재정분석을 사후적인 지표분석·평가 위주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에 대한 실질적 지원 기능 수행을 위하여 재정컨설팅 제도와의 연계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

3) 재정분석 전담 조직의 운영

-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자치단체에 대해 주제별, 항목별로 재정분석을 수시로 실시하고, 재정분석지표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을 통해 재정분석이 사후분석·평가에 머무르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과정에 대한 수시분석결과 도출을 위해 재정분석과 재정컨설팅을 전담하는 상시조직의 설치·운영이 필요
- 재정컨설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재정분석지표에 대한 결과 도출이 상시적으로 필요하며 행정안전부와의 긴밀한 협업관계 구축을 위해서도 재정분석·컨설팅 전담 조직의 상시 운영이 필요

지표별 산식	161
지표개선 및 경과	165

지표별 산식

▲(상향), ▼(하향)

분야	분석지표	산식	대상회계	속성
재정 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frac{\text{통합재정수지}}{\text{통합재정규모}} \times 100(\%)$ <p>※ 정부(행정안전부) 통합재정수지 기준에 의함</p> <p>*통합재정수지: 당해연도의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로서 재정활동의 적자 또는 흑자 등 재정 운영수지를 측정 ·통합재정수지=통합재정수입-통합재정지출</p> <p>*통합재정수입: 총수입에서 보전수입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 규모 ·보전수입=순세계잉여금, 지방채 차입금 ·통합재정수입=경상수입(지방세,세외수입)+이전수입(교부세, 보조금, 조정교부금)+자본수입+융자회수</p> <p>*통합재정지출: 총지출에서 차입금상환과 다음연도 이월금, 채무상환 등 보전지출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지출 ·보전지출=지방채원금상환, 국시도비보조금 반환 등 ·통합재정지출=경상지출(인건비, 운영비 등)+자본지출+융자지출</p> <p>*통합재정규모: 자치단체의 1년 동안 총지출에서 채무상환 등 보전지출을 차감한 순수재무활동 규모 ·통합재정규모=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융자지출은 융자회수를 차감한 순융자만 계상</p> <p>※ 기초자치단체 지역개발기금 관련 융자관련 수입 및 상환은 보전수입 및 보전지출에 해당하므로 통합재정수지 산정에서 제외</p>	통합회계	▲
	2. 경상수지비율	$\frac{\text{경상비용}}{\text{경상수익}} \times 100(\%)$ <p>※ 경상비용: 인건비+운영비+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 경상수익: 지방세수익+경상세외수익+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수익+재정보전금수익 - 지방교부세는 보통·분권·부동산교부세를 모두 포함하여 작성(특별교부세 제외)</p>	통합회계	▼
	3. 관리채무비율	$\frac{\text{지방채무잔액(BTL 지급잔액 포함)}}{\text{2018년 세입결산액}} \times 100(\%)$ <p>※ 지방채무잔액은 2018년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 산정 시 적용하는 지방채무잔액 적용 ※ 지방채무잔액 ⇒ 지방채증권+차입금+채무부담행위+보증채무 이행책임액+BTL지급잔액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특별회계·기금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상환하는 금액은 제외 ⇒ 지방채무잔액은 원금기준으로 작성 ※ BTL 지급잔액 ⇒ 준공후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이 이전된 시설물에 대해</p>	통합회계	▼

분야	분석지표	산식	대상회계	속성
		결산일 기준으로 향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의무가 생긴 총액 중 순지방비로 지급할 금액		
	4. 통합유동부채비율	$\frac{\text{유동부채}}{\text{유동자산}} \times 100(\%)$ ※ 통합부채 현황보고서의 유동부채·유동자산 항목	통합회계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
	5. 공기업부채비율	$\frac{\text{부채총액}}{\text{자기자본}} \times 100(\%)$ ※ 지방공기업 재정상태표 상의 자본, 부채 ※ 지방공기업은 직영기업, 공사, 공단 포함	공기업회계 (직영,공사,공단)	▼
	6.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frac{\text{영업이익}}{\text{총자본}} \times 100(\%)$ ※ 영업이익: 지방공기업 손익계산서 상의 영업이익 ※ 총자본: 지방공기업 재정상태표 상의 총자본(자본+부채)	공기업회계 (직영, 공사, 공단)	▲
재정 효율성	7-1. 자체수입비율 (증감률)_지방세	7-1. 자체수입비율_지방세(%) $\frac{\text{2018년 기준 지방세 실제수납액}}{\text{2018년도 세입결산액}} \times 100(\%)$ 자체수입증감률_지방세(%) $\frac{(\text{2018년 기준 지방세 실제수납액} - \text{2017년 기준 지방세 실제수납액})}{\text{2017년 기준 지방세 실제수납액}} \times 100(\%)$ ※ 지방세 실제수납액 : 보통세(111) + 목적세(112) - 지방교육세(112-02) 및 과년도(지년년도 수입)분(113) 제외	일반회계	▲
	7-2. 자체수입비율 (증감률)_세외수입	7-2. 자체수입비율_세외수입(%) $\frac{\text{2018년 기준 세외수입 실제수납액}}{\text{2018년도 세입결산액}} \times 100(\%)$ 자체수입증감률_세외수입(%) $\frac{(\text{2018년 기준 세외수입 실제수납액} - \text{2017년 기준 세외수입 실제수납액})}{\text{2017년 기준 세외수입 실제수납액}} \times 100(\%)$ ※ 세외수입 = 경상세외수입 + 임시세외수입	일반회계	▲
	8.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8. 지방세징수율(%) $(\text{지방세 실제수납액} \div \text{지방세 징수결정액}) \times 100$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frac{\text{2018년도 지방세징수율}}{\text{2017년도 지방세징수율}}$ ※ 과년도분 및 자동차세(주행분※), 지방소비세 부과징수실적은 제외 - 주행분 : 자동차세 중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일반회계	▲
	9-1. 체납액관리비율 (증감률)_지방세	9-1. 체납액관리비율_지방세(%) $\frac{\text{2018년 말 지방세 체납액}}{\text{2018년도 세입결산액}} \times 100(\%)$ 체납액증감률_지방세(%)	일반회계	▼

분야	분석지표	산식	대상회계	속성
		$\frac{(2018\text{년도 지방세 체납액} - 2017\text{년도 지방세 체납액})}{2017\text{년도 지방세 체납액}} \times 100(\%)$ <p>※ 2018년 지방세 체납액 = 2018년 지방세 징수결정액 - 2018년 지방세 실제수납액</p> <p>※ 2017년 지방세 체납액 = 2017년 지방세 징수결정액 - 2017년 지방세 실제수납액</p>		
	9-2. 체납액관리비율 (증감률)_세외수입	<p>9-2. 체납액관리비율_세외수입(%)</p> $\frac{2018\text{년 말 세외수입 체납액}}{2018\text{년도 세입결산액}} \times 100(\%)$ <p>체납액증감률_세외수입(%)</p> $\frac{(2018\text{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 2017\text{년도 세외수입 체납액})}{2017\text{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times 100(\%)$ <p>※ 2018년 세외수입 체납액 = 2018년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 2018년 세외수입 실제수납액</p> <p>※ 2017년 세외수입 체납액 = 2017년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 2017년 세외수입 실제수납액</p>	일반회계	▼
	10. 지방보조금비율 (증감률)	<p>10. 지방보조금비율</p> $\frac{2018\text{년 지방보조금 결산액}}{2018\text{년 세출결산액}} \times 100(\%)$ <p>지방보조금증감률</p> $\frac{(2018\text{년도 지방보조금 결산액} - 2017\text{년도 지방보조금 결산액})}{2017\text{년도 지방보조금 결산액}} \times 100(\%)$ <p>※ 지방보조금 :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307-03), 민간행사 사업보조(307-04),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307-10), 사회복지사업 보조(307-11), 민간 자본사업보조(402-01)</p> <p>※ 평가 시 사회복지보조(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제외</p>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증감률)	<p>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p> $\frac{2018\text{년도 출자출연전출금 결산액}}{2018\text{년도 세출결산액}} \times 100(\%)$ <p>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p> $\frac{(2018\text{년도 출자출연전출금 결산액} - 2017\text{년도 출자출연전출금 결산액})}{2017\text{년도 출자출연전출금 결산액}} \times 100(\%)$ <p>※ 출자·출연·전출금: 출자금(502), 출연금(306), 전출금(309), 공사공단자본전출금(404),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701-02),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701-03)</p>	통합회계	▼

분야	분석지표	산식	대상회계	속성
		※ 전출금(309)의 경우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 전출금(309-03)은 제외 ※ FY2019부터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 제외 ※ FY2019부터 일자리창출 출자출연전출금(정성평가) 추가		
	12. 지방의회경비 절감률	$100 - \left\{ \frac{\text{지방의회경비 결산액}}{\text{지방의회경비 기준액}} \times 100 \right\}$ ※ 지방의회 경비 중 3개 과목: 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동경비(205-05), 의원운영업무추진비(205-06) ※ 지방의회경비 기준액은 2018.12.31 기준 의원 정원수를 기준 ※ 2018.7.1 기준으로 의원 수가 변경된 경우 6개월로 계산 ※ 국외여비는 의원 1인당 200만원으로 계산	일반회계	▲
	13. 업무추진비 절감률	$100 - \left\{ \frac{\text{업무추진비 결산액}}{\text{업무추진비 기준액}} \times 100 \right\}$ ※ 집행부 업무추진비 중 2개 과목 -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사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대상 직위 현황은 2018. 12. 31 기준이며, 2018년 중 조직개편에 따른 변동분은 증빙자료 제출시 추가로 반영 ※ 2018년도 조직개편 내용 증빙자료 미제출시 2017.12.31 기준으로 산출	일반회계	▲

주: 통합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

지표개선 및 경과

1) 재정건전성

측정관점	세부지표	비고
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도 도입지표 - 국제기구의 지방재정관련 통계요구로 인해 국제기준의 통합재정수지 지표 도입
	실질수지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도 도입지표 - 이월금 및 보조금집행잔액을 제외한 자치단체 실재수입 대비 수지비율을 측정하기 위해 도입 - 2017년 재정분석에서 참고지표로 이동 - 통합재정수지비율의 보조지표적 성격이 강하며 단체별보고서 작성 시 산출된 실질수지의 활용성이 떨어진
	경상수지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년 이전 도입지표 - 재정수지를 대표하는 지표
채무(부채)관리	관리채무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도 도입지표 - 채무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채무의 수준과 상환능력을 정밀하게 측정, 예측하기 위해 도입(BTL 잔액을 채무범위에 포함)
	관리채무부담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도 도입지표, 2016년도 참고지표로 이동 - 관리채무비율과의 높은 상관성 및 이중 평가 문제로 참고지표 이동
	관리채무상환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도 도입지표, 2016년도 참고지표로 이동 - 관리채무비율과의 높은 상관성 및 이중 평가 문제로 참고지표 이동
	지방채무잔액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도 도입지표 - 지방재정위기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 반영을 위해 도입 - 재정위기를 사전에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입 - 2013년 관리채무비율, 관리채무부담비율, 관리채무상환비율이 도입되면서 지표 간 높은 상관성으로 지표정리 차원에서 참고지표로 이동
	장래세대부담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도 도입지표 - 지방재정위기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 반영을 위해 도입 - 재정위기를 사전에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입 - 2013년 관리채무비율, 관리채무부담비율, 관리채무상환비율이 도입되면서 지표 간 높은 상관성으로 지표정리 차원에서 참고지표로 이동
	실질채무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도 도입지표 - 광역자치단체 관리채무 중 공기업특별회계의 지역개발기금 중 기초자치단체 융자금을 제외하고 본청에서 사용하는 융자금만을 측정하기 위해 도입 ◆ 2017년 재정분석에서 관리채무비율로 통합 - 관리채무를 채무 대표지표로 관리하고 있어 채무에 대한 분석·평가를 관리채무비율로 일원화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도 도입지표 (현금창출자산대비부채비율) - 채무 이외 부채개념 (복식부기 부채) 도입에 따라 도입된 지표 - 2016년도 지표명 변경(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통합유동부채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도 도입지표 - 재정관리 범위를 통합회계 및 우발부채로 확대됨에 따라 통합부채 관리차원에서 도입
공기업 관점	공기업부채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도 도입지표 - 지방자치단체 채무 및 부채 관리범위의 확대를 통해 자치단체 채무 및 부채 수준을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 도입 - 2016년도 적용범위 확대(시설관리공단 포함)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도 도입지표 - 지방자치단체 관리 범위의 확대를 통해 자치단체 재정상태를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도입 - 2016년도 적용범위 확대(시설관리공단 포함)

* 회색음영: 2019년 재정분석 지표(하늘색음영은 과거 지표)

2) 재정보율성(운용노력도)

측정관점	세부지표	비고	
효율성 (세입관리)	자체세입비율 (비율증감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도입지표 - 건전성 지표(자체세입기반)로 도입 - 2013년 효율성 지표로 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분석 결과와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항목과 연계 강화를 위해 효율성으로 이동 - 2017년 지방세수입비율과 경상세의 수입비율로 이원화
효율성 (세출관리)	지방보조금비율 (증감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년 ~ 2007년 도입지표 - 민간이전경비비율로 도입 - 2016년 지방보조금비율로 지표명 변경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증감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 도입지표 (출자출연금비율) - 지출관리강화 차원에서 도입(제3섹터로의 출연출자금 등 고정적으로 지출되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부담을 주는 행위에 대해 직접 측정하기 위해 도입) - 2016년 출자출연전출금 비율로 지표명 변경 	
	의무지출비율 (증감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 도입지표 - 지출관리강화 차원에서 도입된 지표로 고정 지출로 인한 자치단체 재정부담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도입 - 2015년 참고지표로 이동 	
	민간위탁금비율 증감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도입지표 - 지방보조금 절감을 위해 민간위탁금 편성 사례 방지 및 민간으로 이전되는 세출의 정확한 규모를 측정하기 위해 도입 - 2015년 참고지표로 도입 후 2016년 본 지표화 	
노력도 (세입확충노력) 2014년 세입효율성으로 통합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도입지표 -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항목 중 세출절감 및 세입확충 노력과 관련된 사항은 재정분석 결과를 활용하고 기타사항은 별도 취합하여 활용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증감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도입지표 -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로 도입 	
	경상세외수입비율 (증감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도입지표 -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로 도입 	
	세외수입체납액 관리비율(증감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도입지표 -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로 도입 	
	탄력세율적용노력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도입지표 	
노력도 (세출절감노력) 2014년 세출효율성으로 통합	인건비 집행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도입지표 - 재정분석결과와 보통교부세 자체노력항목과의 연계를 위해 도입 - 2017년 인건비집행률로 지표명 변경 및 참고지표 이동 	
	지방의회경비 절감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도입지표 - 재정분석결과와 보통교부세 자체노력항목과의 연계를 위해 도입 	
	업무추진비 절감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도입지표 - 재정분석결과와 보통교부세 자체노력항목과의 연계를 위해 도입 	
	행사축제경비비율 (비율증감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2007년 도입지표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대한 개선노력도와 재정투명성 측정을 위해 도입된 지표 - 행사축제경비절감노력도로 도입되어 2016년 행사축제경비비율(비율증감률)로 지표 변경 	
	자본시설지출비율 (증감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 도입지표 - 지출관리강화 차원에서 도입된 지표로 자본시설에 대한 고정지출로 인한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도입 - 2015년 참고지표로 이동 	
민간이전경비 절감노력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도입지표 - 재정분석결과와 보통교부세 자체노력항목과의 연계를 위해 도입 - 세출절감노력도 지표가 세출효율성으로 통합되면서 2015년 참고지표로 이동 - 2016년 지방보조금절감노력도로 지표명 변경 		

자본시설관리 (2014년 세출관리로 통합)	자본시설 유지관리비비율 (증감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 도입지표 - 지출관리강화 차원에서 도입(제3섹터로의 출연출자금 등 고정적으로 지출되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부담을 주는 행위에 대해 직접 측정하기 위해 도입) - 2017년 참고지표로 이동
----------------------------------	--------------------------	--------------------------------------------------------------------------------------------------------------------------------------------------------------------------------------

* 회색음영: 2019년 재정분석 지표(하늘색음영은 과거 지표)

3) 재정책임성(정책유도)

측정관점	세부지표	비고
재정책임성 (2015년 정책유도지표 로 도입)	재정법령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도입지표 - 재정운영 시 지방재정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
	재난관리기금전출금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도입지표 - 정책유도지표로 도입 - 현안정책의 평가와 관련되어 있고 변동이 상대적으로 손쉬우며 재정분석에서 필수적인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부가적인 성격의 지표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위해 도입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도입지표 - 정책유도지표로 도입 - 현안정책의 평가와 관련되어 있고 변동이 상대적으로 손쉬우며 재정분석에서 필수적인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부가적인 성격의 지표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위해 도입
	재정공시노력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도입지표 - 자치단체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돕고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
	재정분석대응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도입지표 - 자치단체의 재정분석 자료입력의 신속성·정확성 등 재정분석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도입

* 회색음영: 2019년 재정분석 지표(하늘색음영은 과거 지표)

4) 재정계획성(2013년 참고지표로 이동)

측정관점	세부지표	비고
재정계획성 (2013년 참고지표로 이동)	중기재정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도입지표 - 2013년 참고지표로 이동
	투융자심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도입지표 - 2011년 의뢰심사에서 자체심사대상 사업까지 확대(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의뢰사업이 없어 변별력 저하) - 2013년 참고지표로 이동
	예산집행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도입지표 - 2013년 참고지표로 이동
	정책사업투자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도입지표 - 2013년 참고지표로 이동

* 하늘색음영은 과거 지표